

第 1 合 同 分 科 會

(貿 易 增 進 分 野)

〈共同議長〉

韓國側：朴 龍 準 大慶 GROUP 會長
日本側：植田 三男 日商岩井(株) 相談役

韓・中國間の 交易展望과 日本의 役割

(韓國側 主題發表)

日 海 研 究 所

先任研究委員 吳 鎮 龍

I. 韓・中國間の 現況과 評價

1. 韓・中國 間接交易 現況

韓・中 兩國間に 商品の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統計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이며 처음 5年동안은 小規模 輸入이 꾸준히 增加되는 趨勢를 보였다. 兩國의 交易이 本格的으로 궤도에 오른 것은, 美・中の 關係 正常化이후 中國이 資本主義 國家들을 상대로 積極的인 開放政策을 펴기 시작한 1979년부터였다. 兩國間の 交易에는 처음부터 政治色이 排除되어 있었다. 初期에는 韓國의 窒素肥料과 中國의 石炭이 바터形式으로 去來되었다. 당시 韓國産 窒素肥料은 루마니아, 日本 다음으로 競爭力이 있었고 中國의 石炭價는 國際時勢를 밑도는 低廉한 편이었다.

그런 意味에서 韓・中國間の 間接交易은 價格競爭力이 있는 商品이라면 理念과 體制의 벽을 超越해서 어느 地域과도 交易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좋은 例를 보여준 것이다. 當時만 해도 中國은 開放初期에 있었기 때문에 交易規模는 微微했으나 그 伸張勢는 대단히 컸다. 例를 들면, 1979年 兩國의 交易規模는 約 2千2百萬달러였으나 1年後인 1980年에는 3倍以上 늘어나 7千2百萬달러나 되었다.

<表 1> 홍콩을 통한 韓國의 對中國 輸出入 推移(1981-87)

(單位: 百萬달러)

區 分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輸 出	145	56(-61.4)	45(-19.6)	160(255.6)	355(121.9)	276(-22.3)	538(94.9)
輸 入	74	94 (27.0)	115 (23.3)	185 (60.9)	249 (34.6)	377 (51.4)	650(72.4)
交易總額	219	150	160	345	604	653	1,188

註: ()內는 前年對比 增加率
資料: 香港政府 統計

兩國의 交易이 北韓에 미친 影響은 컸다. 交易規模가 擴大되면서 中國.北韓間에는 이 問題로 미묘한 葛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9-81年 韓.中國 兩國의 交易은 急伸張勢를 보였으나 1981年 하반기부터는 北韓의 反撥과 抗議, 金日成의 北京訪問(1982.9)에 따른 中國政府의 豫防的인 조치로 稅關이 韓國商品에 대한 規制를 엄격히 실시함에 따라 1983년까지 韓國의 輸出은 급격히 減少하였다. 韓國쪽에서 보면 輸出은 크게 減少하였으나 輸入은 크게 制限을 받지 않았으므로 兩國交易은 지속적인 擴大局面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民航機事件(1983.5)과 아웅산 爆破事件(1983.10)은 韓.中國間의 交易을 積極的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 民航機事件을 통해서 韓.中 兩國間에는 우호적인 雰囲気가 크게 高潮된 반면, 아웅산事件을 통해서 中國 指導層의 北韓에 대한 背信感이 한층 뿌리깊어짐에 따라 韓.中 兩國關係는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이런 背景속에서 1983-84年の 交易은 劃期的인 伸張率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言及한 中國.北韓間의 葛藤과 韓.中國間 交易의 經濟的 利點이 相互作用을 한 結果였다. 특히 아웅산事件이후 北韓이 난처한 公지에 빠져있는 點을 中國은 오히려 韓國과의 交易을 積極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契機로 삼았을 可能性

이 크다. 1984年은 韓.中國 交易의 紀念碑인 해였다. 美.中國間의 關係가 強化되고 北韓이 아웅산事件을 糊塗하기 위해 積極的인 平和攻勢를 취함에 따라 南.北 對話의 雰囲気가 高潮되는 등의 對內外的인 環境要因이 韓.中國間의 交易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 北韓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聯合會議에서 '3者會談'提議(1.10)
- 趙紫陽의 訪美(1.10)
- 레이건.趙紫陽會談이후 南.北韓問題 해결을 위해서 中國이 참가하는 4者會談에 관심을 表明
- 韓國 테니스선수단 昆明도착(2.25)
- 아시아 蹴球聯盟會議에 韓國代表 4名 參加(中國.廣州, 4.7)
- 第8回 아시아 靑少年籠球大會 中國팀 참가(서울, 4.7)
- 第1回 南.北 體育會談 板門店 開催(4.9)
- 아시아 水泳選手權大會 中國選手團 29名 參加(서울, 4.26)
- 레이건의 北京訪問(4.26-30)
- 中國外交部長 吳學謙 韓半島問題 1國 2體制論 解決 言及(China Daily, 4.26)
- 第2次 南.北體育會談(4.30)
- 슐츠國務長官 서울도착(5.1)
- 레이건 中國訪問 結果: 韓半島問題 協議內容 說明
- 金日成 蘇聯.東歐 訪問(5.23-7.1)
- 第3次 南.北體育會談 問題 開催(5.25)
- 슐라즈下院 議員 北韓招請 發表(6.25)
- 아베外相 中國을 통한 北韓의 對日接近 환영論評(7.8)
- 姜成山 北韓總理 北京訪問(8.5)
- 胡耀邦과 會談 1國 2體制論 率論(8.8)
- 北韓 赤十字 中央委員會 對南 水災物價 提供 提議(9.8)
- 韓國 赤十字 板門店, 仁川, 北平港에서 引受(9.29-10.4)
- 第1次 南北經濟會談 金基桓 首席代表 등 7名 參加(11.15)
- 金日成 北京 秘密訪問(11.26-28)
- 鄧小平.胡耀邦 등과 4次會談

1984年 한해동안의 重要事件을 分析해 보면 첫째, 南.北韓 對話가 무르익었고

둘째, 韓.中國間의 體育交流가 빈번히 舉行되었으며 세째, 美.中國 關係가 強化되었을 때 韓.中國間의 交易도 어느때 보다도 活潑한 進展이 있었다는 重要的 사실을 알수 있다.

1985年 韓國의 對中國 輸出이 급격히 伸張된 이유는 中國經濟의 變化와 깊은 關聯이 있다. 1985년에 접어들면서 中國經濟는 急激한 開放의 과정을 통해 經濟主體가 다양화되고 政府의 통제가 이완되면서 構造的인 變化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固定資産 投資의 過熱, 所得增加에 따른 消費의 大幅的인 增加, 通貨量의 急增(1984年 47%, 1985年 55% 增加), 價格自律化 措置(1985.5)에 따른 耐久消費財. 生必品 價格仰騰, 換率의 實勢化(1984年 元貨의 對달러換率 2.74元에서 3.20元으로 16.8% 評價切下)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景氣過熱과 一時的인 需要爆發現象이 일어나면서 텔레비전.냉장고와 같은 家電製品들이 韓國의 對中國 輸出을 主導하였다.

1985年이후 內部需要増大로 輸入이 늘어나면서 惡化되기 시작한 中國의 國際收支가 韓國의 對中國 輸出에도 큰 影響을 미쳤다. 1981-83年동안 中國의 對外貿易은 계속적인 黑字를 具現하여 1984年 9月 外換保有高는 173億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1984年부터 상황은 反轉되어 1984年 17億달러, 1985年 150億달러, 1986年 120億달러의 赤字를 기록하게 되었다. 國際收支 赤字의 原因은 耐久消費財의 輸入熱風과 投資過熱로 인한 機械設備의 輸入이 급격히 증가한 反面, 海外市場與件의 惡化로 輸出이 부진하였고, 穀物.棉花와 같은 農産物과 原油의 國際價가 크게 下落하였기 때문이었다.

1986年の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韓.中國 兩國間에는 友好的인 무드가 造成되고 그런 雰囲気에서 韓.中國間의 商品交易은 既定事實로 받아 들여지는 傾向이 있었다. 韓.中國交易은 1986-87年이후 本格的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表 2> 韓國의 홍콩經由 對中國 輸出入 商品構造 (單位: 美百萬달러)

SITC 분류	1987		1986		1985		1984		1983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0. 食品 및 주로 食用산동물	2.09	8.79	0.24	9.21	0.45	13.28	0.20	8.21	0.12	5.30
1. 飲料 및 담배	0.35	0.00	0.05	-	0.00	-	0.01	-	-	-
2. 非食用原材料, 燃料除外	5.91	169.35	3.06	117.67	8.47	92.89	12.93	89.71	2.09	48.10
3. 礦物性 燃料, 潤滑油 및 關聯製品	0.01	0.25	0.01	0.10	0.05	0.13	0.02	0.29	0.00	1.0
4. 動植物性 油脂 및 왁스	-	2.01	-	1.91	-	0.98	-	1.27	-	0.68
5. 化學 및 關聯製品	32.49	46.73	20.14	29.94	15.20	16.63	3.83	17.05	1.55	15.02
6. 材料別 製造製品	307.96	404.72	203.93	212.08	182.15	121.96	106.79	66.02	33.56	36.20
7. 機械 및 運輸裝備	156.25	2.28	31.53	0.30	139.95	0.06	37.05	0.13	3.68	0.07
8. 雜製品	32.61	15.26	17.07	5.61	6.69	3.25	1.44	2.14	0.54	1.04
9. 달리 분류되지 않는 商品 및 取扱物	0.44	0.18	0.27	0.09	0.18	0.09	0.08	0.05	0.03	0.02
合 計	538.11	649.57	276.31	376.92	354.45	248.74	160.39	184.77	41.93	107.52

2. 韓·中國關係의 評價

韓·中國交易은 兩國을 연결시키는 重要한 手段이 되고 있다. 商品交流를 통해서 兩國의 國民은 相互理解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商品交流의 增進과 함께 企業人 訪問, 技術·文化關係 人的交流, 스포츠競技의 交換, 離散家族 僑胞의 相互訪問도 增加趨勢에 있다. 그러나 韓國이 經濟交流, 企業人의 相互訪問과 技術·文化關係者의 訪問에 대해 積極的인데 비해 中國은 僑胞訪問, 스포츠競技의 交換에 熱意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兩國의 각기 다른 視角을 쉽게 엿볼수 있다. 中國은 韓國에 대한 政經分離의 原則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非公式的으로 實質的인 關係를 維持하고 싶어한다. 특히 兩國關係를 雙務的인 관계가 아닌 多者間의 관계로 制限하고 있다. 이

것은 直接的인 接觸이나 公式的 交流를 회피 한다든가, 혹은 人道的인 次元의 離散 家族 訪問, 4個國이상이 참가하는 國際會議에서의 接觸, 國際機構가 개최하는 多國 間의 活動에만 참가하는 등의 中國의 態度에서도 잘 나타난다.

中國은 현재의 兩國關係를 ‘商品交流의 段階’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兩國이 처한 政治的 立場과 國際環境을 考慮해 볼때 現在의 상태가 理想的이며 현재와 같은 狀態下에서도 兩國이 當面한 懸案問題를 다루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中國의 이와 같은 評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만일 中國이 公開적으로 韓.中國間의 交流를 확대해 나갈 경우, 그것이 北韓.蘇聯間의 密着을 誘發하는 動機가 될 것으로 判斷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中國의 視角은 重要하다. 政治的으로나 戰略的으로 中國이 北韓과 현재와 같은 關係를 維持해 나간다면 韓.中國間의 關係正常化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中.蘇關係가 劃期的으로 변할것 같지는 않으므로 中國의 ‘北韓重視’政策이 바뀔 可能性은 매우 稀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國.北韓關係도 점차 變化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登場, 和解를 前提로 하는 새로운 中.蘇대탕트 雰圍氣 造成, 開放政策의 進展에 따라 中.蘇關係의 和解 可能性이 커진 反面, 對內的으로는 改革과 開放政策이 진전되면서 趙紫陽, 李鵬, 喬石, 田紀雲 등 ‘北韓과는 歷史的 인연이 없는 세대’들이 登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新生世代들이 理念的 結束보다 現實的 實際利益을 重視한다든지 美.日과 의 經濟協力強化, 全方位 外交를 指向(霸權反對, 特定國家와의 友好만을 強調하지 않음)하는 등의 政策을 推進해 온 點을 미루어 볼 때, 對外政策에 있어서도 地域問題의 現象維持, 紛爭介入의 回避, 軍事經費節減, 第3世界에 대한 支援을 급격히 減少(1970年代에는 第3世界에 대해 每年 2億달러를 援助해 왔으나, 1984년에는 4千萬달러로 減少)시켜 오고 있다는 점에서 特徵을 갖는다. 이와 같은 變化로 미루

어 볼 때 앞으로 中國政府는 表面的으로 北韓과 ‘친척과 같은 同盟’임을 強調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본적인 關係維持만을 追求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北韓關係가 疏遠해졌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韓.中間의 교류가 強化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韓.中國關係가 強化되는 趨勢이기 때문에 北韓.中國關係가 疏遠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專門家들 사이에도 意見이 分分하다. 그러나 南.北韓과 中國間의 三角關係의 特殊性으로 미루어 볼 때 韓.中 兩國의 接近과 北韓.中國關係가 서로 相互作用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南.北韓關係에서 中國이 누리려는 目的은 분명하다. 韓.中國交流에서 얻을 수 있는 經濟的 利益과 ‘두개의 韓國’政策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東北亞地域에서의 政治力量強化가 그 目的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83-87年間의 交易推移<表 2>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기간동안 韓.中間의 交易은 점진적으로 增加되었다. 1987년에 와서는 品目수자에서도 廣範圍하고 內容面에서도 持續性(過去와는 달리)을 나타내고 있다. 그 特徵은 첫째, 兩國間의 交易이 높은 伸張率을 보여왔고, 둘째, 交易 對象品目이 廣範圍하며, 셋째, 品目を 細分類해 보면 ‘水平的인 交易’現象이 두드러지는 점도 特徵증의 하나이다. 특히 化學 및 그 關聯製品, 材料別 製造製品, 機械 및 運送裝備의 輸出增加率이 크게 높아진 점은 中國政府도 對韓 交易에 대해 어느정도 政策的인 배려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政治的으로는 아시안게임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中國政府가 北韓을 의식하면서도 ‘두개의 韓國’政策을 펴겠다는 事實을 公開的으로 態度를 분명히 한것이나 離散家族間의 訪問이 크게 增加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II. 韓·中國 關係의 問題點과 展望

韓·中國間의 交易에 따른 波及效果가 廣範圍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그 肯定的인 面을 살펴보면 間接交易을 既定事實化하고 交易規模를 相當수준으로 끌어 올린 점, 友好的인 雰圍氣가 高潮되면서 體育·文化交流和 離散家族 訪問이 크게 擴大된 점, 體制를 넘어서는 協力基盤을 造成(中國指導層 內部에 對韓 關係改善의 必要性을 인정하는 意見 漸增)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와는 相對的으로 北韓의 반발에 따른 反作用이 表面化되면서 兩國問題의 障礙要因이 深化되는 否定的인 傾向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北韓의 對蘇聯 傾斜가 深化되어 韓半島問題에 蘇聯의 깊은 介入을 誘導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北韓의 對蘇 政治·經濟的 依存도가 深化(蘇聯의 對北韓 援助와 貿易이 급격히 增加)되고 밀접한 軍事協力(共同軍事訓練, 軍事裝備 支援·技術移轉 擴大)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北韓·蘇聯 指導層間의 政治的인 紐帶가 強化되고 있다. 또한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交叉承認을 유도하려는 美·中國間의 意圖와는 달리 北韓의 對美關係가 梗塞되고 南·北韓 交流 對한 北韓의 강력한 반대(南·北韓의 交流와 經濟協力이 일정계도에 오르면 韓國의 對中·蘇 改善의 기회를 提供할 것이라는 北韓의 憂慮 漸增)에 직면하게 된 점도 그 否定的인 反作用의 影響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分斷國’이란 特殊狀況에 있는 韓國의 立場에서 볼 때 韓·中國關係 接近에는 相應하는 代價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1. 韓·中國 關係의 問題點

現 段階에서는 韓·中國 兩國의 接近이 急進的으로 이루어질만큼 前向的인 要因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環境的인 要因으로도 接近을 촉진시킬 수 있는 變化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具體的으로 韓.中國間의 進一步한 發展을 阻害하는 要因을 든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要因을 들 수 있다.

첫째, 北韓內部의 變化를 기대할 수 없다.

中國은 韓半島 問題에서 北韓과의 關係를 前提로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統一(1975)以後 中國의 安全을 위한 北韓의 戰略的 重要性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北韓內部의 政治.經濟的 狀況變化가 얼마나 中國쪽에 유리하게 展開되느냐 하는 점은 韓.中國關係 展開에 決定的인 契機가 된다. 例를 들면, 金日成體制 開放과 改革 可能性, 武力赤化 統一路線의 變化 可能性, 南.北對話의 進展과 南.北間의 人的. 物的 交流의 可能性에 대한 肯定的인 徵候들은 하나같이 韓.中國間의 關係發展을 촉진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中國.北韓間에는 여전히 심각한 葛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中國이 資本主義國家들과의 關係를 강화해 나갈수록 北韓에게는 ‘믿을수 없는 同盟’으로 비춰지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것은 本質的인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短期的 處方으로는 이러한 不信感과 葛藤의 解決이 不可能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意味에서 볼때 中國.北韓이 對外的으로 強調하고 있는 同志的인 關係는 現存하는 兩國間의 特殊한 ‘利益의 去來’(北韓이 政治.戰略的으로 中國을 支持하는 것과 中國의 對北韓 經濟.軍事支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볼 수 있다. 어느 面에서 보면 中國은 美.日과의 關係를 強化하고 있는 만큼 北韓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負擔’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北韓과 美國의 接近이 이루어져야 한다.

韓.中國關係의 接近이 이루어지는데 韓國의 위치는 獨立變數가 아니다. 中國은 기본적으로 韓國問題를 美.中國 關係의 延長線上에서 派生되는 問題로 본다. 즉, 韓國問題를 美國의 利害關係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韓.中國間의 進展이 이루어 진다면 이에 相應하는 美.北韓間의 接近이 이루어져야 한다. 中國은 이것이 緊張緩和와 長期的인 平和定着의 基盤造成 方法이라고 보며 韓半島 問題의 根本적인 解決策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北韓과 ‘人道的인 商品의 交易’은 推進하겠다는 美國의 宣稱(1987. 4)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內包하고 있으며 결국 韓半島의 本質적인 變化는 美.北韓間의 變化와 軌를 같이 하고 있다는 事實을 反映하는 것이다.

세째, 黨內鬭爭이 激化되고 있다.

美.日關係 正常化에는 政治와 外交問題를 掌握하고 있는 毛澤東과 周恩來와 같은 카리스마의 人物들이 存在하고 있었기 때문에 可能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保守派와 改革派間의 黨內鬭爭이 尖銳화된 狀態에서 韓國과의 지나친 接近이 權力鬭爭의 導火線이 되지 않는다고 保障할 수 없다.

傳統적인 社會主義 體制意識이 강한 保守派들이 胡耀邦을 親日派로 몰았던 사실을 고려해 볼때, 韓國과의 接近이 政治的 所得에 비하면 오히려 負擔만 큰 政治問題일 수 있다는 점에서 開放政策을 主導하고 있는 改革派 指導者中에서 韓.中國關係는 어느 누구도 強力히 責任지고 싶지 않은 問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볼때 毛澤東이나 周恩來처럼 黨內輿論을 主導할 수 있는 指導者가 登場하거나 이 問題에 대한 黨內指導層의 ‘一體感’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때만이 進一步한 韓.中國 接近이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出帆한지 3個月밖에 안된 趙紫陽體制가

政治的 危險을 무릅쓰고 韓.中國關係를 積極的으로 推進해 나가는 것은 時機尙早일
可能性이 크다는 사실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

2. 韓.中國關係 展望

韓國쪽에서 보면 中國의 經濟成長이 빨라지고, 對外貿易이 크게 擴大되어 中國經濟
의 폭이 커질수록 相對的인 需要가 크게 增加되고 결국 그 不足한 需要를 메꾸는
부분에서 韓國과의 交易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韓國쪽에서는 現在
와 같은 間接交易에서 直接交易 → 貿易代表部 設置 → 直接投資. 合作. 技術移
轉 등 다양한 形態의 經濟協力이 展開되는 過程을 생각하면서 ‘關係 定立’의 窮極
的인 目標은 어디까지나 經濟協力を 통한 政治問題의 解決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經濟發展의 目標을 여전히 自立更生에 두고 있다. 일단 不足한 內部
需要가 充足되거나 自體의 競爭力이 強化되고 나면 內部市場을 폐쇄하고 輸入을
禁止할 것이기 때문에 中國市場은 여러가지 可變性和 規制가 따르는 市場이 될 可
能性도 크다. 이것은 韓國쪽에서 認識하고 있는 ‘中國市場’과 中國의 計劃經濟體制
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事實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韓國이 보는 中
國’과 ‘현실속의 中國’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認識의 差異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中國은 지금까지 堅持해 온 立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韓國은 直交易을
통해서 보다 公開的이고 自由로운 ‘經濟交流’를 바라고 있으나, ‘社會主義 特殊性’
(計劃經濟. 自立更生)이 살아있는 한 中國이 韓國의 期待를 受容해 나가기에는 상당
한 時間이 必要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韓.中國關係의 進展을 ‘時間의 概念’으로 展
望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한 障礙要因과 問題點을 따져보고 또 앞으
로 展開될 여러가지 變數 즉 中.蘇關係의 變化, 中國經濟의 發展速度와 開放推移,
金日成體制의 開放推移(특히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考慮해 볼 때 短期的으로는 現
在和 같은 狀態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의 趙紫陽體制가 中共黨 ‘十四全大會’(1992)가 지나서야 政治的인 뿌리가 確固해질 것으로 展望되고, 또한 이 時期를 前後해서 北韓도 ‘金日成 이후’體制가 定着될 것이므로 적어도 1990年 중반이후에나 韓國 企業들은 다른 資本主義 國家들이 中國市場에서 갖는 ‘機會’를 平等하게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Ⅲ. 韓·中國關係와 日本의 役割

韓·中·日의 相互關係를 다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 存在하는 각기 다른 세가지 形象을 比較하는것 만큼이나 複雜한 것이다. 이 세나라 사이에는 서로 制限的인 要因이 强하게 作用하고 있고 또 政治·經濟的으로 각기 다른 形態의 兩面性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韓·日 兩國間에도 동일한 資本主義的 市場經濟를 指向하면서도 經濟發展·技術水準은 물론 企業家 精神, 個人的 自由, 政治文化, 社會制度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性格의 差異가 있고, 이제 開放과 改革을 시작한지 10年밖에 안되는 社會主義 國家인 中國과 日本 사이에는 그 類似性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相異한 社會體制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나라는 自國의 現代化와 工業化에 대해서 强렬한 熱望을 나타내고 있다. 日本은 이미 世界 先進國의 頂上에 와 있다. 그러나 世界經濟를 선도하면서도 政治·軍事的인 역할을 回避하고 있다. 韓國은 所得水準에 있어서는 中進國으로 부를수 있으나 工業化와 國際化의 水準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狀態에 있다. 그러나 韓國은 강한 潛在力을 갖고 있다. 한편 中國이 社會開發 정도와 所得水準에 있어서는 低開發國 水準에 있으면서 政治·軍事的으로는 強國으로 浮上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이한 점이다. 最近 이 세나라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特徵은 자신들의 體制에 알맞은 現代化된 福祉國家를 建設하기 위해서 모든 內在的인 에너지를 噴出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兩國間 혹은

三國間에 끊임없이 각기 다른 形態의 ‘生産的인 摩擦’이 일어나고 있는 事實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것은 물론 이 地域이 가장 높은 經濟成長을 기록하는 ‘成長의 震源地’라는 事實과도 關係가 있다. 특히 國際分業의 측면에서 보면 韓.日 兩國은 너무나 가깝게 隣接해 있으며 兩國에 內在하는 여러 同質的인 요인들이 經濟와 產業에 크게 作用을 하고 있다. 端的으로 표현한다면 兩國은 쉽게 協力이 가능하면서도 多方面에서 서로 競爭關係로 돌입하기 쉬운 나라이다. 中國을 市場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이 市場에서 韓.日關係는 특히 競爭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兩國은 性格적으로 각기 다른 分野에서 競爭力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部分野에서도 短期的인 競爭要因은 있으나 결코 本質的인 競爭關係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시간이 가면 中國과의 交易에서 日本企業들의 韓國에 대한 視角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趨勢로 볼 때 아시아 NICS의 高度成長과 國際化的 進展, 엔高 現象에 따른 賃金水準의 급속한 上昇, 持續的인 產業構造의 조정을 통해 日本內에서 比較優位喪失 產業의 對中國 移轉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中國의 일부 沿岸地域으로 生産據點이 移動되는 과정에서 日本企業의 中國進出은 크게 增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狀況으로 미루어 日本企業들은 계속해서 過去와 같이 中國市場으로 商品만을 輸出하는데 注力할 것 같지는 않다.

中國의 對外經濟에 있어서 실제 日本의 比重(1986)은 매우 높다. 輸出 21.6%, 輸入 31.5%, 對外借款 50.9%가 日本과의 關係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海外起債의 68%가 東京市場에서 상장되고 技術導入 계약의 24%가 日本企業과의 協力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印象的인 예를 든다면 中國에 常駐하는 1,583個의 外國事務所중에서 日本企業이 647個(40%)로 나타나고 있는 點이다. 이렇게 볼 때 日.中

關係가 보다 成熟해지고 單純商品 去來에서 깊은 經濟協力の 段階로 發展될수록 中國의 經濟는 活性化되는 것이며 中國經濟라는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韓.中 交易의 幅도 커지기 때문에 日.中 關係의 強化가 韓國에 결코 不利할 것이 없는 것이다.

미래의 세나라 關係를 볼때 中國은 政治.軍事的인 大國으로 位置를 強化해 나갈 것이며 日本은 勢力싸움에 介入하지 않으면서 經濟大國으로서의 役割을 다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크게 보면 日.中 關係는 계속해서 密接한 파트너로서 協力を 強化해 나갈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皮부를 刺戟하는 式的 작은 葛藤이 끊임없이 나타날 可能性도 있다. 그 中間에서 韓國은 日.中 兩國間에 전개되는 政治.經濟的 上昇勢를 現實打開의 機會로 최대한 利用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韓.中.日 三國關係는 長期的으로 상당히 安定的인 依存關係를 形成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지 韓.中 兩國에 있어서 日本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다. 兩國에 있어서 日本은 情報와 技術獲得의 源泉이며, 동시에 대단히 廣範圍한 工產品 販賣市場으로서의 比重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 韓.中.日 세나라사이의 特性을 잇는 共通의인 ‘연결고리’가 있다면 國際分業, 技術提携, 技術協力과 같은 民間次元에서의 協力이라고 할수 있다. 이 點은 強調할 必要가 있다. 國際經濟 狀況도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변하고 있다. 日本은 輸出面에서 다른 나라의 經濟發展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고 또한 對內的으로는 계속되는 貿易黑字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劃期的인 輸入増大를 圖謀해야하며, 그 輸入増大를 통해서 더 높은 成長과 輸出을 推進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過程에서 韓.中.日 세나라는 새로운 役割을 갖게 된다. 日本에 경우에는 에너지 食糧의 輸入増加는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輸入이 크게 늘어난다면 그것은 工產品일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韓.中 兩國과 日本 企業間

의 水平型 國際分業은 自然히 廣範圍하게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企業으로서는 급변하는 國內外 環境에 對應하는 手段으로서 國際協力, 技術提供, 水平分業, 工產品 輸入의 擴大를 불가결한 趨勢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國際經濟는 多極化해 가면서 安定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속에서 日本의 經濟的 지위는 계속 上昇될 것이며 日本企業의 國際社會에서의 責任과 役割은 한층 強化될 것이다. 특히 日本經濟가 國際化와 成熟化의 과정을 추구하는 동안 韓.中 兩國은 각기 다른 性格의 經濟協力 파트너로서 位置를 定立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展開될 ‘東北亞 經濟圈’에서 日本의 役割은 重要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日本の 貿易構造・産業構造 變化와 展望 (日本側 主題發表)

(株) TOMEN

會長 武内 俊夫

紹介해 받은 TOMEN의 武内俊夫입니다.

오늘의 主題인 「日本の 貿易構造・産業構造와 展望」에 대하여 日本側 參席者를 代表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1985년 9월 프라자 合意以後, 円貨의 対달러貨 換率이 1 달러당 242円에서 최근에는 128円까지 急騰하여, 이를 契機로 日本の 貿易 및 産業構造는 前例가 없던 速度로 變化하고 있습니다. 円貨強勢에 따른 輸出의 減少로 인해 日本の 經濟는 큰 打撃을 받았으나, 各種 調整過程을 겪어 작년 後半以後, 個人消費, 住宅建設등을 중심으로 한 内需擴大에 의해 構造를 變化시키면서 새로운 成長을 達成할 수 있는 展望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즉, 엔화강세에 따른 輸入價格의 下落으로 生産コスト 低下와 物價安定, 그 위에 政府의 財政投融资 擴大등, 緊急經濟對策으로 個人消費를 위시하여 内需가 予想으로 順조롭게 擴大되서, 日本經濟의 成長패턴은 表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外需主導型에서 内需主導型으로 轉換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987년 日本の 輸出은 소위, J 커브效果에 의해 9.6%의 增加가 되었으나, 円貨基準으로는 5.4%가 減少하고 數量基準으로도 2.0%가 減少했습니다. 한편, 輸入額은 달러貨基準으로 18.3%, 円貨基準으로 0.8%, 數量基準으로 8.3% 각각 增加했습니다. 특히, 製品類 輸入이 두드러져 전체 輸入額 1.495億 달러 가운데 製品比率은 原油價格이 下落한 점도 있어서 1985년 31.0%, 86년 41.8%에서 '87년에는 44.1%가 되었습니다. 그 結果, 貿易収支(國際収支基準)黑字는 달러貨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兪도는 965억달러였으나, 月別 黑字幅은 지난해 5월 이후 계속해서 前年同月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円貨기준으로는 前年對比 9.3% 減少하여 日本の 貿易収支黑字는 분명히 縮小過程에 있습니다.

輸出入을 商品別로 보면, 輸出은 通信機器, 半導體等 電子部品 그리고 自動車部品이 달러貨基準으로 30% 前後의 높은 伸張率을 나타냈으며, 거꾸로 두드러지게 減少한 것은 TV 17.6%, VTR 20.4%, 船舶 10.9% 등이었습니다. 한편, 輸入은 앞에서 觸及한 바와 같이 製品類가 크게 伸張했는데, 그品目은 특히, 自動車 21억달러(87.3% 증가), 製鋼 25억달러(40.6% 증가), 纖維製品 76억달러(51.6% 증가), 非鉄金屬 56억달러(54.3%)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主要國과의 貿易은 表2 에서와 같이 對美貿易은 輸出이 3.9% 증에 머물고, 輸入은 8.4% 增加했으나 貿易收支는 여전히 521억달러를 넘는 巨額이었습니다. 對EC 貿易은 輸出이 22.9%, 輸入이 26.3% 增加하고, 對東南亞도 輸出이 26.8%, 輸入이 31.0%나 增加, 특히 韓國, 自由中國, 香港, 소위 NICS와는 輸入의 增加가 輸出의 增加를 크게 잇돌아 輸出入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率도 지난해보다 각국 모두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日本의 貿易構造는 엔화강세와 好調되는 內需를 反映하여 輸出低調, 製品을 중심한 輸入急增에 따라 크게 變貌하고 있어, 이러한 輸出入構造 變化가 産業構造 轉換을 促進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激變하는 內外環境 속에서 日本企業은 어떻게 対処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화강세의 進行은 輸出數量的 減少나 輸出採算의 惡化를 통하여 企業收益面에 多大한 影響을 미칩니다만, 反面, 輸入原材料價格의 低下 그리고 企業의 合理化 努力을 促進시키므로써 生産코스트를 낮추고 게다가 內需擴大와 더불어 売出額, 經常利益, 設備投資가 모두 높은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986년초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던 製造業의 設備投資도 87년 4/4분기에는 플러스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輸出依存度가 컸던 企業은 國際競爭力이 低下되므로써 轉廢業하게 되거나, 生産拠点を 적극적으로 海外에 移轉하는 경우가 增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화강세를 契機한 貿易 및 産業構造의 變化는 一過性이 아니고 中長期的으로 계속할 것이 確實視되어, 지금까지의 原資材 輸入, 加工, 製品輸出과 같은 垂直分業型 貿易패턴은 製品의 輸出入 比重이 높은 水平分業型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NICS국들과의 水平分業化 움직임이 予想하는 이상으로 進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日韓貿易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兩國間의 貿易은 日本側의 대폭적인 出超가 持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觸及한 대로 지난해 日本의 貿易(率)은 輸出이 26.8% 增加한데 대해 輸入은 52.6% 增加하여 輸入의 增加가 輸出增加를 크게 웃돌아, 出超幅이 絶對額에서도 약간이지만 지난해보다 縮少했습니다. 특히, 家電製品이나 纖維製品의 輸入增加는 注目할 만하며, 韓國으로부터 製品 輸入이 增加하는 傾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貿易擴大나 産業間協力을 통하여 兩國의 經濟關係가 더욱더 緊密化되어 훌륭한 파트너로서의 善隣協調가 進展됨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대해 同慶해 마지않습니다.

傾聽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表 1 日本實質經濟成長率의 内外需寄与度(前年比%)

	1975	1980	1985	1986	1987
實 質 成 長 率	2.7	4.3	4.9	2.4	4.2
內需 寄与度	0.7	0.9	3.8	3.8	5.0
外需 寄与度	1.9	3.4	1.1	△1.4	△0.7

(資料) 經濟企画庁 : 國民經濟計算

表2 日本의 对主要国 輸出入 実績

(단위 : 백만달러)

		1985	1986	1987	1987/1986
美 国	輸出	65,278(37.2)	80,456(38.5)	83,580(36.5)	+3.9
	輸入	25,793(19.9)	29,054(23.0)	31,490(21.1)	+8.4
	収支	39,485	51,402	52,090	
E C	輸出	20,016(11.4)	30,675(14.7)	37,693(16.4)	+22.9
	輸入	8,893(6.9)	13,989(11.1)	17,670(11.8)	+26.3
	収支	11,123	16,686	20,023	
東南아시아	輸出	33,248(18.9)	41,788(20.0)	52,982(23.1)	+26.8
	輸入	30,264(23.4)	29,489(23.3)	38,627(25.8)	+31.0
	収支	2,984	12,299	14,355	
韓 国	輸出	7,097(4.0)	10,475(5.0)	13,229(5.8)	+26.3
	輸入	4,092(3.2)	5,292(4.2)	8,075(5.4)	+52.6
	収支	13,005	5,183	5,154	
自由中国	輸出	5,025(2.9)	7,852(3.8)	11,346(4.9)	+44.5
	輸入	3,886(3.0)	4,691(3.7)	7,128(4.8)	+52.0
	収支	1,139	3,161	4,218	
홍 콩	輸出	6,509(3.7)	7,161(3.4)	8,872(3.9)	+23.9
	輸入	767(0.6)	1,073(0.8)	1,561(1.0)	+45.4
	収支	5,742	6,088	7,311	
中 共	輸出	12,477(7.1)	9,856(4.7)	8,250(3.6)	-16.3
	輸入	6,483(5.0)	5,652(4.5)	7,401(5.0)	+31.0
	収支	5,994	4,204	849	
總 額	輸出	175,638(100.0)	209,151(100.0)	229,221(100.0)	+9.6
	輸入	129,539(100.0)	126,408(100.0)	149,515(100.0)	+18.3
	収支	46,099	82,74	79,706	

(注) ()内는 構成比(%)임. 資料 : 大藏省 通関 統計.

코 멘 트 (I)

南榮産業 (株)

會長 南相水

韓日兩國은 經濟交流面에 있어서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었으며 相互平等한 파트너로서 각기 바라는 바를 友好的으로 解決해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美國이 國際收支 惡化로 對外輸入에 있어서 韓國과 같은 아시아 NICS로부터의 輸入은 特別한 與件變動이 없는 한 擴大化시킬 수 없는 어려운 立場에 있으므로 日本이 美國을 대신하여 豊富한 購買力을 背景으로 對 NICS 輸入을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ICS의 對美輸出이 위축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 나라의 對日輸入도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雙方 모두의 利益을 위하여 日本은 政策的으로 輸入을 과감히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投資誘致 및 技術導入에 있어서 日本이 最近 投資規模 및 로알티가 平均水準을 下廻하고 있는 바 이는 日本業界가 核心技術의 移轉을 忌避하고 있기 때문에 改善은 不可能하다고 分析됩니다.

방금 코멘트하신 伊藤忠商事의 吉田專務께서 숫자를 나열해주셨지만 韓日間의 貿易不均衡의 改善을 위한 兩國의 産業構造調整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水平分業이 더욱 擴大・増加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韓國의 加工貿易의 飛단인 從來의 對日輸入・對美輸出에서 對日輸入・對日輸出이 主

軸을 이루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日本이 對韓購買部品
展示會를 더욱 活性化시켜서 日本企業을 對象으로 韓國과 國際分業 및 技
術提携希望品目에 따르는 要望事項들을 共同調整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附言해서 이번 日本經濟団体連合會에서 提意한 39項目에 걸친 輸入節
次上の 諸般改善點, 나아가 386項目의 間接的 措置改善을 日本政府 當
局에 促求하는 것은 時宜適切한 措置라고 評價합니다. 끝으로 流通實例를
들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月 中旬, 本人이 原絲를 日本으로부터 緊急輸入하기 위하여 日
本貿易課에 協調依頼하였는 바, 協調하여 주신데에 대해서는 感謝하게 생
각합니다만, 一部 貿易課에서는 싸게 팔아서 國內業界에 問題가 發生할경우
LC 價格을 올리주면 나중에 외상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는 輸出하는 데도 이러한 慣例이 있는데, 輸入할 때에는 메이커 또는
生産財등에서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것을 쉽게 짐작할수 있어 憂慮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感謝합니다.

一般工業製品の 日韓貿易の 現況과 展望 (코멘트Ⅱ)

伊 藤 忠 商 事 (株)

専務取締役 吉田 亨

伊藤忠商事의 吉田입니다.

本人은 「一般工業製品の 日韓貿易現況과 展望」에 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最近의 日韓貿易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놀라운 정도로 擴大을 繼續하고 있습니다. 貿易總額에서 보면 1985年 112億달러, 1986年 158億달러, 1987年 213億 달러가 되어 1986年과 1987年은 前年對比 各 各 41%, 35%가 增加되었습니다.

輸出入別로 보면 日本의 對韓輸出은 1985年 71億달러, 1986年 105億 달러, 1987年 132億 달러로 크게 增加하였고, 한편 日本의 對韓輸入도 1985年 41億달러, 1986年 53億달러, 1987年 81億달러로 크게 增加 되었습니다.

日本의 1987年度 對韓輸出商品 構成을 보면

機械機器가 全體의 59%, 化學製品 13%, 金屬 및 同製品 12%가 되어 壓倒的으로 機械機器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具體的으로는 金屬加工機械, 纖維機械, 重電機器와 같은 資本財 및 工業製品製造에 使用되는 電子管, 半導體, 自動車部品, 事務用機器, 科學光學機器의 部品 등 中間財가

中心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工業原料가 되는 無機, 有機化學品の 對韓輸出도 急増하고 있습니다.

最近의 韓國輸出産業은 놀랍게 發展되고 있습니다만, 그 成長이 너무나 急増하여 그 生産에 必要한 資本財(生産財)와 中間財는 他國으로 부터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으로 부터의 機械機器輸入이 많은 것은 이와 같은 事情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韓國政府는 이와같은 大幅的인 輸入超過를 抑制하는 것만이 아닌 機械部品素材의 國產化 推進을 爲해서 中小企業을 育成하고 機械工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87年 日本의 對韓輸入商品構成을 보면 纖維製品 27%, 食料品 18% (특히 魚貝類 14%), 機械機器 13%, 鐵鋼 10%로 되어있고, 거의 절반은 纖維製品과 食料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機械機器의 對韓輸入은 全體세어가 13% 程度이며 1985年의 輸入額은 4億 99百萬달러, 1986年 6億 65百萬달러, 1987年은 10億 75百萬달러로 急激히 增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最近의 急激한 恩貨強勢를 考慮해서 日本企業 가운데서도 生産코스트의 節減을 위해 部品輸入과 製品輸入이 活潑했다는 점을 反映하고 있으며, 특히 對韓輸入에서 차지하는 製品輸入比率은 1985年 64%, 1986年 69%, 1987年 74%로 擴大 趨勢에 있습니다.

現在 韓國은 輸出周邊産業의 育成強化를 꾀하고 있습니다만 日韓貿易의 實績에서 보면 原材料나 中間財를 輸入・製品化하여 輸出하는 이른바 加

工貿易的 形態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 育成되고 있는 周邊產業이 더욱 成長하고 日本의 輸入도 더욱더 擴大함에 따라 向後 相互依存的 關係가 보다 進行되어 日韓經濟關係가 소위 垂直的 關係에서 水平的 分業關係로 移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現在의 日本과의 貿易不均衡은 自然히 解消될 것으로 確信하고 있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 멘 트 Ⅲ

(株) 雙 龍

社長 金 基 鎬

방금 紹介받은 雙龍의 金基鎬입니다. 저는 貿易增進에 관해서 簡單히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最近 韓日間の 貿易은 相當히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資料에 의하면 韓國의 對日貿易赤字는 1986 年에 54 億달러, 지난해에는 52 億달러로서 兩國間の 貿易不均衡은 약간 改善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改善은 兩國間の 輸出入이 모두 크게 擴大되는 趨勢속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貿易構造面에서도 機械類등 資本財 比重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우리가 이 會議을 통해 끊임없이 追求해 왔던 兩國間 貿易의 擴大均衡과 水平分業의 達成이 반드시 不可能한 것만도 아니라는 希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成果는 兩國企業人이 美國등으로부터 끊임없이 加해지고 있는 通商壓力을 解消하기 위해 共同의 知慧를 發揮한 結果라고 하겠습니다. 韓日兩國은 모두 높은 經濟成長率을 記錄하고 있고 또한 큰 規模의 國際收支 黑字를 記錄하고 있어 兩國에 대한 通商壓力은 繼續 強化될 것이라는 點을 勘案할 때 앞으로 兩國間の 協力の 必要性은 더욱 切實히 要望되고 있습니다.

最近 韓國은 關稅引下, 輸入制限의 緩和등 商品市場의 開放은 勿論 保險등 서비스市場도 大幅 開放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趨勢를 보면 日本은 이러한 市場開放의 最大 受惠者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趨勢는 繼續될 것이 명백하므로 日本의 對韓進出 與件은 크게 호전되었
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日本市場開放이 擴大되고 있고 企業人 및 消費者의 韓國製品에
대한 認識과 信賴度도 向上되고 있어 韓國의 對日進出 與件이 호전되고
있기는 합나다만, 日本의 市場開放이 先進國關心分野에 集中되고 있어 韓
國의 對日輸出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兩國企業人의 協力意志라고 하겠습니다. 企業人間
의 不信과 警戒感의 解消보다 더 큰 市場開放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우리 兩國企業人은 互惠 原則下에서 緊密히 協調하여 날로 높아지고
있는 保護主義 思考를 克服하고 兩國貿易의 持續的인 擴大・發展을 기해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簡單하게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費財製品の 對日輸入擴大の POINT (코멘트Ⅳ)

(株) 西武百貨店

社長 山崎 光雄

오늘은 海外로부터의 消費財輸入과 擴大에 關해서 평소 느끼고 있었던 點을 概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日本 消費者의 마케팅에는 獨特한 特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들 日本人에게는 品質과 서비스에 상당히 拘礙되는 國民性이 있습니다. 商品의 高品質이 물론 絶對條件입니다만, 그에 더해서 店舖 및 販賣後의 서비스에 對한 配慮도 重要합니다.

두번째로 日本人에게는 傳統적인것을 좋아하는 한편 새로운것과 유니크한 것에 魅惑되는 傾向이 있습니다. 좀처럼 理解되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傳統性・歴史性과 先進性・新奇함을 쫓는 氣分이 우리들 마음속에 共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獨特한 日本人의 特徵에 더해서 最近에는 經濟뿐만이 아니고 生活全體의 情報化・國際化가 進展되고, 商品의 種類가 점점 多樣化 됨과 同時에 消費者—우리들은 보다 넓은 意味로 生活者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의 慾求도 極히 多樣化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細心한 마케팅이 必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最近의 消費傾向을 觀察해 보면 商品의 品質과 identity 등에 拘礙되는 傾向이 高額品志向・브랜드志向에서 보여지는 한편, 家電・衣料品・食品 등에서 特徴적인 것입니다만 一定한 品質을 갖고 있으면 어떤 메이커인지, 어떤 나라의 製品인지에는 拘礙되지 않는 傾向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傾向은 共存하면서도 점점 2分化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日本消費者의 needs 는 보다 多樣化되고, 商品을 보는 눈도 보다 예리해지고 있어 現在 日本에서는 競爭과 淘汰가 심한 消費財 마케팅이 形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日本에서 認定받으면 世界에서도 認定받는다는 말이 過言은 아닐것입니다. 日本企業은 이와같은 國內市場에서 認知되어 生存해온 점에 의해서 國際的으로도 認定되는 實力을 保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經濟의 國際化 가운데서 日本의 마켓트에 있어서도 企業과 商品의 國籍에 關係되지 않는 競爭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外國企業이 日本에 對한 消費財의 輸出을 擴大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포인트가 될것인지에 對해서 크게 區分해서 以下の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日本流通채널을 理解한 販賣채널戰略이 必要합니다. 日本에서는 百貨店・量販店이라는 大型小賣業者 以外에 모던테리 체인, 컨비니언스 체인, 生協, 專門店, 카타로그販賣등 多様な 流通채널이 存在하고 있어 商品의 性格에 따라 適當한 채널을 選擇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또한 最近에는 中小零細小賣店이 減少하고 流通채널은 再編・組織化되는 傾向에 있어 이에 對한 考慮도 必要합니다.

두번째로 充分한 마케팅에 基礎한 商品政策이 必要합니다. 日本 消費者의 눈은 사치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價格에 呼訴하고, 商品을 P R하는 안테나숍을 設置하고, 自國의 文化・藝術・歷史를 意識한 商品展開를 하는 등 多樣한 努力에 의해서 商品을 差別化하고 價値와 意味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例를 들면 우리 西武百貨그룹에서는 獨特한 컨셉트에 基礎하여 NICSSON'S 라는 이름으로 一連의 아시아 NICS 製品의 販賣를 展開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輸入品에서 發生하기 쉬운 日本의 商去來慣行의 壁을 뛰어 넘기 위해서도 納期를 지키는 일, lead time의 短縮化에 힘쓰는 일, 日本側의 發注單位에 對應하는 일등의 配慮가 必要합니다.

세번째로는 販賣促進・P R政策이 必要합니다. 여러 Fair・Event의 開催를 통해서 自國製品의 이미지를 P R하고 높여가는 일이 무엇보다 重要합니다. 日本企業에서 適當한 파트너를 選擇하는 것도 必要할 것입니다. 日本의 小賣資本도 프로모션의 開催등을 통해서 可能的 限 協力을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例를 들면 西武百貨店 그룹으로서도 지금까지 香港 Fair를 開催하고, 今年은 中共博覽會와 印度展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또한 地方自治團體나 商店街와의 交流・相互理解를 促進하거나 또는 今年 88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해서 日本을 찾는 또는 韓國을 訪問하는 旅行者를 늘리는 등의 努力도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政府와 財界 레벨에서도 購買미션의 相互派遣을 促進하거나 日本企業의 購買事務所를 韓國에 積極的으로 設置하는 施策을 充實하게 繼續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이 되었음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強調해 두고 싶은點으로서 다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日本과 韓國사이에는 비즈니스上에서의 여러가지 差異點은 있습니다만, 역시 무엇보다도 消費者의 needs 를 파악해서 이에 對應하는 일이 基本이며 第1條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近視眼的인 商品販賣政策에 그치지 말고 韓國의 文化와 歷史・傳統을 背景으로한 活潑한 販賣促進活動과 積極的인 마케팅活動이 必要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點이 最善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小賣業을 運營하는 사람으로서도 微力하나마 協力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感謝합니다

「消費財製品の 對日輸入擴大の ポイント」

1. 日本消費者 마케팅의 特徵

- 品質과 서비스에 拘礙되는 國民性
- 傳統的인 것에 집착하면서도 새로운것, 유니크한 것에도 魅惑되는 性向
- 經濟뿐만 아니라 生活全體의 情報化・國際化의 進展에 따른 商品의 多品種化・消費者 needs의 多樣化
- ①商品의 品質・identity・서비스에 拘礙되는 性向
②大衆商品으로서 一定한 品質이면 어떤 메이커인지, 어떤나라 製品인지 拘礙받지 않는 性向(例:家電・食品・生活衣料等)

①②가 共存하며 점점 二分化하는 傾向

이러한 點으로 現在 日本에서는 지극히 競爭과 淘汰가 심한 消費財 마켓트가 形成되고 있다. 日本에서 認定되면 世界에서 認定받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經濟의 國際化가운데서 向後, 企業・商品의 國籍에 關係치 않는 競爭이 일어난다.

2. 外國企業의 對日輸出擴大를 爲한 포인트

① 販賣채널戰略의 必要

- 多樣的한 流通채널의 存在
 - 商品의 性格등에 따라 適當한 流通채널을 活用할 必要
- 現在의 日本: 流通채널의 再編期→中小零細小賣店數의 減少・組織化의 進展

- 점점 組織化되는 傾向에 있는 既存流通채널을 效果的으로 活用하는 것이 重要
- 主要한 流通채널
 - 百貨店・量販店 / 보랜터리체인・프랜차이즈체인
生協・農協 / 專門量販店 / 카타로그販賣

② 商品政策의 必要

- 넓은 意味에서의 마케팅에 의한 商品의 差別化・附加價値化的의 必要
 - 價格에서의 訴求 / 體驗場의 提供・needs의 把握 (안데나숍展開等)
/ 自國의 文化・藝術・歷史를 意識한 商品展開
- 納期의 嚴守・리드타임의 短縮化 必要
- 日本的인 商去來慣行의 認識必要 (아프터서비스 ; 發注單位 등)

③ 販賣政策의 必要

- 多樣한 流通채널을 活用하고 웨어・이벤트의 開催를 통한 이미지 PR
- 地方自治團體나 商店衛와의 交流・相互理解의 促進
- 올림픽을 好機로 한 流通促進 (訪日・訪韓旅行者의 增大)
- 파트너로서의 日本企業과의 關係強化

④ 間接的인 輸出促進

- 兩國의 購買미션의 促進・日本企業에 對한 購買事務所의 積極的 誘致
- 日本과 韓國사이의 비지네스上的 다양한 차이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生活者 (消費者)의 慾求를 把握해서 對應하는 것이 第一條件이다.
- 그리고 皮相的인 商品販賣政策에 그치지 말고 韓國의 文化와 歷史・傳統을 背景으로한 販賣促進活動・積極的인 마케팅活動이 必要하다.

所 見

三井物産(株)

會長 八尋 俊邦

1985年9月の G5 會議以後 2年餘 동안에 日本은 거의 100%에 가까운 엔貨의 切上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短期間에 그리고 大幅의인 엔貨強勢였기 때문에 demerit의 面이 先行되어 지금까지의 日本經濟成長을 이끌어온 輸出産業 全般에 커다란 打擊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6兆엔에 이르는 政府의 大膽한 內需擴大政策 그리고 여기에 엔貨強勢 메리트도 漸次 浸透되어서 지금은 日本의 經濟도 內需主導型의 經濟成長으로 定着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昨년에 內需部門이 前年보다 5% 늘었으며, 外需은 마이너스 1%, 全體的으로 3.7%의 成長을 示顯하였으며 今年에도 대개 비슷한 패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今年에도 4%程度の 成長이 可能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注目할 것은 昨年の 4/4 分期 輸出規模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日本의 輸入增加가 輸出增加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趨勢로 나간다면 貿易收支가 크게 改善되지 않을까 展望되고 있습니다. 한편 美國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쌍둥이 赤字의 削

한편 美國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쌍둥이 赤字의 削減策을 찾지 못한채 大統領選舉에 突入했다는 點에 있어서 그리고 昨年 10月の 株價大暴落의 影響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今年度 經濟成長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2%를 밑돌것이라는 豫測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또하나 注目해야 할것은 美國의 今年度 輸出이 前年보다 20% 늘

어나고 輸入은 6 %程度가 增加할 것이라는 點입니다. 이와같이 이러한 美國의 構造變化 이것이 輸出의 많은 部分을 美國에 依存하고 있는 韓國에 있어서 새로운 輸出面에서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하는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美國으로 부터의 通貨調整壓力과 함께 1989年 1月부터 美國이 特惠關稅惠澤을 停止한다고 傳해지고 있습니다. 3月末에 經團連은 로마에서 열린 2個의 財界人會議에 齋藤 會長님도 參席했읍니다만은 여기에서도 美國과 韓國과의 關係의 變化같은 것을 느꼈고 아시아 NICS에 대한 威脅論이 여러곳에서 話題가 되어 저희들도 상당히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는 이들 NICS 發展을 威脅으로 보지말고 世界經濟의 浮揚을 위한 原動力으로 活用을 해야하며, 成長力을 封鎖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日本은 아시는 바와같이 順調로운 經濟運用을 維持하고 있고, 貴國을 包含한 NICS로 부터의 輸入은 아까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製品을 中心으로 해서 急増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通產省을 비롯하여 輸入擴大를 하기 爲해서 特惠關稅를 앞으로도 維持擴大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NICS로 부터의 輸入을 擴大하고 이들나라의 産業育成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92年에 韓國도 OECD에 加入한다고 듣고 있읍니다만 훌륭한 經濟運用에 被害를 주지않고 smooth 하게 正當한 地位를 確保하도록 希望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經濟블럭化에 對해서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美國, 캐나다, 2國間의 協定이 注目을 받고있읍니다. 美國과 캐나다는 輸出依存도가 70 %를 갖고있는 特別한 關係에 있읍니다만은 美國

으로 부터 日本에 對해서도 2 國間 協定の 提案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자유로운 貿易이 國際經濟에 對해 다이 나미즘을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特定國間の 協定에 의한것보다는 GATT 精神을 尊重하여 아시아 NICS 를 包含한 多國間の 協定을 推進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前 吳鎮龍日海研究所 委員의 말씀에 感銘을 받았읍니다만은指摘하신대로 開放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中國과 韓國・日本 兩國은 서로 커다란 補完關係에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關係는 단지 投資技術 移轉을 包含한 넓은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日中間의 經濟關係는 中共의 近代化政策의 推進에 依해서 日本으로부터 엔貨借款등에 依한 經濟協力과 같은 틀을 넘어서 여러方面에 걸쳐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韓國과 中共의 問題는 政治問題도 있기 때문에 아주 텔리케이트한 問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韓國・中共間の 經濟活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協力하여 仲介를 해야할 面도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저희들이 해야할 役割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努力하므로서 日本과 韓國과의 經濟關係는 앞으로는 中共을 包含해서 3 國間の 經濟發展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以上으로 저의 所見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訪日輸出促進團 派遣에 따른 協調要請(提案)

三星物産(株)

社長 李 弼 坤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1965年の 國交正常化 以後 果積一路에 있는 韓國의 對日貿易赤字問題는 오늘날 兩國間의 最大懸案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의 最善의 解決方法은 擴大均衡이라는 兩側의 共通認識에 立脚하여 相互 協力키로 第16回 會議에서 合意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兩側에 「市場協議會」가 構成되었고 1984年 以來 日本側에서는 大型및선이 2回, 韓國側에서는 訪日輸出促進團이 85년에 4回, 86년에 6回, 그리고 87년에는 8회에 걸쳐 各各 派遣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들어만 가던 對日貿易赤字가 昨年度에는 貿易規模의 擴大에도 不拘하고 額數로 約 2億달러의 前年對比 減少를 보였으며, 對日輸出伸張率에 있어서는 實로 57% 前後라는 높은 增加率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기울인 兩側의 共同努力의 成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어느 時點에선가는 반드시 兩國間貿易의 擴大均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分명한 證據를 우리에게 提示하여 준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兩側關係者 여러분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事實에 基礎하여 今年 88년에는 「訪日輸出促進團」을 5회에 걸쳐서 派遣키로 兩國政府레벨에서 合意하였으며, 그중 第1次促進團은 이미 지난 3月 7일부터 12일까지 九州地方을 訪問한 바 있습니다.

以上과 같은 經緯를 勘案하시어 앞으로 派遣되는 「訪日輸出促進團」에
對해 시도 諸般便宜와 支援, 그리고 倍前의 協調를 하여주시도록 日本側代
表 여러분께 各별히 當付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87 韓國訪日輸出促進團 活動狀況

次數	時 期	規 模	業 種	地 域	商談件數
1 次	3.29 ~ 4. 4	19 個社 (25 名)	農水產, 消費財	長崎, 北九州, 岡山	324 件
2 次	5.26 ~ 6. 3	121 個社 (165 名)	全 業 種	東京, 大阪, 神戸, 名古屋, 下關, 廣島	1,577 件
3 次	6.21 ~ 27	12 個社 (16 名)	纖維, 農水產, 消費財	高知, 松山, 高松	100 件
4 次	7.19 ~ 25	20 個社 (29 名)	纖維, 農水產, 消費財	熊本, 鹿兒島, 福岡	304 件
5 次	9.15 ~ 22	17 個社 (27 名)	纖維, 農水產, 消費財	仙台, 青森, 札幌	229 件
6 次	9.28 ~ 10. 2	16 個社 (24 名)	電子・電氣, 纖維, 消費財	東京, 名古屋	115 件
7 次	10.19 ~ 24	22 個社 (31 名)	纖維, 農水產, 消費財	大阪, 福井, 金澤	257 件
8 次	11.15 ~ 21	35 個社 (46 名)	一般機械, 電子・ 電氣, 消費財	大阪, 東京, 富山	263 件
合 計		262 個社 (363 名)		延 26 個都市	3,169 件

1988 年 韓國訪日輸出促進團 派遣計劃（案）

次數	時 期	規 模	業 種	地 域	備 考
1 次	3 月 7 日～12 日	30 個社	農水產，消費財 (纖維)	熊本，大分，長崎	
2 次	5 月 23 日～31 日	130 ～ 150 個社	全業種 電子・電氣，纖維／ 一般機械／ 農水產／ 消費財／	東京，大阪（共通） 大阪／ 名古屋／ 下關／ 神戸，福岡	
3 次	7 月 11 日～16 日	30 個社	纖維，農水產 (消費財)	仙台，青森，札幌	
4 次	10 月 10 日～14 日	30 個社	農水產，消費財 (纖維)	廣島，岡山， 北九州	
5 次	11 月 21 日～26 日	30 個社	電子・電氣， 一般機械，消費財	東京，大阪 名古屋	

訪日輸出促進團派遣（答辯）

丸 紅 (株)

相談役 松尾 泰一郎

방금 紹介를 받은 松尾입니다. 現在 日韓市場協議會의 會長으로서 答辯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件에 대해서는 이미 日韓・韓日 兩市場協議會에서 今年에도 5 회에 걸친 對日輸出促進團의 수용을 合意했습니다. 이미 제 1 진은 3 月上旬 日本에 오셔서 長崎, 熊本, 大分에서 日本側 關係團體 및 企業과 懇談會 및 상담이 實施되어 相當한 成果가 있었다고 하는 報告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日韓市場協議會로서는 앞으로의 미션을 받아들이는 問題에 있어서도 JETRO 또는 各地의 商工會議所등의 關係機關의 協力을 얻어서 準備에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前보다도 훨씬 더 큰 成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第 2 合同分科會

(投資・技術協力分野)

〈共同議長〉

韓國側：李 孟 基 大韓海運(株) 社長

日本側：梅田 善司 川崎重工業(株) 相談役

韓日産業協力の 基本方向과 對策 (韓國側 主題發表)

産業研究院
日本室長 金都亨

目 次

I. 日本의 産業技術協力の 問題點

1) 日本의 立場 - 海外進出企業 失敗事例

(1) 歐美地域

(2) 아시아地域

(3) 失敗後의 새로운 對應

2) 韓國의 立場

II. 兩國政府의 産業技術協力政策의 基本方向

1) 日本政府 - 構造調整努力과 民間産業協力の

積極的 支援

2) 韓國政府 - 直接投資・技術輸入의 適正規制와

技術供給의 多邊化

III. 韓日産業技術協力の 效率的 推進對策

1) 韓日産業協力可能分野 調査 (KIET)

2) 效率的 協力推進對策

(1) 産業協力에 對한 兩國間 認識의 狹小

(2) 部品・素材産業의 重點育성과 R & D 投資擴充

- (3) 對日進出・第3國 共同進出을 통한 貿易・産業協力の
連繫強化
- (4) 異業種間 交流擴大를 통한 投資協力促進團의 內實化
- (5) 投資環境改善과 産業協力の 多邊化的 同時並行
- (6) 産業協力센터 設置運營・協力成果의 共同監視

韓國은 그동안 物價安定・技術開發努力이라는 對內的要因과 圓貨強勢라는 對外的環境의 好調에 의해 黑字基調가 定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圓貨切上과 市場開放壓力, 所得上昇・勞動需給의 逼迫으로 인한 賃金引上壓力이 加重되고 있으며, 對外貿易의 地域間不均衡—對美黑字・對日赤字가 固着化되고 있다.

우리는 圓貨強勢 期間동안 이러한 韓日兩國의 貿易不均衡은 通貨價值 變動과 같은 市場에 카니즘에 의해서는 쉽사리 縮小될 수 없다는 事實을 體驗한 바 있다. 兩國間 貿易不均衡을 兩國間的 産業・技術・貿易構造上的 特異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認識하고 韓國은 對日輸出商品構造高度化, 日本은 內需擴大・市場開放의 努力을 기울임으로써 87年 米穀 規模는 적더라도 2億\$의 不均衡 縮小를 達成할 수 있었다. 그러나 韓國의 GNP나 兩國 交易規模에서 차지하는 對日不均衡의 比重은 지나치게 높으며, 이러한 事實이 兩國의 關係改善을 가로막는 障礙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우리는 今後的 兩國間 産業技術協力は 韓國의 産業構造高度화와 日本의 産業構造調整을 통한 內需主導型産業構造改編을 통해 兩國間 貿易不均衡을 縮小하고 水平分業을 促進시키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今後的 兩國經濟交流는 貿易・投資・技術의 유기적 綜合化를 圖謀해

야 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民間商業베이스에 의해야 할 것이지만 그 結果가 兩國間交易擴大라고 하는 共通善에 合致하지 못할 경우에는 良質・高質의 公共部門의 適切な 介入이 要請된다고 보아진다.

韓國은 그동안 日本側의 對韓投資環境改善要求에 대해 ①投資自由業種을 新規로 26個 擴大하고 ②外國大企業이 國內中小企業과 合作投資로 設立하는 企業이 中小企業이고 投資持分이 50%未滿이면 事業調整없이 投資를 허용하며 ③技術導入制約條件(技術代價支給・契約期間規制・輸出比率賦課)을 폐지하여 商業베이스를 適用토록 하였으며, 最近에는 ④對日輸入先 多邊化 147個品目を 98個로 大幅 縮小함으로써 對日輸入規制를 段階적으로 풀어나가기로 決定했다(88.3.16).

年間 50億\$以上の 赤字不均衡속에서도 韓國이 이와같이 日本의 對韓投資環境을 大幅 改善하는 것은 直接投資・技術導入上 日本과의 既存關係를 중시하고 이를 基正 사실로 하여 兩國關係改善을 圖謀해 보려는 政策的 意志 때문이다. 나아가서 日本政府와 企業이 對韓技術移轉과 自國市場의 實質的 開放으로 應分の 役割을 해 줄 것을 期待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우선 日本의 歐美・아시아地域과의 産業協力上の 問題點을 알아보고, 둘째, 그간의 韓日兩國間の 産業技術協力の 成果에 대한 韓國側의 基本立場을 밝히고, 셋째, 兩國政府의 産業協力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하고, 넷째, 兩國間産業技術協力の 效率的인 推進對策을 살펴보기로 한다.

I. 日本의 産業技術協力の 問題點

(省 略)

II. 兩國政府의 産業技術協力政策의 基本方向

(省 略)

III. 韓日産業技術協力の 效率의 推進對策

65年 韓日國交正常化以後 推進된 韓日産業協力は 對韓直接投資와 技術移轉을 中心으로 展開되어 資本과 技術이 不足했던 우리나라로서는 經濟的으로 많은 惠澤을 입었다.

그러나 文化的 同質性과 地理的 近接性 等으로 因해 이루어진 日本의 對韓投資・技術移轉은 또 한편으로는 많은 論難의 對象이 되어왔다. 短期的으로는 日本의 對韓投資・技術移轉이 우리 經濟發展에 寄與하였지만 長期的으로는 우리 經濟가 日本의 影響圈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日本은 1962年以後 86년까지 우리 外國人 投資誘致에 66.5%(件數基準)를 차지하고 있으며 技術導入에 있어서도 同期間中 54.7%(件數基準)를 차지하여 技術의 對日從屬化를 加速化시키고 있다는 主張이다. 그러면 韓日産業協力を 擴大시키지 말고 오히려 縮小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最近 우리 分析에 의하면 韓日産業協力は 우리 輸出增大와는 相關關係가 있었으며 對日貿易逆調와도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現

實의으로는 韓日經濟關係를 끊을 수 없는것이 事實이라면 韓日產業協力を 推進하되 그 弊害要因을 極小化시키는 것이 韓日產業協力에 對한 우리의 基本視角이라고 할 수 있다.

엔貨強勢가 固着化되고 國際經濟體制內에서 아시아・太平洋地域의 重要性이 浮刻됨에 따라 日本은 同地域의 國家와 國際分業擴大 次元에서 產業協力を 推進할 必要性이 있으므로 이제까지와는 달리 우리도 積極的으로 有利한 立場에서 協力에 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韓日產業協력과 關聯되어 나타난 否定的 效果 또는 弊害要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누히 強調하여온 바와 같이 產業構造高度化遲延, 垂直分業, 對日貿易逆調深化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產業構造 合理化・高度化, 水平分業, 貿易均衡 達成이란 3大 命題下에 韓日產業協力에 臨하는 것이 重要的 姿勢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한 手段으로서의 韓日產業協력이 成功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吸收能力이 提高되어야 하며 日本의 積極的 協調도 必要하다. 同時에 韓日產業協力에 對한 安全瓣으로서 其他 先進國과의 產業協력도 增大시켜야 할 것이다.

1) 韓日產業協力可能分野調査(KIET)

最近 韓國側은 日本과의 產業協力可能分野를 繼續 調査 發掘함으로써 兩國企業이 現實的으로 協力possible 分野에서 出發하여 協力の 幅을 넓혀가고자 하고있다. 그동안 產業研究院(1986), 全國經濟人聯合會(1987), 中小企業振興公團(1987)이 각각 獨自的인 實態調査를 通하여 協力可能分野를 發表한바 있다. 產業研究院은 이들 結果와 日本의 對韓協力希望分野(JETRO), 商工部와의 共同으로 行한 產業技術需要調査結果 및 獨自的

인 인터뷰調查를 綜合하여 現在, 兩國 産業協力の 環境이 되고 있는 機械와 電子部門에 對해 ①協力形態, ②具體的業種, ③企業의 規模 等 特性을 綿密히 調査, 兩側의 Needs를 對應시켰다.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i) 機械部門

- 協力形態는 大部分이 單純輸入과 OEM이며, 合作, 技術移轉, 部品調達の 形態는 相對적으로 적었으며, 部品調達は 電子部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 兩國企業의 特性을 보면, 機械業種간의 協力이 大部分이지만, 日本側은 貿易業體도 相當數 있다. 이는 역시 OEM形態가 많음을 反映한 것이라고 본다.

- 企業規模는 兩側이 모두 大・中小企業이 混在하고 있어 企業規模에 關係없이 産業協力を 希望하고 있다.

(ii) 電子部門

- 電子部門의 協力可能品目中 中級技術을 要하는 品目の 比重이 매우 높다.

- 協力形態를 보면, 家庭用機器와 産業用機器는 OEM의 比重이 높고, 單純輸入과 第3國市場 進出에 對한 可能性도 多少 存在한다. 電子部品・材料의 경우 部品調達の 比重이 가장 높고, 一部는 OEM의 可能性도 存在하고 있다.

- 協力可能한 兩國의 企業特性을 보면 ①家庭用機器部門은 大企業間에, 韓國은 電子業體와 日本은 貿易業體와의 協力可能性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②産業用機器部門은 韓國의 中小企業과 日本의 大企業間에, 兩國 電子業體間에 或은 韓國의 電子業體와 日本의 貿易業體간의 協力可能

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③電子部品 材料部門은 韓國의 中小企業과 日本의 大企業間에 兩國 電子業體間的 協力可能性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上記 2 個部門間的 協力は 韓國側의 (i)中小企業事業 調整法の 彈力の運用 (ii)技術導入規制緩和, (iii)對日輸入先 多邊化 品目の 縮小 등 投資環境의 劃期的改善으로 今後 相當한 程度 進展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2) 效率的인 協力 推進對策

(1) 産業協力에 대한 兩國間的 認識의 狹 縮小

- 民間中心의 韓日産業協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與件마련도 重要하다. 그 첫째로서 政府는 兩國의 必要에 의해 行해지는 韓日産業協力は 兩國에 共同利益을 가져다 주는 相互主義 原則이 견지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一方通行的인 利益追求로서는 그것이 持續될 수 없다는 點을 兩國企業 및 政府에 認識시키는데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産業協力の 動機, 成果, 協力形態, 導入技術水準, 投資環境 등에 대한 評價를 客觀적으로 提示하여 認識上的 차이를 해소하며 長期的으로는 韓日産業協力の 內實化를 위한 協力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認識上的 狹을 縮小시키는 方案의 하나로 우리側은 韓日産業協力에 대해 消極的 立場에서 短期的 對應에 그치지 말고 積極的 立場에서 民間協力の 具體的인 障礙要因을 除去하면서 成功과 失敗事例를 持續적으로 發掘, 널리 弘報하는 方法을 들 수 있다.

- 同時에 日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韓日間 産業內 分業이 垂直적으로 行해졌다는 事實을 勘案, 이의 是正을 위한 方案으로 水平的產

業協력이 行해하도록 積極的 協調를 要請할 수 있다. 日本도 現在와 같은 貿易摩擦과 恩貨強勢下에서는 國際的 産業調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狀態이므로 資本・技術의 海外移轉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本은 어디까지나 相互主義的, 동만자적 次元에서 産業協력에 臨해야지 過去와 같이 주는 者の 立場에서 一方的으로 行하려 한다면 우리는 韓日産業協力 自體를 慎重히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 政府가 아무리 有利한 投資環境을 조성해 주고 支援政策을 講究하더라도 産業協力の 主體인 企業이 積極적으로 對應하지 않으면 韓日 産業協力の 效果는 期待에 못미치게 된다. 企業들이 單純히 導入의 便利性 때문에 不利한 條件下에서도 무리하게 日本으로부터 資本을 導入한다든가, 技術을 一括적으로 導入하려 한다면 우리 經濟는 日本의 그늘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可能性도 있다. 資本・技術의 導入이 容易하더라도 可能的 限 有利한 條件下에서 契約을 簽사시켜야만 契約後에도 輸出增大, 新製品開發 등을 통해 資本・技術을 잘 活用할 수 있다. 또한 한 두번의 商談으로 協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商談努力을 拋棄해서는 안되며 商談結果가 우리의 원치않는 單純輸入, OEM등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持續的인 去來를 통하여 보다 나은 協力形態 즉 技術移轉이나 合作을 誘致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企業은 産業協力の 主體임을 認識, 韓日産業協력을 통해 對日技術從屬을 脫皮하고 水平分業, 産業構造高度化, 貿易均衡達成이라는 3大目標 達成에 積極性を 보여야 할 것이다.

(2) 部品・素材産業의 重點育성과 R & D投資 擴充

- 韓日産業協力の 成果가 期待에 못미치게 나타난 理由로서 잘못된 産業政策을 들 수 있다. 즉 60年代의 輕工業, 70年代의 重化學工業 育成政策 등으로 特徵 지워지는 政府의 産業政策結果 우리 經濟는 經濟力 集中, 中小基盤 脆弱, 部品・素材 産業脆弱→加工貿易經濟, 輸入誘發의 産業構造라는 構造的 모순을 나타내었으며 이로 인해 韓日産業協力道 이러한 産業構造 組織上的 脆弱性を 補完하기 보다는 오히려 構造的 모순을 고착시키는 結果가 되었으며, 그런 意味에서 産業協力の 效果는 過小評價 되어왔다.

部品生産基盤의 脆弱으로 加工貿易型的 經濟構造가 孕胎되고 産業構造를 一方的으로 外國에 依存케 하여 韓日間 垂直的工程間 分業體制를 招來하였으며 部品・素材는 生産하는 中小企業基盤 不在는 韓日産業協力の 成果를 極大化시키지 못하는 重要な 要因으로 作用하였던 것이다.

過去 日本이 歐美先進國으로부터의 積極的인 資本・技術導入으로 오늘날 技術先進國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點은 그 當時 日本에는 部品・素材등을 生産하는 産業基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點을 상기할 때 韓日産業協力에 있어 産業基盤構築은 重要的 課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政府는 部品・素材등을 生産하는 中堅・中小企業育성이 水平的次元에서 韓日産業協력을 擴大할 수 있는 契機임을 認識하고 同産業育成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資本 및 技術導入과 關聯하여서도 技術導入에 대한 接近이 既存大企業集團 또는 獨寡占企業에 의하여 獨占 또는 制約되지 않도록 從來의 認・許可制에서 完全 申告制로 바꾼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된다.

- 國內技術開發投資가 너무 적으면 外國技術을 消化・吸收하는데 非能率的이므로 導入外國技術을 效率的으로 消化・吸收하기 위해서는 國內의 技術開發 投資를 擴大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도 持續的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先進資本・技術을 積極導入하는 한편 國內技術開發에도 注力해야 한다.

- 政府는 企業이 技術開發에 과감히 投資하도록 政策的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 基礎研究, 應用研究段階에서는 危險度가 높으므로 出捐金 形態의 直接的인 政府財政支援을 實施하고 企業化를 위한 試作品製作 등의 段階에서는 長期低利融資形態의 支援方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側面에서 본다면 1986 年부터 實施하고 있는 產業技術需要調査에 의한 技術開發支援制度는 매우 바람직한 政策이라고 評價되며 특히 中小企業들이 共同으로 技術을 開發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세심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開發된 新技術을 保護해 주거나, 잘 活用되도록 政府가 開發品을 優先 購買하는 등 稅制・金融上的 支援策은 이러한 方案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投資財源의 調達을 위해서는 政府豫算中 科學技術 豫算比率을 1986 年の 2.8 % 水準에서 앞으로는 5 %水準 以上으로 擴大하는 등 財源마련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 產業協力の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吸收能力提高가 先決課題이며 이러한 吸收能力提高를 위해서는 國內技術開發投資 擴大가 重要하다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또한 技術開發投資에 있어서도 政府가 擔當하여야 할 部門이 있듯이 企業이 擔當할 部門도 있다. 政府의 技術開發投資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며 開發技術의 利用者가 企業이라

는 點을 생각할 때 企業自體의 技術開發投資도 吸收能力提高에 있어서는 絶對적으로 必要한 것이다.

특히 尖端技術開發分野는 國策研究課題로 選定, 開發할 수도 있으나 企業次元에서는 國際的 尖端技術開發에 共同으로 參與하는 方案이 有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尖端技術은 不確實性 때문에 巨額의 費用을 들여가며 輸入할 수 없으며 開發된 尖端技術은 開發成功企業이 싼값으로 라이선스를 팔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尖端技術의 開發 또는 移轉은 共同研究開發을 倅하여 開發初期段階부터 參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對日進出・第3國共同進出을 통한 貿易과 産業協力の 連繫強化

－ 지금까지 對日貿易逆調가 縮小되지 않고 擴大일로로 치달았던 理由는 여러가지 있지만 韓日産業協力和 對日輸出이 連繫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部分도 多분히 있다. 따라서 政府和 企業은 韓日産業協力에 있어 資本・技術移轉이라는 單純한 協力에 끝내지 말고 이것이 對日輸出과 直結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國際經濟體制下에서는 純粹貿易만으로는 國際均衡과 國內均衡을 同時に 達成할 수 없으며 換率의 急激한 變動에 따라 海外와의 産業協력이 필연시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投資와 技術과 貿易活動의 相互依存 關係는 深化 擴大되어지리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國際收支 黑字時代에 突入했음에도 불구하고 對美黑字, 對日輸入이라는 地域間 不均衡이 擴大되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앞으로 日本으로부터의 資本・技術移轉을 통한 對日部品輸出, OEM, 直輸出 등으로 對日貿易赤字를 根本적으로

解消해야 할 立場에 있으며 그 결과 韓日間 貿易의 擴大均衡이 持續될 수 있음을 兩國은 認識해야 할 것이다.

－ 最近까지의 韓日産業協力은 施惠者와 受惠者의 立場에서 一方的으로 進行되어 왔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兩國間의 分業關係를 垂直的 關係에서 水平的 關係로 轉換, 擴大均衡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對日貿易逆調를 是正하는 次元에서 韓日産業協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아직도 日本企業들은 産業協力時 第3國 市場進出이나 對日輸出을 制限條件으로 提示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 不公正行爲로 規制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最近 엔貨強勢와 關聯 우리의 大企業들을 中心으로 對日投資進出을 摸索하고 있는 事例가 늘고 있는 바 이는 앞으로 兩國産業協力에 새로운 章을 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政府는 앞으로 國內投資誘致에 對해서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오히려 우리企業들이 海外로 進出하려고 할 때 規制보다는 支援이라는 次元에서 여러가지 方案을 講究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海外投資는 輸出과 代替關係보다는 補完關係에 있다는 事實을 勘案, 海外投資는 輸出增大에 寄與하며 貿易摩擦解消라는 또다른 特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對日進出時 大企業들이 參與할 수 있는 分野로는 纖維 등 競争力 있는 製造業과 貿易, 流通業을 들 수 있으며, 日本內 投資는 日本國內斜陽産業의 技術力 活用으로 日本의 地方産業 活性化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日本의 對外流通組織과 우리의 生産能力을 結合시켜 第3國市場에 進出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分野로서는 完成自動車, P.A.앰프, 메가폰등 自動車, 電子關聯 品目を 들 수 있다.

(4) 異業種間 交流擴大를 통한 投資協力促進團의 內實化

- 對日輸出促進團, 對韓部品協力團, 經濟調查團, 投資 및 技術導入促進團 등 매년 수차례에 걸쳐 推進되고 있는 兩國經濟交流促進團 派遣을 보다 擴大하여 業種別, 地域別, 企業規模別로 交流를 專門化하는 同時에 最近 日本內의 異業種間 技術交流, 新規事業展開의 傾向에 對應하여 異業種間의 複合交流를 통해 協力の 效率化를 圖謀해야 할 것이다.

- 또한 投資協力促進團交流의 內實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協力情報의 分析, 整理 및 管理가 뒤따라야 한다. 日本의 商慣習上 細部事項에 대한 檢討없이 한두번의 商談으로 商談이 成功한 例는 극히 드물다는 事實을 考慮, 政府 또는 關聯協會는 商談結果의 檢討分析, 事後管理 등에 만전을 기하여 追後 再協商이 있을 시 企業들이 有機的 協調로 이를 充分히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協商 決裂事例는 充分히 檢討, 다음 協商時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히 對應해야 할 것이다.

(5) 投資環境改善과 產業協力の 多邊化의 同時並行

첫째 投資環境要因은 勞使關係面에서 安定을 찾는다면 競爭國에 비해 크게 不利한 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中小企業固有業種制度和 對日輸入先 多邊化制度는 對日逆調 改善傾向에 따라 漸進的으로 緩和 撤廢되어야 하며 投資認可節次도 더욱 簡素化되어야 한다. 外國人企業에 대한 租稅減免等 特惠는 縮小하여 內外企業間의 差別待遇는 縮小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機械類, 部品등 우리產業에 寄與도가 큰 業種을 優先的으로 選別立地토록 하는 것은 考慮해 볼직하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當該地域 經濟에의 波及效果를 可能한 한 考慮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中小企業이 産業協力を 할 경우 協商能力이 不足하여 우리의 立場이 무시될 경우 特히 技術導入에 있어서 이러한 問題點이 두드러지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標準契約制를 導入하여 모든 契約에 適用시킴으로써 이를 解決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 政府는 韓日産業技術 實務者會議, 韓日科學技術 協力會議 등 産業協力關聯會議에서 우리나라의 投資誘致希望業種, 技術移轉希望分野, 技術人力研修 등에 대한 日本政府의 積極的인 協力を 要請하며, 그 結果를 持續的으로 Follow up 하여 協力の 效率性を 기해야 할 것이다.

네째 政府는 産業協력으로 技術力이 向上된 國內企業을 표적으로 한 日本의 덤핑行爲에 대해서는 公正去來法으로 적절히 規制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逆說的이지만 韓日間 産業協力の 效率化를 圖謀하기 위해서는 다른 先進國과의 産業協力度 더욱 擴大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資本과 技術導入이 特定國에 지나치게 集中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우리와 같이 對內的 吸收能力裝置가 不足한 나라로서는 特定國에의 集中은 從屬關係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企業들 스스로 증속을 脫皮하고 보다 큰 發展을 위해서는 西獨, 프랑스, 英國 등 其他 유럽先進國과의 産業協력을 擴大시키는 努力이 必要하며 이는 보다 有利한 條件下에서 日本企業과 産業協력을 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할 것이기 때문이다.

(6) 産業協力센터 設置連營・協力成果의 共同監視

韓日間産業技術協력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民間베이스로 産業

協力센터를 設置하여 ①協力可能分野의 持續的인 發掘, ②協力を 위한 資金支援, 情報提供, 信用保證斡旋, ③協力成果에 關聯된 主要指標(예컨대, 韓國의 主要輸出品의 日本市場シェア, 對韓進出企業의 現地調達比率, 細分類에 의한 業種別 水平分業指數, 其他 兩國産業調整關聯 Macro 指標等)의 動向을 Follow-up, ④各種 技術移轉세미나開催등의 業務를 遂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投資・技術協力の 姿勢－事例로서 三菱自動車，現代自動車の 現況에 대하여

(日本側 主題發表)

三菱自動車工業(株)

相談役 久保 富夫

1. 投資・技術協力の 姿勢

1.1 技術協力の 자세

技術協力の 바람직한 자세는 世界가 거의 같습니다.

製品을 組立하는데서 시작되어 材料, 部品, 특히 専門部品(소위 Vendor Parts)의 国産化로 進展되며 최종적으로는 開発力・研究力을 確立하는 것으로 대부분 終了됩니다.

따라서(綜合工業인 경우는), 協力工場(소위 中小企業), 材料工業, 専門部品工業等이 確立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周知하고 계시므로 이 以上은 言及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1.2 資本投資에 관하여

資本投資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資金의 不足을 補完하기 위하여 投資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三菱自動車와 現代自動車の 경우에는 그 背景이 조금 나뉩니다. 즉 現代自動車는 工場을 建設하는데 三菱自動車の 資金을 반드시 必要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欧美的 契約至上主義에 대해 오히려 儒教精神的인 相互信賴, 相互利益을 보나 確實하게 하여 永続적인 關係를 갖는데에 重点을 두었습니다. 三菱(三菱自動車, 三菱商事を 포함)는 投資하므로써 상대방을 支配하려는 意圖는 전혀 없었습니다. 但, 資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投資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提携關係의 背景은 어디까지나 相互 信賴가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2. 三菱自動車와 現代自動車關係의 現況에 관하여

2.1 全般

三菱自動車, 現代自動車の 提携는 매우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1973년에 乗用車엔진 生産에 관한 技術提携부터 시작해서, 1982년에는 資本提携로 進전된 이후 별로 問題点없이 兩側이 모두 충분히 그 利点を 享受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乗用車・商業用車の 兩面에 걸쳐서 技術提携가 15건 投資는 15%의 出資로 되어 있습니다.

2.2 東南 아시아關係

余談입니다만, 三菱는 韓國에 국한하지 않고, 東南아시아 각국에 대하여도 똑같은 精神으로 技術援助나 投資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方針은 韓國에 대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韓國이 두드러지게 躍進한 것은 전적으로 現代自動車の 熱意와 努力에 의한 結果이며 이에 對해서 탄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日本側도 韓國의 事業經營에 대하여는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 例는 “速度” 일 것입니다. 物件을 신속히 만드는 利점은 당연한 것인데 이점에 대하여는 現代Group 鄭周永 名譽會長의 著書(「포니가 달린다」) 가운데 詳述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2.3 現代自動車が 今後 解決해야 할 課題

금후, 現代自動車로서 解決해 나가야 할 것은 needs에 맞는 車種을 증가시킬 것, 材料, 部品の 國産化率을 기일층 向上(현재, 国内用 90%이상, 對美輸出用 75~80%전후, 精確한 數字는 모르겠으나)시킬 것 등이며, 이에 대하여 材料에서는 薄板의 國産化, 部品에서는 Automatic Transmission, 氧化器等, 高價品の 國産化가 점차 進展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國産化率은 国内・輸出用 모두 비약적으로 높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해야 할 일은 開發力の 強化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課題들에 대해 現代自動車에 協力해 갈 생각입니다.

2.4 三菱自動車와 現代自動車間の 輸出入差

勿論, 지금까지는 日本側の 輸出超過입니다. 하지만 그 理由는 말할 필요도 없이 現代自動車の 輸出增加 速度를 國產化가 뒤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上記한 바와 같은 施策이 實現되면 그 差는 確實히 減少될 것입니다.

2.5 販売協力에 관하여

현재, 三菱自動車는 現代의 자동차를 미국에서 年間 3 만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現代自動車는 훨씬 더 販売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승용차 판매만을 생각한다면 三菱自動車보다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三菱가 日本車の 미국에서의 自律規制 制約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 若干의 提言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日韓間の 投資 및 技術協力에 대하여 三菱自動車와 現代自動車を 例로 들고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의 經驗에 의해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日本이 저질렀을지 모르는 잘못을 韓國이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어느 製品을 特定地域, 예를 들면 美国, 유럽등에 集中豪雨의으로 輸出하므로써 經濟摩擦을 야기하지 않도록 配慮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면, 당연히 相對國 業界에 被害를 입히거나 換率의 急變을 초래하게 되서 자신의 利益을 잃게 되는 結果가 됩니다. 즉 國際秩序라는 것을 一步 앞의 視点에서 視察하면서 事業을 推進하기 바랍니다.

4. 将来 展望

技術은 끊임없이 進歩합니다.

開發力の 強化는 단지 韓國만의 問題가 아니고 우리들 日本의 問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水平分業은 低賃金이나 換率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同等한 開發力を 갖고, 이에 대해서도 分業, 相互補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面에서도 現代自動車는 순조롭게 対処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開發力を 포함하여 진정한 水平分業이 實現되기를 待望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高級技術移轉 및 協力開發 (코멘트 I)

巨洋商事 (株)

社長 李尙秀

經濟의 活力을 維持하고 또한 經濟社會의 多樣한 要求에 副應하기 爲해 오늘날만큼 技術革新에 對한 關心이 높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最近들어 美國이나 歐羅巴 등 先進諸國에서는 技術保護主義가 태동되어 그 立場을 더욱 強化하기에 이르렀고 이에따라 後發開發途上國에서는 自體開發能力을 키우기 爲해 精力을 쏟아야만 하는 立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自體技術開發에는 그 限界가 있기 때문에 技術先進國과의 協力形態가 필수로 따른다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88年 韓國에 있어서의 技術導入 實態를 살펴보면 技術導入 總件數 517件中 264件이 日本으로 부터의 技術導入으로 절반을 上廻하고 있고 技術導入 代價支拂額 面에서 보면 4.1億\$중 1.3億\$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韓日間의 關係가 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密接한 關係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또한 서로의 利益을 爲해 아직도 많은 協力の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는 서로의 큰 關心속에 20회에 이르게 되었고 또 民間次元의 高級技術移轉 및 協力開發이라는 議題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韓國과 日本은 環太平洋時代를 열어가는데 主役으로서 歐美의 先進國들에 對應하여 아시아를 이끌어갈 同僚者的 役割을 더욱 鞏固히 다져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어 新素材分野의 技術協力에 關係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新素材分野는 原子力, 에너지, 情報・電子, 生命工學, 宇宙・航空 등의 尖端事業을 받쳐주는 基盤으로서 그 發展을 열어가고 있고 日本이나 韓國에 있어서 兩國 모두 많은 R & D 投資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雙龍에서도 이러한 新素材分野中 Fine Ceramics 分野에 關心을 갖고 '80年代 初半부터 研究를 遂行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Ceramic Diesel Engine 에 있어서는 그간의 研究開發 活動의 結果로 많은 技術을 蓄積하게 되었고 그러한 技術의 한 應用으로써 Ceramic 切削工具를 商品化한 段階에 있습니다.

또한 機能性新素材의 開發에도 關心을 가지고 Ceramic IC Package, 酸素 Sensor 등의 品目에 對해서도 政府出捐研究所 또는 學界와 共同研究를 遂行하고 있는 段階입니다.

이러한 新素材分野에서도 民間次元의 協力形態로 日本의 企業들이 韓國으로의 高級技術移轉 및 企業研究所間 協力開發, 情報交流을 爲한 Seminar 開催 등의 機會를 더욱 많이 갖도록 努力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雙龍이 큰 關心을 가지고 있는 Fine Ceramics 分野中

- Ceramic IC Package, Ceramic 기관 製造技術

- 自動車用 酸素 Sensor 製造技術
- 컴퓨터 磁氣헤드용 Ferrite 素材 製造 및 加工技術
- 기타 Fine Ceramics 關聯 品目의 製造技術 등

高級 生産技術의 移轉 또는 協力開發 等 어느 形態든 깊은 論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엔貨強勢, 원貨強勢현상으로 國際社會에 있어서 共通의 隘路事項을 안고 있는 지금 韓日 兩國은 더욱 鞏固한 協力關係로 서로의 利益은 물론 世界 經濟의 主役으로서의 役割을 해내자는 말을 끝으로 本人의 말을 맺고자 합니다.

코 멘 트 II

宇 部 興 産 (株)

社 長 清 水 保 夫

本人은 投資・技術協力の 姿勢에 對해서 率直한 意見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最近에 本人은 美國 및 歐洲의 몇개 會社를 訪問해서 새로운 提携의 可能性을 打診한 바 있습니다. 主로 化學關係의 會社를 訪問했읍니다만, 特別한 業種을 除外하고는 大體적으로 好況이었고 良好한 業績을 보이고 있는것 같았읍니다. 需要構造와 原油價格, 換率의 影響이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는點이 主된 原因이라는 것은 分明했지만, 特히 부럽게 느낀點은 企業數가 적고 適當한 規模를 各各 가지고 있어 秩序있는 競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點입니다. 當然하면서도 公正去來에 어긋나는 調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自律機能이 잘 維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本人은 이번의 出張에서 그들이 새로운 事業을 展開함에 있어서 우선 適切한 利潤幅을 設定하고 이것을 確保하는 것을 絶對的인 前提로 삼고 모든 事前調査를 하고 있다는 實例에 接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技術的인 檢討는 勿論 長期間에 걸친 需要豫測을 過去의 實績뿐만 아니라 關係되는 데이터를 基礎로 徹底히 調査하고 또한 利益을 目標대로 하기 위해서 自己資本과 借入金의 比率을 設定하는等 慎重하고 스피디하게 計劃을 完成시켜가는 過程을 배울수 있어 매우 興味が 있었습니다.

때로는 最高經營者의 直感으로 企業化가 計劃되고 先發同業者속에 突入해서 심한 競爭下에서 數年間の 損失도 覺悟한다고 하는 面이 우리 日本과 比較하면 크게 다릅니다. 물론 日本의 經營方式은 潛在하는 需要를 刺戟擴大하는데는 크게 寄與하지만, 基幹素材分野, 例를 들면 시멘트, 化學肥料, 化學纖維등과 같이 需要의 伸張이 거의 限界點에 達한 産業과 石油化學分野의 過當競爭企業등에 있어서는 從來와 같은 「利益없는 多忙」의 어리석음은 이제는 繼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點에서 韓國의 狀態는 과연 어떤것일까? 日本과 같다고 하기 보다는 더욱 빠른 速度로 重化學工業을 發展시키고, 輸出振興에 의해서 오늘날의 經濟發展을 이루었다는 兩國의 共通性에서 아마도 本人의 생각을 理解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1986年 韓國의 貿易은 元貨弱勢, 原油價格의 下落, 金利低下에 따른 소위 “3低”의 影響을 받아서 輸出의 急速한 擴大에 의해 貿易收支는 黑字로 轉換되었는데, 日本과의 貿易面에서는 輸出의 伸張에 比해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은 大幅 增加되었고, 入超額도 85年의 30億달러에서 86年度에는 52億달러로 急速히 擴大되었습니다. 1987年에도 이러한 傾向은 繼續되고 있고 오늘과 같은 會議에서 자주 韓國側으로부터 이點에 關해서 言及되는 일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韓國이 組立製品을 中心으로 急速한 産業發展을 이루는 過程에서 現在 資本財와 中間財의 大部分은 日本에 依存하고 있는 貿易構造에 따른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兩國間の 貿易不均衡을 조금이라도 緩

和하기 위해서 日本으로 輸出되는 基本素材와 雜貨등이 때로는 日本內市場의 安定性を 混亂시키는 일이 있다는 點입니다.

韓國만큼이나 日本自體도 이들 製品은 國內에서의 過當競爭으로 자칫 市場價格의 維持가 困難할 程度로 귀찮은 問題點인 것입니다.

지금 本人은 이들의 具體的인 例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으나, 向後 世界經濟에 對해서 兩國이 해야할 役割을 생각할 때, 同一經濟圈에서 資源을 더욱 海外에 依存하고 이것을 加工해서 市場을 求해야만 하는 共通性을 가진 兩國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것은 秩序있는 去來를 서로 지키기 위한 知慧를 짜내야 한다는 點일 것입니다. 그리고 日本으로부터 韓國으로 輸出되고 있는 商品에 對해서도 똑같은 問題가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의 海外出張에서 이點에 對해서 EC 各國이 加一層의 努力을 하고 있다는 實情을 確認할 수 있었읍니다.

다음으로 本題의 投資・技術協力에 對해서는 當社가 專門으로 하는 化學과 窯業分野에서 여러 技術協力을 해왔고 또한 機械・플랜트分野에서 現地生産과 調達등의 協力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加一層의 努力을 해서 日韓雙方의 經濟協力發展에 寄與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本人의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韓國中小企業技能工 日本研修에 關해 (코멘트Ⅲ)

中 小 企 業 振 興 公 團

日本事務所長 朴洙煥

尊敬하는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委員長님, 兩國委員 및 經濟界 代表 여러분!

本人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韓國中小企業技能工의 日本 研修와 關聯하여 몇말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當初 저희 中小企業振興公團 柳鍾烈 理事長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로 하였으나 지난 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떠나시게 됨에 따라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분들께 저희 柳鍾烈 理事長님의 안부와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1984年 第1次 研修生 31名 派遣으로 시작된 韓國機能人力の 日本內 研修事業은 日本政府를 비롯한 研修關係機關 그리고 各 民間受容企業의 積極的인 協調와 細心한 配慮에 힘입어 지금까지 總 439名의 韓國中小企業技能工이 研修를 마쳤으며, 이제는 兩國 産業技術協力の 象徵的인 事業으로 定着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986年 12月에 開催된 第14次 韓日定期關係會談에서 韓

國中小企業 技能工의 日本研修規模를 每年 200名線까지 擴大實施키로 合意한 바에 따라 今年度の 研修도 5月初에 50名, 8月末에 150名の 派遣을 目標로 現在 具體的인 對象者 選拔 및 受容企業選定 業務가 進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研修推進過程에서 研修受容企業의 選定問題, 研修生滯在環境問題, 意思疏通問題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日本政府를 비롯하여 研修關係機關과 研修受容企業에 대하여 韓國政府와 저희 中小企業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此際에 技能工研修施行을 擔當한 저희 中小企業振興公團 立場에서 同研修와 關聯한 몇가지 提議를 드림으로 向後 本研修가 더욱 成功的이고 效率的으로 施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研修를 마치고 歸國한 研修生들의 研修所感과 成果 그리고 問題點과 改善方向등을 集約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各自가 從事하고 있는 分野에 該當되는 技術이나 技能을 習得함으로써 이러한 知識과 經驗을 토대로 自己啓發의 좋은 機會가 되었음은 물론 자신의 業務能力增進으로 品質向上과 生産性向上에 依한 企業의 成長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研修의 附隨的인 效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研修生들이 研修期間동안 周圍의 日本人들과 親密한 人間關係를 維持하고 相互緊密한 友誼를 形成함으로써 兩國間 民間次元에서의 友好協力과 理解增進에도 큰 役割을 하였다는 評價입니다.

그런 반면, 現地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인 研修生の 語學問題 卽, 意思疏通問題와 關聯해 볼때, 研修生은 平均적으로 高卒水準의 學歷을 가진 技能工으로 日本語 學習經驗이 적은 까닭에 出國前 3 週間 集中的인 語學訓練을 實施하였으나 現地에서는 意思疏通의 어려움이 常存해 왔읍니다.

이에 따라 今年度 研修生부터는 韓國內語學研修期間을 從前的 3 週에서 4 週로 늘려 日本語 教育을 強化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日本에서도 오리엔테이션 期間中에 여러가지 效果的이고 現實感있는 語學實習機會를 提供하는 것에 대하여 積極적으로 檢討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現在 많은 韓國中小企業이 日本研修參加를 希望하고 있지만 日本內 受容可能한 研修企業을 自體的으로 發見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이 事實입니다. 이를 위해 研修受容이 可能한 日本業體를 把握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研修分野, 研修時期, 可能한 向後分野 등 諸般情報를 事전에 兩國業體가 相互 有益하게 活用하므로써 研修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日本側이 研修受容이 어려운 경우를 勘案 研修申請人員을 選拔人員의 2 倍數 以上으로 要請해 온데 대하여 그 受容企業 選定上의 어려움은 充分히 理解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申請人員에 대한 選拔人員의 比率은 50 %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바, 본 研修가 民間次元을 넘어 政府間 協力事業이라는 點에서 비록 現在까지 當該業體間 交流가 전혀 없었던 關係라 하더라도 研修受容을 통해 새로운 關係로 進展될 수 있는 점을 勘案하여 研修受容에 더욱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本 研修가 研修本來의 目的達成은 물론 兩國企業間에 技術提携, 資本合作, 貿易去來 등을 비롯한 産業技術協力 關係發展에도 크게 寄與할 것을 바라며, 本 研修事業이 올해에도 훌륭한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中小企業을 둘러싼 環境과 商工會議所の 支援活動 (코멘트 VI)

日本 商工會議所

常務理事 守屋 一彦

日本の 中小企業은 戰後 많은 試練을 克服하고 成長하여 現在 經濟活動의 全分野에서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고 있고, 日本의 經濟社會를 지탱하는 安定基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中小企業을 둘러싼 環境의 變化는 일찌기 類例를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심하여 中小企業의 經營을 크게 壓迫하고 있으며 個別企業의 努力만으로는 도저히 解決할 수 없는 問題를 多數 包含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國際經濟社會와의 調和問題입니다.

日本은 國際經濟社會의 一員으로서의 責任을 다하기 위해서 換率調整에 따르는 大幅的인 엔貨強勢下에서 國內市場을 한층더 開放하고 製品輸入을 進展시키는 한편, 國際的인 水平分業도 積極的으로 進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日本의 產業構造는 크게 變革中에 있으며 中小企業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어서 嚴格한 對應을 强要당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技術革新・情報化的 進展입니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新素材,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革新的인 技術이 차

출 産出되는 한편, 이들 尖端技術에 先導된 至極히 應用範圍가 넓은 多樣的 新技術이 出現되고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를 始初로 하는 情報機器와 通信技術의 눈부신 進歩發展은 지금까지의 사람, 물건, 돈 以上으로 情報를 큰 經營資源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情報네트워크의 進展은 經濟社會의 構造를 크게 變化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經濟社會 構造의 再定立입니다.

國際化, 技術革新, 情報化進展등의 轉機를 가져온 커다란 흐름에 더해서 高齡化社會로의 移行, 經濟의 소프트化・서비스化, 國民의 意識變化와 needs의 多樣化 등의 變化는 지금까지의 經營社會들을 가지고서는 對應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柔軟한 創意・考案이 豊富한 民間活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는 것입니다.

以上과 같이 多樣하고 어려운 狀況下에서 中小企業은 서로 손을 잡고 各自 保有하고 있는 經營資源을 效率적이고 效果的으로 活用함과 同時에 中小企業이 갖는 機動性, 柔軟性の 有利함을 살려서 創造性和 先見性を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機會를 잡는 可能性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點에서 앞으로의 中小企業政策은 單純히 中小企業의 保護에만 注力하는 것이 아닌 中小企業이 갖는 潛在能力을 이끌어내어 伸張시키는 方向이 되어야 하며, 中小企業에게 이러한 可能性을 實現시키기 위한 機會와 時間을 주기위해 長期間에 걸친 内需振興策을 取해야 할 것입니다.

中小企業을 多數 會員으로 갖고 있는 商工會議所로서는 지금까지 政府와 關係機關과의 協力下에 企業經營에 必要한 人材問題, 轉廢業・相談等を 包含한 商工指導와 地域의 活性化 등에 積極的으로 關係해 오고 있습니다만, 向後 特別히 力點을 두고 行할 重點事項으로서 다음 두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情報提供의 充實을 기하는 것입니다.

情報隔差가 企業間隔差를 擴大하는 큰 要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情報蒐集力과 分析力이 약한 中小企業에 對한 情報提供活動의 充實과 支援은 緊要한 課題입니다. 商工會議所가 保有하고 있는 豊富한 情報를 中小企業이 有效하게 活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日本商工會議所에서는 日本國內의 商工會議所를 連結하는 情報네트워크와 데이타베이스 構築에 着手하였습니다.

두번째는 經營資源融合化的 促進입니다.

大企業에 比해서 人材, 技術, 資本등의 經營資源이 劣等한 中小企業끼리 業種業態의 틀을 넘어 交流하여 新技術과 新製品의 開發, 새로운 서비스와 販賣方法의 開拓등을 追求하는 融合化的 움직임(소위 異業種交流事業)이 全國적으로 擴大되고 있습니다.

日本商工會議所가 實施한 1987年 3月の 調査에서는 全國의 商工會議所가 支援하는 異業種交流의 GROUP數는 162個로 그 後에도 着實히 增加하고 있습니다.

融合化는 1988年度の 國家重點施策이기도 하며 GROUP 結成을積極으로 앞
으로 加一層 促進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融合化의 促進은 모든 業種과 業態의 企業을 會員으로 갖고 있는 商
工會議所에 가장 適合한 事業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中小企業의 意識改革問題입니다. 오
늘날과 같은 經濟社會의 一大轉換期에 있어서는 中小企業者 自身이 現況
에 對한 올바른 認識을 提高시켜 「對應에 對한 각오」를 確固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합니다. 商工會議所가 展開하는 諸活動, 政府와
關係機關이 實施하는 諸施策은 中小企業經營者의 姿勢와 合致된 때 비로
소 眞正한 成果를 期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以上 日本의 中小企業에 關係되는 問題에 對해서 若干의 感想을 말씀
드렸읍니다만, 韓國에 있어서도 가까운 將來에 똑같은 問題가 發生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參考가 되었으면 다행이겠읍니다.

所

見

日本貿易振興會

理事長 赤澤 璋一

JETRO의 赤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86년부터 昨년에 걸쳐 世界的으로 海外直接投資가 크게 增加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다면 86年末에 世界經濟海外直接投資殘高는 7,755億달러로 前年末比 20.6%의 增加입니다. 그래서 86년부터 87년에 걸쳐서 世界的인 投資붐의 時代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가지 特色이 있습니다만, 그 첫번째는 아시아NICS가 海外直接投資對象國으로 登場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泰國에 대한 投資는 86년에 前年對比 67%增加한 諸外國으로부터의 投資가 있었습니다. 87年 上半期에는 前年對比 590%라는 매우 큰 增加率을 보였습니다. 또한 韓國에 있어서는 86년에 海外各國으로부터의 直接投資가 ~34%로 약간 줄었습니다만, 昨年 7月 上半期에는 250%라는 實로 엄청난 增加率을 보였습니다.

한편 日本의 海外投資를 보면 86년에 前年對比 82.7%의 增加를 보여 金額으로 200億달러를 약간 넘는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對美投資는 90% 增加하여 거의 倍增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對해서도 62.2%로 매우 높은 伸張率을 보였습니다.

日本の 海外直資投資의 特色의 하나는 諸外國과 比較해 볼때 開發途上國 즉 아시아에 대한 投資가 많은 것이 特徵입니다. 예를들어 美國은 先進國에 對한 投資가 75%, 發展途上國에 대한 投資가 25%입니다만, 日本은 對先進國 投資가 53.5%, 發展途上國에 대한 投資가 46.5%로 대체적으로 반반 정도입니다.

또한 日本의 작년까지의 投資內容을 分析해 보면, 中小企業製造業이 海外에 많은 投資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日本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77년부터 85년까지는 아시아, 北美 또는 各地에 投資했습니다만 이중 台灣이 제일 많은 약 20%의 세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부터 86년에 있어서는 對韓國投資가 TOP이 되어 19.7%, 台灣은 약간 줄어든 16%의 세어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投資라는 것은 세가지로 分類해 볼수 있는데, 그 한가지는 資源開發型投資입니다. 日本과 같이 資源을 保有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海外 여러나라와 共同으로 또는 資源을 安定的으로 確保하기 위해서 資源開發型投資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두번째로는 投資相對國에 대한 市場內에서의 製品販賣를 위한 類型인데 다시 말하면 市場開拓型 投資라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86년부터 작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輸出指向型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海外에 投資를 하여 生産되는 製品을 日本을 包含한 다른 나라에 輸出하는 것입니다. 日本은 特히 엔貨強勢에 의해서 이러한 投資가 큰 세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投資의 動向이라는 것은 短期的으로는 效果가 없으나 長期的으로 보면 貿易構造의 커다란 變化를 招來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對韓國投資의 경우에도 韓國國內市場의 需要를 위해서 또는 日本・美國 같은 第3國에 輸出하기 위해서 投資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面에서 貿易의 日韓問題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投資의 結果가 中・長期的으로 볼 때 日韓貿易關係에 커다란 影響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技術移轉問題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觀點에서 異論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特히 尖端技術投資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고 또한 合同會議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論議가 되었습니다. 本人은 高度技術의 移轉에서는 投資를 同伴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理由를 두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그 첫번째는 日本의 高度技術이라는 것이 外部에 팔기위해서 만든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自社製品을 高度化 하기 위해서 상당한 長期間에 걸쳐서 開發된 成果이기 때문에 그 成果가 相對에 提供・擴散되어 나가는 것에 對해 憂慮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投資를 同伴함에 따라서 擴散을 防止하고자 하는 생각은 當然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憂慮되는 點은 移轉한 技術이 제대로 소화가 될 것인가 하는 問題입니다. 즉 技術受容國의 尖端技術에 대한 消化能力 問題입니다.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現在 韓國은 이미 상당히 높은 水準의 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한편, 技術의 保護・特許에 관한 保護制度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本人은 日本과 韓國의 技術交流展望은 매우 밝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久保相談役께서 말씀하신대로 技術協力の 姿勢 또는 製品의 組立에서부터 시작하여 部品の 國產化推進, 最終적으로는 開發力・研究力の 確立으로 終了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實로 틀림없는 말씀이라 생각됨

니다. 또한 韓國側 金都亨博士의 말씀에도 있었읍니다만, 지금부터 韓國은 合理性을 높이기 위해서 吸收能力을 높이는 것이 先決問題라고 생각됩니다. 이 吸收能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國內技術開發投資의 擴大가 必要하다는 매우 重要な 點이 指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技術開發能力의 提高 또는 技術開發投資의 方向은 向後的 韓國 産業에 뿐만 아니라 資本・投資・技術交流에 있어서도 매우 重要的인 포인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日本에 있어서도 이미 1960年頃부터 70年代에 걸쳐서 여러가지 形態의 開發能力을 높이고 開發投資를 쉽게 하기 위한 政策이 취해져 왔읍니다. 例를 들면 技術開發을 위한 共同組合의 設立 또는 産・學・官의 協力を smooth 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法律上 制約의 改正等 諸政策이 취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 發表가 있었던 日韓自動翻譯機等에 관해서도 韓國의 朴泰俊會長과 數年前에 만나서 同 翻譯機에 對한 開發可能性에 對해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읍니다만, 日本에는 아직 發表되지 않은 방대한 技術情報이 있습니다. 例를 들면 科學技術廳이 所管하고 있는 科學技術情報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發表되지 않은 방대한 科學技術資料가 保管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開放되어 있습니다만 資料의 大部分은 日本語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새로운 技術開發을 하려고 하는 韓國의 젊은 企業人을 위해서 이 自動翻譯機 開發이 推進되었던 것입니다. 즉 日韓의 技術協力を 더욱 增進시키고 나아가서 韓國內의 技術開發努力을 보다 深化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開發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시스템을 韓國側에서 産・學・官等 여러分野에서 지혜를 모아 꼭 有效하게 使用하여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든 技術의 進歩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日就月將하기 때문에 兩國의 經濟를 左右하게 됩니다. 따라서 日韓兩國 모두 여러가지 共同開發과 共同研究라는 方向에서 하이테크놀로지 新素材의 開發을 위해 보다 前進하는 共同協力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要 約)

過去 2 年半에 日本産業經濟는 큰 變貌를 이루었다.

(1) 製品輸入과 海外投資의 急増

企業戰略에 있어서

- ① 新製品의 開發과 加一層의 코스트다운
- ② 輸出에서 內需로의 시프트
- ③ 輸入製品 라인의 導入
- ④ 海外直接投資의 實施

가 피해졌다.

(2) 對韓投資의 急増과 日韓貿易不均衡의 是正

	1986 年度	1987 年度上半期	
對韓投資（億달러）	4.36	2.95	
	（前年對比 3.2 倍）		
	1984 年度	1985 年度	1986 年度
對韓技術移轉（億엔）	598	798	732
（件數）	149	182	211
日韓貿易（億달러）	1986 年（前年對比）	1987 年（前年對比）	
輸 出	104.8（ 47.6 %）	132.2（ 26.3 %）	
輸 入	52.9（ 29.3 %）	80.8（52.6 %）	
收 支	51.8	51.5	

(3) 今後的 課題

相互信賴, 相互 메리트에 基礎한 水平分業의 確立 必要性

訪日部品開發協力미션 派遣(提案)

韓國機械工業振興會

常勤副會長 羅昌洙

우선 이 자리를 빌어 昨年 6월에 派遣했던 韓國의 「訪日部品開發協力미션」이 所期の 成果를 거두는데 積極 協調해 주신 日本側 代表여러분께 深甚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韓日 兩國은 많은 産業分野에서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며, 最近에 들어와서 그 協力關係가 한층 加速化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바와같이 恩貨強勢의 持續에 따른 日本産業構造의 改編에 의해 部品과 素材의 海外依存度가 높아지고 있고, 韓國으로서도 모은 産業의 底邊基盤이 되는 部品工業의 育成・發展에 注力하는 立場에서 先進技術의 導入과 그 開發에 全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産業環境의 變化는 兩國의 水平分業의 實現을 위한 好機가 되어 86年 10월에 派遣되었던 日本의 「訪韓國部品開發協力미션」과 87年 6월에 派遣했던 「訪日部品開發協力미션」의 相互交換은 兩國의 部品産業協力關係를 加一層 發展시킨 하나의 첫걸음이 되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産業協力氣運을 一過性을 지닌 恩貨強勢局面의 打開을 위한 短期對策이 아닌 兩國 産業界의 長期的인 協力定着을 위한 契機로 삼고자 올해도 同미션을 日本에 派遣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派遣時期는 6 月中이며 構成은 自動車, 一般機械, 電子・電機部品の 3 個 그룹 約 50 餘個社로 하고, 派遣地域과 日程등 詳細한 內容은 兩側 事務局에서 追後 協議토록 하겠습니다.

如何간에 同미션의 派遣이 向後 바람직스러운 兩國間 水平分業의 커다란 觸媒劑가 될 것으로 믿으며, 日本側 代表여러분의 積極的인 協調를 付託드립니다.

訪日部品開發協力미션의 派遣(答辯)

川崎重工業(株)

專務取締役 中井 善夫

部品開發協力미션에 대해서는 방금 羅昌洙 副會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昨年 日本에서 韓國으로, 韓國에서 日本으로 相互派遣하여 相當한 效果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交流를 包含해서 兩國을 둘러싸고 있는 國際環境變化에 의해서 最近 2年동안의 個別企業간의 技術 및 資本의 提携는 急速히 進展되고 또한 兩國의 同一業種團體 相互의 交流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 狀況에 있기 때문에 이미 相當히 成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提案에 대해서는 迅速히 關係諸團體와도 協議를 하여 日韓經濟協會로서 可能な 限 對應을 하여 받아들이는 方向으로 檢討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現在 韓國의 企業과 提携關係에 있는 企業이 急速히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工場見學등에 대해서는 希望에 副應할 수 없는 境遇가 생길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訪韓國中小企業協力MISSION의 派遣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石原增男

昨年 4 月 濟州島에서 開催된 第 19 回日韓・韓日合同經濟委員會會議에서 訪韓國中小企業協力MISSION의 派遣에 關하여 合意가 되었읍니다.

合意된 經緯를 簡單히 뒤돌아보면, 韓國의 第 6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에도 있읍니다만 部品産業과 中小企業의 育成, 強化가 重點課題로 되어 있고, 또 日本側의 部品開發協力MISSION의 報告書에도 韓國의 中小部品メーカー의 國際的技術水準에 問題가 있다고 指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勘案하여 兩國中小企業의 交流促進과 相互理解增進을 目的으로 하여 中小企業協力MISSION을 昨年 11 월에 派遣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後, 不得已한 事情으로 延期하고 있읍니다만, 現在에 있어서도 이 MISSION 派遣의 必要性에는 何等의 變化가 없다고 생각됨으로, 今秋를 目標로 派遣하고자 생각합니다. 貴國에서도 受容에 協力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貴國의 同意를 얻으면 詳細한 것은 兩國事務局에서 檢討해서, 實施하고자 생각합니다.

訪韓中小企業協力밋션의 派遣에 關해서(答辯)

(社) 韓 日 經 濟 協 會

常動副會長 周 永 爽

專務님께서 방금 提案하신 “訪韓中小企業協力밋션”은 이미指摘하신 바와 같이 昨年 4 月 濟州道에서 열린 第 19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合意된 바 있는 事項입니다.

따라서 본 밋션의 派遣을 歡迎하는 바이며 細部事項 등은 追後 兩事務局間에 具體적인 協議를 거쳐 受容에 萬全을 期하도록 하겠습니다.

第 3 合 同 分 科 會

(經濟・一般協力分野)

(共同議長)

韓國側：朴 大 振 三三投資金融(株) 会長
日本側：植田 久三 山一證券(株) 相談役

最近의 韓國經濟動向과 새 政府의 經濟政策方向 (韓國側 主題發表)

經 濟 企 劃 院

第 1 協力官 李哲守

1. 最近의 韓國經濟動向과 當面課題

안녕하십니까.

저는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第 1 協力官 李哲守입니다. 존경하옵는 韓日 兩國의 經濟人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政府의 經濟政策方向에 대해 말씀드릴 機會를 가지게 됨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7 年間 韓國經濟는 對内外로부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克服하고 成長, 物價, 國際收支 面에서 뚜렷한 進前을 이루어 왔읍니다.

1981 年부터 1987 年까지 7 年間 우리나라의 經濟成長率은 年平均 약 9%의 높은 水準을 記錄한 反面, 物價는 年平均 約 3% 上昇에 그쳐 「安定基調下의 높은 經濟成長」을 維持하였으며, 한편 國際收支도 輸出의 持續的인 伸張에 힘입어 1980 年의 約 50 億弗 赤字에서 1987 年에는 100 億弗 黑字로 反轉되었읍니다. 이 결과 우리 經濟規模는 同期間中 거의 두배로 擴大되었으며 한 때 深刻하게 論議되어 왔던 外債도 大幅 縮小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經濟의 이와 같은 成果에도 不拘하고 우리 經濟는 아직 풀어야 할 여러가지 課題를 안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새로 出帆한 政府는 앞으로 經濟運用의 方式과 政策選擇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게 될 두가지의 環境變化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政治民主化입니다. 지난해 6月以後 政治民主化를 向한 일련의 過程을 통해 사회 各界各層으로부터 多樣한 慾求가 분출되고 있으며, 그중 특히 階層間・地域間 衡平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勞使問題와 農漁村問題는 특별한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작년 8月以後 勞使紛糾의 經驗은 이러한 課題의 重要性을 보여주는 단적인 例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國際收支 黑字轉換입니다. 國際收支黑字는 自立經濟의 基礎가 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追求해 온 經濟政策目標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黑字로 轉換되는 過程에서 對外的으로는 美國, EC 등으로부터 市場開放壓力 등 通商摩擦이 야기되고 있으며 對內的으로는 通貨增發에 따라 安定基調를 위협하고 通貨運用에 어려움을 加重시키고 있습니다.

結局 이러한 狀況變化속에서 現在 韓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核心課題는 우리經濟가 갖고 있는 特有의 成長活力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衡平을 提高시킬 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對內外로부터의 갈등과 摩擦을 最小化하면서 市場開放과 이에따른 產業構造調整을 어떻게 원활히 推進해 나갈 것이냐 하는 問題로 要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課題의 解決에 있어서 특히 重要한 것은 과거처럼 政府가 一方的으로 主導해 나가기 보다는 國民各界의 廣範圍한 意見收斂과 이해조정 과정을 거치는 民主的인 解決方式을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새 政府의 經濟政策方向

새 政府는 物價安定등 當面課題를 解決하면서 部門間的 不均衡의 縮小와 分配의 衡平提高등 主要改革 推進課題를 段階的으로 推進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골고루 잘사는 “先進・和合의 經濟”를 이룩하는 것을 그 基本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첫째, 民間經濟에 대한 政府의 規制나 간섭을 縮小하고 民間의 自律과 創意・責任을 토대로 하는 “自律經濟” 體制를 確立하고,

둘째, 成果의 配分과 富의 蓄積에 대한 正當성과 道德性を 確保하는 “公正經濟” 秩序를 確立하며,

셋째, 地域間, 部門間, 階層間 均衡發展을 통해 社會的 갈등을 解消하는 “均衡經濟”를 실현하는 한편,

넷째, 國際經濟秩序의 形成에 被動的 수용자가 아닌 能動的 主體로서 參與하는 “國際協力經濟”를 指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重點的인 政策課題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政府規制의 緩和와 國民의 參與機會 擴大〉

우선 國民經濟에 대한 政府의 不必要한 規制와 負擔을 緩和시키고 干涉을 縮小함으로써 民間의 自律과 競爭與件을 造成해 나갈 計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企業活動에 不便을 주는 各種 經濟法令, 예를들면 企業設立 및 施設擴充 등과 關聯한 規制節次를 大幅 整理함으로써 民間의 自律能力을 提高해 나가는 한편, 參入・制限的인 各種 法令이나 事業者團體의 機能을 改編하여 企業間的 競爭을 促進할 것입니다. 아울러 非

自發的인 準租稅나 各種 負擔金 등 企業에 대한 直・間接的인 負擔도 縮小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自律과 競爭을 바탕으로 한 金融產業 改編을 推進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通貨信用政策의 中立性提高, 金融產業間의 業務領域 調整으로 競爭與件을 造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政府의 機能 및 役割變化에 맞추어 金融에 대한 政府干與範圍의 縮小, 人事 등 經營의 自律화와 金利自律化, 政策金融縮小와 같은 金融制度面의 自律化등도 包含될 것입니다.

自律競爭體制의 具現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은 參與의 擴大와 情報의 公開입니다. 지금까지 다분히 閉鎖的으로 運用되어온 主要政策의 決定過程에는 利害當事者인 國民이 積極 參與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關聯情報과 政策決定過程을 최대한 公開할 것입니다.

〈經濟連用의 衡平性 提高와 所得分配의 改善〉

所得分配를 위해서 稅制를 積極 活用코자 합니다. 稅制改編의 基本方向은 不動產이나 株式 등 資產所得에 대해서는 稅金을 증과하는 대신 勤勞所得者 등 低所得層에 대해서는 租稅負擔을 緩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特히 讓渡所得稅와 相續稅, 贈與稅의 課稅標準을 現實化하고 金融實名化에 의한 綜合課稅與件 定着을 위한 差等課稅率 上向調整등의 措置를 取할 것입니다.

또한 不動產投機 등을 통한 不勞所得을 抑制해 나감으로써 富의 蓄積의 公正性, 道德性을 提高할 것입니다. 不動產轉賣로 發生되는 投機所得을 徹底히 課稅로 回收하고 企業의 非業務用 土地保有基準의 整備나 土地過多保有稅 등을 活用하여 價格上昇을 기대한 不動產過多保有를 積極 抑制

해 나갈 것입니다.

불론 政府 스스로도 經濟運用에 있어서의 公正性 確保에 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認許可事項 中에서 프리미엄이 存在하는 認許可를 大幅 縮小하고 公權力的 濫用이나 利權介入을 排除함으로써 特惠와 不條理的 소지분 스스로 除去해 나갈 計劃입니다.

〈階層間・部門間・地域間 均衡發展〉

所得階層間 均衡發展을 위해서는 먼저 勤勞者 福祉의 增進을 통한 中産層化가 促進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政府는 最低賃金制의 適用業種과 對象企業을 漸進적으로 擴大해 나가고, 學歷間, 職種間 賃金隔差의 縮小과 賃金體系의 合理的 調整을 誘導해 나갈 計劃입니다. 또한 國民株 開發・普及이나 從業員 持株制度를 擴充하여 低所得 勤勞者의 財産形成을 促進하고 勤勞者의 住宅마련을 위해 稅制・金融上的 支援을 擴大할 計劃입니다.

勞使協力の 增進은 基本的으로 勞使間의 自律的인 합의가 바탕입니다. 勤勞條件 및 作業環境改善을 위해 積極 努力하면서 地方單位로 勞動界, 企業界, 學界 등이 參與하는 公聽會, 討論會를 통하여 國民的인 勞使安定에 대한 共感帶를 形成하는 한편 새로운 法體系에 맞는 勞使交渉方式의 早期定着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部門間 均衡發展을 위해 中小企業을 育成하고 經濟力 集中現象을 緩和해 나갈 計劃입니다. 中小企業이 當面하는 가장 어려운 問題는 역시 資金不足問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中小企業의 원만한 資金確保를 위해서 第2 中小企業銀行 設立을 推進하고, 第2 信用保證會社를 設

立하여 擔保貸出에 따른 隘路要因을 解消하여 中小企業 創業支援 節次를 簡素化하며, 創業資金의 支援을 늘려 創意的인 中小企業의 出現에 도움이 되도록 할 計劃입니다. 그리고 過去 重化學工業 爲主로 運用되어온 國民投資基金을 앞으로는 中小企業과 技術開發에 대한 支援을 爲主로 轉換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經濟力 集中의 防止를 위해 大企業集團의 相互 出資를 통한 企業의 無分別한 擴張을 禁止하고 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에 관한 制度上的 出資總額 制限制度를 嚴格히 運用할 計劃입니다.

나아가 地域間 均衡發展을 圖謀하고 活力있는 農漁村을 建設하기 위해 農漁村工業化를 擴散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地方銀行의 增資, 地方生命保險 會社의 設立 및 地方企業에 대한 金融・稅制支援의 強化로 地方經濟의 活性化를 圖謀할 것입니다. 반면 首都圈 地域의 工業團地 造成은 繼續 抑制함으로써 大田以南地域의 工業化, 특히 西海岸地域에 대한 工業立地 開發 및 社會間接資本 投資를 擴大해 나갈 것입니다.

〈國際化時代에 副應한 經濟體質 및 構造改善〉

政府는 國際收支黑字基調下에서 우리經濟의 國際化和 開放政策을 꾸준히 推進하고 우리經濟力에 相應하는 國際的 責任도 遂行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各種 輸入制限措置를 緩和하고 關稅率 構造를 改編하여 市場開放을 더욱 促進하는 한편 쇠고기, 담배 등 通商摩擦의 圓滿한 타결을 摸索하되, 對內的인 補完措置를 講究함으로써 對外開放 擴大를 위한 合意基盤을 造成해 나갈 計劃입니다. 특히 政府는 市場開放을 競爭促進과 消費者 厚生增進의 契機로 活用코자 消費財輸入에 대한 과감한 門戶開放措置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外換集中制를 緩和하여 制限的이나마 企業의 外換保有 自律化 幅을 擴大하고, 外資導入法, 技術用役育成法 등 關聯法令을 改正하여 用役去來의 自由化 幅을 擴大하며, 海外에서 發行된 轉換社債의 株式轉換과 “코리아 유러펀드”의 增資 등을 통해 資本自由化의 基盤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海外投資의 節次簡素化, 金融支援 등을 통해 對外投資與件을 改善하여 企業의 國際化가 展進되도록 할 計劃이며, 올림픽을 契機로 中共, 東歐圈 國家 등 未修交國과의 經濟協力 努力도 強化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經濟力伸張에 相應하여 多者間 國際機構에서의 能動的인 役割과 아세안, 유럽共同體 등 地域經濟機構와의 協力增進은 물론 後發開途國을 위한 對外經濟協力基金의 規模 擴大와 金利引下 등 支援條件 改善에 積極 努力할 計劃입니다.

이와같은 對外的인 努力과 함께 國際化에 따른 國內經濟構造의 改善도 並行 推進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政府는 產業側面에서는 技術集約的인 有望業種의 成長能力 擴充과 傳統產業의 高附加價值化 促進, 그리고 競爭力 弱화로 인한 構造的 不況產業의 合理化 推進 등 產業構造의 調整을 誘導하고 工業基盤 技術開發投資와 基本的인 技術分野에 대한 民・官 共同研究事業의 推進을 強化하는 등 科學技術投資를 擴大해 나갈 計劃입니다.

그리고 最近 開放과 關聯 國內의으로 심각한 政治問題가 되고 있는 農產物分野에 있어서도 農產物 加工產業의 育成 등을 통해 農產物의 需要基盤을 擴充하고 營農規模의 擴大와 營農機械化 등으로 건설한 企業農

의 發展을 圖謀하며 農業生産 調整體制를 確立하는 등 開放化時代에 對
備한 競爭力있는 農業의 育成에 注力할 計劃입니다.

3. 結 語

結論的으로 韓國經濟는 政治와 經濟가 상승적으로 發展해 가는 過程에서
특히 經濟 各部門에서 先進化를 위한 범국민적 思考의 전환과 이를 뒷
받침하는 制度變化가 절실한 때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轉換은 결코 쉬
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過去 많은 어려움을 克服한 우리經濟의
蓄積된 經驗은 이러한 轉換을 可能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轉換은 필연적으로 우리경제의 構造調整을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韓日兩國의 經濟協力도 「産業內 水平分業」을 強化하고 交易의
擴大均衡을 이룩하는등 보다 發展的 方向으로 推進되어 나가야 하겠읍니
다.

지금 世界는 바야흐로 아시아·太平洋經濟時代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韓
日 兩國은 새로운 時代의 主役으로서 보다, 美國을 包含하여 經濟關係에
있어 緊密한 協力關係가 要求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核心이 되는 民
間經濟人間의 協力活動이 앞으로 韓日兩國關係는 물론 世界經濟發展의 原
動力이 될것입니다. 韓日兩國經濟人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能動的인
協力和 支援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參 考〉

最近의 韓國經濟動向과 '88年度 展望

	'86	'87	'88 (展 望)
國民總生產(億\$)	953	1,180	1,450
○ 經濟成長(%)	12.3	12.2	8.0
○ 1人當GNP(\$)	2,300	2,813	3,450
雇傭增加(千名)	535	849	354
○ 失業率(%)	3.8	3.1	3.7
經常收支(億\$)	46	98	70
○ 貿易收支(億\$)	42	77	50
○ 輸出(通關基準, 億\$)	347	473	550
○ 輸入(通關基準, 億\$)	316	410	520
總外債(億\$)	445	356	310
對外資產(億\$)	120	132	155
純外債(億\$)	325	224	155
都賣物價(%)	- 2.6	2.7	3%정도
消費者物價(%)	1.4	6.1	5%정도

日本の 經濟構造調整과 韓國・아시아 NICS (日本側 主題發表)

富士銀行
相談役 松沢卓二

(經濟構造調整의 進展狀況)

어제, 前川 前日本銀行總裁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日本은 1985년 9월의 플라자合意, 86년 4월의 소위 前川報告書의 公表를 계기로 經濟構造調整이 급속히 進展되고 있습니다.

經濟構造調整의 進展狀況을 특히, 對外貿易面에 관해서 살펴 보면, 첫째, 輸出이 數量基準으로 1986, 87년의 2년간 계속해서 減少했다는 점입니다. 1987년에는 이전 부터 輸出主力商品 工作機械나 VTR 등이 전년대비 10%이상 減少했습니다.

또한 GNP에 대한 輸出額의 비율을 보면, 1980년대 전반은 평균 13%였는데 87년에는 10%로 低下했습니다.

이와 같은 輸出數量의 減少나 輸出比率의 低下는 더할 나위 없이 恩惠강세의 進展과 輸出主導型 經濟에서 內需中心型 經濟로 轉換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輸出比率은 국제적으로 볼때, 원래 결코 높지 않습니다. 1980년대 전반에 있어 미국의 輸出比率은 6%로써 일본의 13%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영국은 同21%, 서독은 同27%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韓國이 34%, 台灣이 50%等으로써 모두 일본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對外貿易에 있어서 構造調整의 둘째는 製品輸入이 增大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86년과 87년에 있어 製品輸入의 增大는 놀라운 정도였으며, 그 結果, 全体輸入에서 차지하는 製品輸入 比率이 1985년에 31%에서 87년에는 44% 그리고 極히 最近에는 88년 2月の 49%로서, 短期間에 急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製品輸入의 內容을 살펴보면, 특히 消費財의 輸入이 크게 增加했으며 이 가운데 乘用車나 電氣製品등, 이전에는 그다지 많이 輸入되지 않던 品目이 急増하고 있습니다. 그 結果, 資本財, 中間財를 포함한 製品輸入 전체에서 차지하는 消費財의 輸入比率은 1985년에 18%에서 87년에는 24%로 上昇했습니다.

經濟構造 調整의 세번째는 對外直接投資가 增大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對外直接投資는 1986년 이후 急増하고 있습니다. 1951년도 부터 87년도 상반기(1951.4-87.9)까지 36년 6개월간의 對外直接投資額은 약 1,20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이상은 최근 1년 6개월간에 집중적으로 投資됐습니다.

이러한 對外投資 속에는 製造業에 속하는 企業의 生産拠点を 国内에서 海外로 移轉하는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企業의 海外生産比率은 現在로서는 歐美 各國企業에 比하여 매우 低水準에 있습니다만, 今後 急速히 上昇된 것이 予想됩니다.

(轉機를 맞이한 日韓經濟關係)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對外貿易面에 있어서의 經濟構造調整의 進展은, 일본과 한국과의 經濟關係에서도 큰 影響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한국으로부터 製品輸入이 현저히 增大되고 있으며, 그 結果,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1987년에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第3位の 輸入相對國이 됐으며 85년 第9位에서 急上昇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에 이어 第2位の 輸入相對國이 될 것도 충분히 予想됩니다.

또한, 일본의 對外直接投資가 增大되는 가운데 對韓 直接投資도 擴大되고 있으며, 더우기 對韓技術移轉 件수도 매년 著실히 增加하고 있습니다.

經濟構造調整이 進展됨에 따라 日韓 양국의 經濟關係는 일본의 對韓輸出을 중심으로 한 一方通行的인 지금까지의 形態로 부터 보다 多面的이고 雙方通行的인 關係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日韓關係의 變化는 한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눈부신 經濟成長에 의해 産業基盤 整備가 진전됐다는 점, 최대의 輸出先인 미국이 내폭적인 貿易赤字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등에서 판단할 때, 충분히 意味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는 앞으로 日韓 양국의 經濟關係를 다루는 기본적인 思考方法으로써, 市場原理를 尊重하는 일이 어느 때 보다도 重要하다는 점을 특히 強調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市場原理에 따라서 國際分業을 추진하는 것은 國際競爭力이 低下된 在來 産業의 縮小·合理化라는 「苦痛」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内外環境變化에 적응한 産業構造를 構築하기 위하여는 겪어야 할 問題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戰後 처음으로 平和적인 政權移讓에 의해 登場한 新政權下에서 經濟를 「先進化」하는데 拍車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先進化」의 前提條件으로써 金融·資本市場등, 각종 市場이 정비돼서 企業이 활발한 經濟活動을 展開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日韓 양국이 앞으로 發展하기 위하여는 각각 構造改革을 통해서 보다 開放된 經濟로 脫皮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日韓關係에 있어서도 民間企業의 자유로운 經濟活動의 確保와 市場原理의 尊重을 기본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今後, 아시아 NICCS와 日本)

다음으로, 韓國, 台灣, 香港,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아시아 NICCS와 日本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年平均 8~10%의 高度成長을 기록한 아시아 NICCS의 각국들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6~7%成長으로 減速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만, 홍콩의 3국은 86년과 87년에 10%를 웃도는 높은 成長을 되찾은 한편 86년에 2%成長하는데 그친 싱가포르도 87년에는 9%가까운 成長을 이룩했습니다.

이와 같이 長期에 걸쳐 높은 成長을 유지해 온 열쇠는 각국이 工業化政策을 추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各國의 輸出構造 特徵을 살펴보면, 첫째로 전체 輸出 가운데 工業製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는 점, 둘째로, 輸出相對地域에서 對美輸出 依存度가 높다는 점, 셋째로, 다른 아시아 NICS國과의 輸出入 比重이 적다는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輸入面을 보면, 對日依存度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特徵은 아시아 NICS國들이 일본으로부터 資本財, 中間財를 輸入하여 最終財를 미국으로 輸出하는 加工貿易型 産業構造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反映한 것입니다.

요즘, 아시아 NICS의 輸出増大가 世界經濟의 不均衡이 확대되는 要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批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 開發途上國이 低成長과 累積債務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NICS國들이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오히려 높이 評價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미국의 내폭적인 貿易赤字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시아 NICS國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對美輸出이 増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미 어렵게 됐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아시아 中進國들 이외에 일본, 아세안 각국을 포함하여 東南亞에서 工業化가 進展된 나라들은, 모든 나라가 對美輸出에 의존하면서 發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좋은 실든, 對美依存으로부터 脫皮하는 것이 共通된 課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가 對美依存度에서 탈피하면서 지속적으로 發展해 나가기 위해서는 相互 貿易·投資關係를 深化하고 水平分業을 통하여 共存共榮을 목표삼는 일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엔화강세의 定着을 背景으로 아시아 NICS國들이 日本市場에 급속히 進出하고 있으며 그 結果, 일본과 아시아 NICS간의 貿易形態도 지금까지와는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東南亞에 있어서 각국간 水平分業이 이루어지는 것을 前提로 해서 각국에 있어서 國內市場의 成長과 他國들에 대한 市場開放이 필요시됩니다만, 이때 國內市場이 큰 日本의 責任은 대단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日韓兩國의 協力關係가 더욱 強化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마쳐겠습니다.

第6次經濟社會發展計劃（1987-1991）中の 金融産業의 變化方向에 對한 摸索（코멘트Ⅰ）

亞細亞綜合金融（株）

社長 金 善 根

經濟開發 初期에 政府는 官主導下에 內資動員을 最大化하는 同時에 이
를 戰略的으로 優先順位에 있는 産業部門에 集中 投資함으로써 相對的
으로 短期間內에 高度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그 過程에서 金融
産業은 官主導의 他律的인 힘에 의하여 公共性的 目標가 지나치게 強調
되고 營利를 目的으로 한 企業性이라는 目標는 거의 무시되어 實物部門
에 비해 그 發展이 크게 落後되게 되었다.

金融部門이 實物部門과 마찬가지로 均衡있는 發展을 하기 爲해서는 私
企業으로서의 企業性을 살리고 市場의 價格機能에 의한 自由競爭原理에
의해 金融資金이 效率的으로 配分되도록 誘導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 政
府當局은 1980 年代初부터 金融産業에 金融自律化를 推進하여 왔으나, 그
成果는 아직도 未裕하다는 것이 一般的인 意見들이다.

특히 1986 年부터 우리나라의 國際收支 黑字가 定着化됨을 契機로 環境
과 國際金融市場 與件이 急變하고 있으므로 이에 效果的으로 對處키 爲
해서 金融自律化가 第6次經濟社會發展計劃 期間中에 보다 本格的으로 推
進될 것으로 展望된다.

最近 우리나라 金融產業內에 일고있는 몇가지 具體的인 變化조짐을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1. 金融產業 發展이라는 政策的 次元에서 銀行을 비롯한 모든 金融機關에 對한 業務領域을 調整하는 등 全般的인 金融產業 改編이 論議中인 바 今年 下半期부터 本格 施行될 豫定이다. 市中銀行들의 收支改善을 爲한 方案들이 講究될 것이며 一部 短期金融會社들의 統廢合에 의한 地方銀行 設立등도 豫想되고 있다.
2. 保險業界에서는 美國의 門戶開放 壓力에 따라 合作保險會社の 新設과 地方生保社 設立이 新規 許可되고 있다. 이에따라 既存 保險會社の 大型化 및 國際化가 活潑하게 進行된 것으로 豫想된다.
3. 資本市場에 있어서는 政府가 1981 年 證券市場의 國際化 推進計劃을 樹立함을 契機로 證券會社の 大型化 및 國際化가 本格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 年代에는 資本市場의 完全 自由化가 期待되고 있다.

코 멘 트 : (Ⅱ)

國 際 證 券 ㈱

會 長 川 島 章 司

昨年以來 兩國間の 貿易, 技術移轉, 直接投資, 其他 諸協力에 對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조금前 松澤相談役께서 말씀하신 「日本經濟에서 現在 일어나고 있는 構造變化에 立脚한 向後의 兩國關係展望」에는 저도 全面的으로 贊成을 表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韓國經濟企劃院 當局者の 第6次經濟計劃修正方向에 대한 說明에서는 向後 韓國經濟에 있어 다이 나믹하고 着實한 發展을 期待할 수 있는 많은 點이 包含된것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마침 이 分科會에서는 「經濟・一般協力」이라는 상당히 幅넓은 테마가 주어져 있어 어제와 오늘 아직 論議되지 않은 主題로 제 自身이 평소 植谷副團長 등 몇 분의 團員과 함께 關係하고 있는 證券市場과 資本市場을 通한 兩國의 經濟交流에 對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알고 계신분도 많은 줄 압니다만, 日本企業의 國內・海外市場에서의 資金調達은 基本的으로는 自由이고, 企業은 嚴格한 비지네스上에서의 競爭에 直面하면서 國內外的 幅넓은 選擇範圍 가운데서 最適의 財政努力을 繼續하고 있습니다. 最近 2-3年間 日本企業이 證券을 發行한 市場을 보면 대체적으로 國內와 海外가 50對50의 比率로 되어 있어 日本企業의 證券의 約 절반은 海外市場에서 發行되고 있는 狀況에 있습니다.

韓國企業은 昨年 달러로 換算해서 總計 58 億달러程度의 證券을 거의 國內市場에서 發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向後 더욱더 韓國經濟가 發展하고 國際化도 한층더 높아져 가는 過程에 있어 日本企業과 똑같이 證券을 海外에서 發行케 되는 機會가 飛躍的으로 增大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段階에서는 勿論 世界の 引受會社間の 競争은 있습니다만, 마침 日本이 세계에서 제일 큰 資本供給力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證券을 媒體로 한 새로운 채널에서의 協力이 增大되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期待하고 있는 바입니다. 당장은 國內에서의 流動性對策 등 當局에서 여러모로 努力하고 있는 事情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長期的으로는 低廉한 코스트의 海外資金을 利用하는 등의 觀點도 包含해서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경우 그 製品의 市場이라는 點에서 海外와 이미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點도 있어 앞으로 finance의 國際化는 상당히 幅넓은 範圍로 展開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되며 國際資本市場을 통한 資金의 需要와 供給가운데서 새로운 民間協力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 立場에서 본 韓國經濟의 魅力은 무엇보다도 그 成長性입니다. 企業의 財政에 있어서 企業의 成長魅力을 反映시키는 것이 株式, 轉換社債 등의 equity의 發行입니다. 日本企業의 境遇에도 證券의 發行은 内外市場 모두 equity가 中心입니다만 韓國企業의 여러분이 그 커다란 魅力인 成長性을 어필하는 證券發行을 海外에서도 活潑히 하여 그것이 日本의 資金供給과도 對應되는 形態가 되도록 期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한 것과 關聯해서 당장은 여러가지 事情이 좋게 理解되고 있습니다만, 事情이 許容된다면 될 수 있는 限 빨리 韓國證券에 對한 日本과 其他 外國으로부터의 投資가 認定되도록 希望하고 있습니다. 또한 韓國의 投資家로부터 日本과 其他 外國證券에 對한 投資도 認定되도록 亦是 希望하고 있습니다.

雙方 國家의 幅넓은 投資家가 서로의 證券을 保有하는 것은 政府間의 友好關係에 덧붙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相對國에 對한 보다 깊은 關心을 갖게 하고 보다 깊은 親睦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日本の 最近의 對外去來를 보면 海外와의 證券去來金額은 貿易去來의 10 倍에 達하는 水準까지 增加되고 있습니다. 向後 兩國關係 가운데서 貿易, 技術, 直接投資 등이 더욱더 密接한 關係를 갖게 되어 發展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長期的으로는 證券을 媒體로 하는 兩國間의 資本去來・交流가 커다란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關係하고 있는 兩國의 證券業協會에서는 1975 年以來 이 合同 經濟委員會와 똑같이 定期的으로 場所를 마련하여 知識의 交換과 親善에 힘쓰고 있어 이 定期會同을 通해서 兩國業界間의 相互理解는 漸次 增大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證券을 통한 파이프가 從來의 兩國間의 諸交流에 더해서 큰 役割을 할 것이라는 點을 말씀드리며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文化・社會面에서의 日韓相互理解의 必要性에 대해서(所見 I)

丸 紅 (株)

相談役 松尾 泰一郎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가 今年에 20 회째를 맞이하게 된 것은 日韓兩國의 關係者 여러분이 兩國經濟의 交流를 深化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 깊은 認識에 의한 것이고 그 結果 兩國의 貿易이 飛躍적으로 伸張되어 量的면이 아니고 質的인 面에서도 크게 進展된 것은 實로 慶賀스럽기 한량없습니다.

저 個人으로서도 1984 年과 1987 年 2 회에 걸쳐 日本政府의 輸入促進 使命의 團長으로서 訪韓하여 日本으로의 輸入促進에 微力한 힘이나마 盡力해 왔습니다만, 1987 年에는 日本의 對韓輸入이 前年對比 55.4 %로 飛躍적인 伸張을 達成한 事實은 實로 함께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向後 서로 이 友好的인 關係를 加一層 推進하여 「보다 나은 equal partner ship」을 構築해 가는 일이 實로 要望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日韓兩國이 眞實로 相互理解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單純히 貿易 量의 增大뿐만 아니라 文化・社會面에서의 相互交流를 넓히고 積極적으로 繼續 推進해 나가야 할 必要가 있다고 痛感하고 있습니다.

특히 日韓關係에 있어서는 過去 不幸한 歷史를 안고 있고 이 때문에 現在도 兩國民間에 거북한 感情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마음의 非關稅障壁」이라고도 할 수 있

입니다. - 日本에서는 韓國을 자주 「가깝다고도 먼 나라」라고 表現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實로 奇妙한 말이며 距離的으로 가장 가깝고 또 人種的으로도, 歷史的으로도 가장 가까운 兩國이라는 事實에서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깊은 親密感과 相互理解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亦是不幸한 歷史에서 오는 心的負擔이 兩國 또는 兩國民으로 하여금 먼 나라로 느끼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最近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日本에서는 韓國붐이 일고 있고 TV에서는 수많은 韓國紹介프로그가 放映되고 또한 한글講座도 자주 開講되고 있습니다. 韓國의 大衆歌謠도 유행되고 있고 昨年末의 「NHK TV 歌謠靑白戰」에서도 韓國의 歌手로서 처음 조용필씨가 招待되었습니다.

韓國의 여러분께 日本을 理解해 달라고 付託하기 前에 우선 우리 日本人이 韓國 및 韓國人을 알고 理解해야 하며, 이러한 點에서도 이들 韓國붐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韓國에 特別한 利害關係를 갖지 않는 一般 日本人 사이에 퍼져있는 이러한 붐・交流가 持續的으로 加一層 進展되기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關係하고 있는 經濟分野에 대해서 言及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經濟關係라고 하면 實際로는 個個 企業人の 商去來의 集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各各의 去來를 實現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서로의 希望에 相反되는 일, 또는 마찰이 發生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友好的으로 解決策을 찾아 그後의 去來에 影響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亦是 當事者끼리 어느程度 깊은 相互理解를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事實은 여러분께서도 經驗하셔서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産業人으로서도 相互理解를 높이기 위해서 加一層의 努力을 持續해 갈 必要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方法으로서 日韓 研修生을 兩國 企業에 의한 相互受容을 推進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最近 日本에서는 수 많은 企業이 外國人 研修生을 受容하고 있고 그 成果는 確實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外國人の 國籍을 보면 特殊語學上の 必要性이라는 純實務的인 경우를 除外하면 그 大部分이 美國・유럽에 偏重되어 있고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人인 研修生은 極히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韓國은 日本에 있어서 이미 美國 다음가는 第2位の 貿易相對國이고 또한 韓國에 있어서도 日本은 똑같이 第2位の 貿易相對國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現況을 勘案할 때 언제까지나 「가깝고도 먼 나라」등으로 말하는 것 自體가 부끄러운 것이며 怠慢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日韓兩國 企業끼리의 人的交流, 예를 들면 研修生の 受容, 職員의 派遣 등을 促進시켜 하루빨리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企業人으로서 할 수 있는 範圍에서의 努力을 서로 繼續함과 同時に 文化・社會面등 모든 面에서의 交流에도 協力을 持續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感謝합니다.

所 見 (Ⅱ)

現代 GROUP

名譽會長 鄭周永

本人은 이번 會議에 參席하여 참으로 많은것을 느꼈읍니다. 더욱기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杉浦會長님과 朴泰俊 會長님께서 모든 精誠과 誠意를 기울여시 이 會議을 發展시키 나가신데 對해 높은 敬意와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우라는 現在 急激히 變化해 나가는 世界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特別 韓日兩國間的 모든 變化는 너무 빠른 速度로 變化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있어서 韓日間的 經濟問題입니다. 過去 韓日兩國間的 모든 經濟人들이 서로의 協同과 提携가 잘못하면 海外市場에서 어려운 競爭과 紛爭의 結果를 낼을지도 모른다고 하여 否定的인 立場을 取했고 協力은 遲延不進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近間 急轉하여 두나라 모든 經濟人들은 서로의 協力이 두나라의 밝은 未來를 가져옴과 同時에 相互利益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肯定的인 思考로 크게 變化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過去의 모든 經濟與件은 나라와 나라사이가 陸地로 連結되어 있는것이 經濟的으로 큰 效率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陸地로 연결된 隣接國家보다 海洋으로 연결되어 있는 隣接國家가 더 높은 經濟的 效率을 가져올 수 있다는 時代로 바뀌었습니다. 그 實例로 日本産業의 主宗인 製鐵業이 原鑛石을 大洋에 인접해 있는 豪洲, 브라질, 캐나다, 美國 등지에서 가져오고, 그 製品은 大洋을 건너서

설이 가더라도 美國 國內에 있는 製鐵所에서 原鑛石을 구하여 모든 製品을 隣接國에 輸送하는 것보다 높은 效率을 올리는 時代로, 즉 海洋隣接國의 經濟가 더 有利하다는 時代로 變化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韓國과 日本은 조그마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陸地로 연결된 國家보다 그 방도를 잘 찾으면 높은 效率을 올릴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與件은 그 時代를 사는 사람들의 肯定的인 思考로 活用하면 많은 有益과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否定的인 觀點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좋은 與件下에서도 有益하게 開拓해 나가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이번 合同經濟會議을 통해 兩國의 모든 經濟人들의 過去思考와는 달리 서로가 肯定的으로 協力하면서 隣接한 地理的 與件을 活用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世界市場에서 연합하는 것이 높은 競争力을 갖추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共感을 갖고 있는 것으로 本人은 느꼈습니다.

韓日・日韓合同經濟委員會가 많은 合同委員會 中에서도 높은 成果를 가져오고 있고 또한 모든層의 未來의 두나라의 靑少年에게도 希望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矜持를 갖게 되었습니다. 本人은 두나라 企業人들이 앞으로 海洋으로 隣接해 있는 與件을 活用해서 밝은 장래를 開拓해 나가고 다음 世代에 큰 希望을 줄 수 있다면 다시없는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委員長에게 敬意를 보냅니다.

感謝합니다.

所 見 Ⅲ

(社)日本貿易會

會長 三村 庸平

1. 日本의 貿易

우선 日本의 貿易現況에 關하여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6年 日本의 貿易은 通關베이스로 輸出이 2,092 億달러로 前年對比 19.1% 增加된 반면, 輸入은 油價下落의 影響으로 1,264 億달러로 同 2.4% 減少를 나타내 日本의 輸出超過額은 827 億달러로써 史上最高 水準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 87年은 輸出이 2,292 億달러로 前年對比 9.6% 增加, 輸入은 1,495 億달러로 前年對比 18.3% 增加를 나타내, 輸出超過額은 797 億달러로 86年을 피크로 縮小로 轉換, 日本의 對外貿易 不均衡은 겨우 改善의 傾向을 보였습니다.

[輸 出]

輸出에 關해서 살펴보면, 86年, 87年 모두 달러베이스 金額으로 본 通關輸出은 계속 增加되었으나, 이것은 엔貨強勢에 따른 달러베이스 輸出單價의 上昇에 따른 것입니다. 實際로는 大幅的인 엔貨強勢에 따라 日本의 輸出環境은 현저하게 惡化되어 輸出數量은 86年에는 前年對比 1.3%

減少, 87 年에는 同 2.0 % 減少라는 부득이한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한편 엔貨베이스 輸出金額으로는 86 年에는 前年對比 15.9 % 減少, 87 年에는 5.6 % 減少를 나타냈습니다.

87 年の 輸出을 商品別로 보면 自動車, 家電, 鐵鋼등 日本의 主力輸出商品은 엔貨強勢에 따른 輸出採算 惡化에 타격을 받아 모두 數量面에서 減少되었습니다. 但, 非價格競爭力이 강한 商品은 여전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日本의 輸出은 앞으로 엔貨強勢에 對應한 高附加價值化가 進展됨과 同時に 低附加價值商品의 海外生産 시프트가 더욱 進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輸入〕

한편, 輸入은 달러베이스로 본 通關輸入은 86 年에는 油價의 大幅的인 下落에 의해 前年對比 2.4 % 減少했습니다. 그러나 85 年 9 月の PLAZA 合意以後 大幅的인 엔貨強勢를 背景으로 製品輸入은 계속 增加趨勢를 보였고, 또한 86 年 12 月에 OPEC에 의해 1배럴당 18 달러로의 固定價格制로 移行된 原油價格의 회복등으로 87 年에는 同 18.3 % 增加라는 大幅的인 增加를 보였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엔貨베이스의 輸入金額은 86 年の 前年對比 30.7 %라는 大幅的인 減少에서 87 年은 同 0.9 % 增加로 轉換했습니다. 輸入增加의 主役이 되었던 製品類에는 컴퓨터, 半道體등의 製品이 있습니다. 또한 急速하게 技術力 向上에 힘쓰고 있는 아시아 NICS로부터는 纖維製品, 鐵鋼뿐만 아니라 家電製品, 카메라, 卓上用電子計算機 등도 急増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衣類・家電製品等 消費財의 增加에 덧붙여 恩貨強勢에 對應한 企業의 機資材의 海外調達, 完成品의 逆輸入이 本格化함에 따라 製品類의 輸入은 增加傾向이 繼續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이 結果, 製品輸入比率은 87 年の 44.1 %에서 더욱 높아져 50 %를 넘는 일은 時間問題라고 생각됩니다. 日本의 製品輸入比率이 오랫동안 20 ~ 30 % 前後로 推移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日本의 輸入構造가 大幅的인 恩貨強勢를 背景으로 크게 變化하고 있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輸出의 低調한 傾向과 製品類를 中心으로 한 輸入의 증가 추세에 따라 日本의 對外貿易不均衡은 着實히 是正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음니다만 歐美와의 貿易摩擦이 一舉에 鎮靜化될 정도로 急速하고도 大幅的인 不均衡의 改善은 期待하기 어려우며, 特히 時間을 必要로 할 것입니다. 日本으로서는 계속된 市場開放, 輸入促進을 推進함과 同時に 積極的인 內需擴大策을 取하면서 內需主導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됩니다.

日本은 第2次世界大戰後 20年間 原材料를 輸入하여 加工製品으로써 輸出하는 加工貿易에 立脚한 産業構造를 主軸으로 經濟規模를 擴大해 왔음니다만 大幅的인 恩貨強勢를 계기로 輸出入構造는 크게 變貌하고 있습니다.

2. 西太平洋經濟地域의 發展可能性에 關하여

過去 數年, 世界經濟는 달려下落, 油價의 大幅的인 下落到 영향을 받아

主要國間の 通貨調整, 世界的인 金利低下 등에 對한 對策을 강요받은 結果, 世界經濟는 調整期에 접어 들었고 經濟成長率도 85 年에는 3.3 %, 86 年에는 3.2 %로 鈍化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環境下에서 아시아各國의 經濟는 他地域에 比해 比較的 順調로운 發展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特히 아시아 NICS의 躍進에 對해서는 松澤氏가 報告한 바 대로입니다.

그런데, 日本을 主軸으로 한 아시아 NICS, ASEAN 諸國, 여기에 中國을 包含한 西太平洋經濟地域의 向後 發展可能性에 對해서 本人이 느끼고 있는 바를 簡單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西太平洋經濟地域이 檣頭된 要因을 생각해 보면, 우선 各各의 國家・地域이 比較的 安定된 政權下에서 美日兩國을 中心으로 한 國家로부터의 資本・技術導入에 의해 輸出産業의 育成을 重視한 産業政策을 實施해 온 점과 또한 그러한 政策이 勤勉하고 低廉한 勞動力에 의해 지탱되어온 點을 指摘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向後 發展될 狀況에 對해 생각해 보면, 美國의 輸入需要 擴大에 큰 期待를 할 수 없다는 不安要素는 있습니다만, 反面에 最近들어 急速하게 엔貨強勢가 進行되어 새로운 發展可能性이 擴散되고 있습니다.

即, 엔貨強勢의 定着에 따라 産業의 構造轉換이 進展되고, 直接投資를 통한 아시아 NICS, ASEAN 諸國과의 水平分業이 進展되고 相互依存關係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日本 및 中國이 需要를 이들 各國에 提供함으

로써 아시아 NICS, ASEAN 諸國의 經濟가 活性化될 것입니다.

結局, 西太平洋地域의 經濟는 日本, 아시아 NICS, ASEAN 各國이라는 相異한 發展段階에 있는 經濟가 同一地域에 共存함으로써 諸國經濟 속에서 相互補完關係에 立脚한 分業을 發展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바람직한 循環을 가져오는 構造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地域의 dynamism을 持續시키기 위해서도 日本으로서는 繼續的으로 市場開放(市場의 提供), 産業調整(産業高度化)을 率先해서 推進함과 同時에 直接投資와 技術移轉을 通해 아시아 NICS, ASEAN 諸國을 積極的으로 支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靑少年交流 韓日大學生 相互訪問(提案)

韓 日 經 濟 協 會

常勤副會長 周永爽

1985 年에 開催된 第 17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 兩側은 將次 두나라를 접어질 兩國의 靑少年들이 서로 相對方을 充分히 理解하는 것이야말로 韓日友好親善關係를 더욱 增進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하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우선 大學生부터 交流를 實施하기로 合意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韓國側에서 1985 年부터 1987 年까지 3 회에 걸쳐 男學生 83 名, 女學生 55 名, 都合 138 名の 大學生이 日本을 訪問하였는 바, 日韓經濟協會는 물론이러니와 日本長期信用銀行, 山一證券을 비롯한 各企業의 積極的인 協調의 德分으로 큰 成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深甚한 謝意를 表합니다.

그런데 同訪問團에 參加했던 大學生들은 歸國後 異口同聲으로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의 참뜻을 알 수 있었다. 역시 韓日兩國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相互協力해서 相互繁榮을 꾀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事實을 切實히 느꼈다」고 밝히면서 그 意義를 높이 評價하였습니다.

以上과 같은 事實에 비추어 靑少年交流를 더욱 活性化시키는 뜻에서
今年부터는 兩國大學生에 의한 相互訪問으로 擴大시킬 것을 提案하면서
各經濟團體와 各企業등 日本財界의 많은 協調와 後援을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靑少年交流兩國大學生相互訪問(答辯)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石原 増男

日韓經濟協會의 石原입니다. 지금 提案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日韓 兩國의 將來를 詰어질 靑少年의 交流는 兩國에 있어서도 매우 意味있는 일입니다. 이런 觀點에서 지난 1985年 慶州에서 開催된 第17回 合同經濟委員會에서 兩國國交正常化 20周年의 記念行事로서 合意되어 實施를 해왔습니다. 그후 繼續 實施하고 싶다는 韓國側의 提案이 있어서 다음해인 86年, 87年에도 實施하여 지금까지 合計 3회에 걸쳐 韓國大學生의 訪問을 받아들여 많은 成果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번째 提案이 있었읍니다만 希望하시는데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詳細한 內容에 대해서는 앞으로 日韓兩國 事務局에서 商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日本側으로부터의 大學生派遣에 대해서는 靑少年의 相互交流에 의해 兩國間의 交流를 增進시킨다고 하는 觀點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므로 實施하는 方向에서 檢討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日韓 兩事務局에서 商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共 同 聲 明

韓國代表團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團長 杉 浦 敏 介

第 20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88 年 4 月 7 日, 8 日 兩日間 日本國石川縣金澤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泰俊 團長外 96 名, 日本側으로부터는 杉浦敏介 團長外 133 名이 參加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冒頭에 日本側으로부터 盧泰愚 新任大統領의 就任 및 新內閣 出帆에 대해 慶賀의 뜻이 表明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4 個專門委員會의 活動內容이 報告되어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1) 第 15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

(1988 年 2 月, 日本・長崎)

(2) 第 13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1987 年 6 月, 韓國・慶州)

(3) 第 8 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

(1987 年 10 月, 韓國・束草)

(4) 第 6 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1988 年 3 月, 韓國・서울)

아울러 「 2000 年代에 있어서의 韓日・日韓經濟協力の 方向」에 關한 共同研究成果의 發表가 있었다.

2. 이어 貿易增進, 投資・技術協力, 經濟・一般協力等 3 個分野의 合同分科會에서 各各 意見發表가 있었고, 以下の 事項에 대해 認識을 같이 했다.

(1) 韓日經濟關係는 近年에 와서 順調로운 發展을 보이고 있는바, 이제 兩國은 보다 開放된 同伴協力關係를 構築하여 共同的 利益을 追求함과 아울러 아시아・太平洋地域뿐만 아니라 世界の 平和와 繁榮에 貢獻해야할 時代를 맞고 있다.

(2) 兩國間的 오랜 懸案이었던 貿易不均衡問題는 雙方的 努力으로 漸次 改善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바, 保護貿易主義 혹은 世界經濟의 블럭化 움직임이 高潮되고 있는 가운데 健全한 世界貿易秩序의 維持를 위해서도 兩國은 繼續 協力함으로서 擴大均衡을 指向하는 貿易增進을 위한 努力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3) 最近 兩國間的 投資・技術協力은 다시 活潑化되고 있으며, 水平的 相互補完의 分業關係가 進展되어가고 있는바, 適切한 方向으로 推進하여 兩國經濟의 發展에 寄與케 하기 위해서는 部品産業과 中小企業등 底邊基盤分野에 있어서의 協力關係를 強化할 必要가 있다.

(4) 앞으로 韓國에서 經濟의 民主化, 自由化, 國際化가 進展됨에 따라 兩國經濟關係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하기 爲해 金融, 證券, 保險, 流通, 運輸등 幅넓은 分野에서의 相互協力の 增進이 要請된다.

(5) 새로운 時代에 있어서의 韓日關係의 構築을 爲해 兩國經濟人뿐만 아니라 널리 國民의레벨에서 相互理解와 信賴關係를 보다 深化시키기 爲해 여러 形態의 人的交流 또는 文化交流등의 促進이 要請된다.

3. 3個合同分科會에서 많은 提議가 있었으며, 別添과 같은 事項에 合意하였다.

4. 다음 會議는 1989 年 봄 韓國에서 開催기로 하였다.

(別添)

合 意 事 項

1. 年 5 回の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2. 延期되었던 「訪韓中小企業協力및선」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3. 「訪日部品開發協力및선」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4. 「韓國大學生訪日團」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및 「日本國大學生訪韓團」(假稱)의 派遣에 대해서 檢討하는 件
5. 앞으로의 韓日經濟關係의 擴大와 進展에 對應할 수 있는 專門委員會의 活動方向에 關해 檢討를 시작한다.

韓國側 顧問閉會辭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鄭 壽 昌

스기우라 빈스케 日韓經濟協會 會長님,

朴泰俊 韓日經濟協會 會長님,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신 貴賓 여러분.

本人은 오늘 兩國의 代表的인 企業들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第20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世界經濟속에서의 兩國의 役割增大 및 보다 幅넓은 經協可能性을 確認하게 된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韓日 兩國간의 協力關係는 그 歷史가 대변해 주는 것처럼 오랜時間에 걸쳐 축적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最近 急變하는 世界經濟環境은 우리 兩國에 새로운 次元의 協力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世界史 發展의 主要舞臺를 살펴보면 19세기에는 PAX BRITANICA時代 20세기에는 PAX AMERICANA 時代가 到來했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東아시아時代가 열리게 될것이라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展望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變遷過程에서 우리는 70年代 2차례의 Oil Shock가 主原因이 되어 既存의 經濟理論으로는 明確한 處方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Stagflation, 開發國의 막대한 外債果積, 世界經濟를 주도하던 美國의 막대한 財政赤字와 貿易赤字로 인한 달러貨의 弱勢를 보아 왔으며 世界的으로 擴散되고 있는 新保護主義 물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以外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의 두꺼운 장막에 가려져

있던 共產圈의 두 強大國인 蘇聯, 中共이 그 모습을 서서히 外部世界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같이 急變하는 不確實性的 時代는 既存의 世界經濟秩序의 改編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世界속의 一員인 우리 兩國으로서는 이러한 變化를 避할수 없는 것이며 各자의 力量에 相應하는 責任을 져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觀點에서 世界經濟에서 가장 活力을 보이고 있는 東아시아地域에서, 經濟大國으로 부상한 日本이 世界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한 役割을 增大시켜야 할 것으로 믿으며 이에따라 韓日 兩國의 經濟關係도 새로운 轉換點을 摸索해야 할 것입니다.

韓日 兩國은 지금까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視角이 없지 않았으나 韓國의 盧泰愚 大統領이 지난 3月 訪韓한바 있는 日本 外相에게 兩國關係는 이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闡明한 것은 未來의 兩國關係를 가늠하는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會議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우리 兩國은 貿易의 擴大均衡, 產業內의 水平分業 및 尖端技術移轉 등 諸般分野에서 協力을 加一層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企業人들은 보다 緊密한 紐帶關係를 維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會議를 準備하는데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日韓經濟協會 關係者 여러분께 심심한 感謝를 드리며 여기 參席하신 여러분들을 來年度에 韓國에서 다시 만나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感謝합니다.

日本側 顧問 閉會辭

(社) 經濟同友會

代表幹事 石原 俊

방금 紹介받은 石原입니다.

記念할만한 第 20 回合同會議가 閉會됨에 있어 한마디 人事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兩國經濟界의 重鎮들이 한자리에 모여 日韓經濟交流의 加一層의 促進을 위해서 또한 相互理解를 한층더 깊게 하기 위해서 眞摯한 意見交換을 하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感謝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틀간의 會議에서 確認된 바와 같이 日韓兩國을 둘러싼 環境은 크게 變化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日韓兩國은 各各 스스로 새로운 時代에 걸맞는 構造轉換을 推進하면서 兩國은 보다 넓은 分野에서 相互補完關係를 強化시키고, 보다 開放된 形態로 더욱더 密着된 協力關係를 構築하는 일이 점차 重要視되고 있습니다. 日本에서 韓國으로부터의 製品輸入의 急増을 비롯해서 兩國間 協力關係의 密着化를 進展시키는 條件은 점점 整備되고 있습니다만, 向後 日韓兩國이 加一層의 努力에 의해 內實 있는 成果를 着實히 거두어 나가는 일이 重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저는 특히 다음 세가지를 指摘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兩國協力關係의 加一層의 密着化는 世界的인 觀點에서 보다 開放的인 形態로 進行될 必要가 있습니다. 世界的인 保護主義의 波高等 各國經濟의 相互依存이 深化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2 國間의 關係強化가 兩國의 成長・發展에 도움이 되는 同時에 다른 諸國과 世界經濟의 加一層의 發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國際化와 自由化라는 世界經濟의 커다란 흐름은 世界經濟에 對한 應分の 協力・負擔이라는 原則에 따르면서 日韓關係가 重厚하게 密着化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日韓兩國關係는 equal partner ship 側面에서 한층더 充實하게 強化시킬 必要가 있습니다. 水平分業의 加一層의 推進등에 의해서 日韓의 貿易不均衡是正, 投資・技術協力の 相互밸런스를 맞춘 推進을 指向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同時에 日韓兩國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相互의 信賴關係를 強化시켜 나갈 수 있는 形態에서의 equal partner ship 에 基礎한 關係가 重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特히 雙方이 서로의 行動에 責任을 갖고, 작은 異見에 구애받지 말고 보다 긴 眼目에서 생각하는 多角的인 形態에서 give and take 의 關係를 받아들이는 것이 特히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兩國의 相互理解를 깊게 하고 信賴關係를 높이기 위해서는 多樣的인 레벨에서의 持續的인 人的交流 擴大가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스트, 文化人, 政治家의 交流는 물론 留學生도 相互 增進시킬 必要가 있으며 이와 같은 兩國經營者의 相互交流와 意見交換도 더욱더 増大시킬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盧泰愚 大統領下에 貴國이 더욱더 눈부신 發展을 하도록,
또한 今年가을 서울에서 開催되는 올림픽이 成功裡에 끝나도록, 그리고
日韓兩國의 協力關係의 加一層의 發展을 마음속으로부터 祈願하며 己의
人事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韓國側團長 閉會辭

韓國代表團
團長 朴泰俊

大端히 精誠을 드린, 緻密하면서도 完璧한 準備가 이루어진 가운데, 韓日 兩國間의 經濟界를 代表한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2日間에 걸쳐 진지한 雰圍氣속에서 兩國의 經濟懸案과 相互間의 關心事에 대해 격의없는 意見 交換을 하고, 오늘 兩國經濟協力の 發展과 兩國의 繁榮을 向한 共同聲明 採擇을 끝으로 第20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會議를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20회라고 하는 뜻깊은 會議를 맞이하여, 日本歷史의 古都이자 뛰 어난 景致를 자랑하는 이곳 金澤을 訪問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韓國 代表團에 있어서는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會議는 이것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읍니다만 우리가 合意하여 採擇한 共同聲明의 精神이 그대로 實踐될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持續的인 努力과 協助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릴 必要조차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제의 開會式에서 이미 本人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韓日兩國關係는 '韓日新時代'의 새로운 次元으로 發展하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 두 나라는 '아시아・太平洋'時代의 主役으로서 이 地域의 發展과 共同繁榮을 위해 함께 努力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時代的 潮流를 先導해 나가야 할 責任은 바로 우리들兩國 經濟人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本人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비록 2日間の 짧은 期間이었음니다만, 이번 第 20 回 民間合同經濟委員會는 다른 어느때보다 兩國間 協力關係의 發展을 위한 有益하고도 建設的인 많은 成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委員會를 통해 이루어진 親善과 相互協力の 精神이 兩國 國民과 經濟界에 널리 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持續的인 努力을 展開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付託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韓國代表團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日本側의 杉浦敏介 團長을 비롯한 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同行하신 家族여러분, 그리고 完璧한 準備로 이번 會議가 成功的으로 끝날수 있게 해주신 日韓經濟協會 事務局의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感謝를 드리며, 來年에 韓國에서 다시 만날때 까지 여러분 모두 健康하시기를 祈願합니다.

1988 年 4 月 8 日

日本側 團長 閉會辭

日本代表團

團長 杉浦 敏介

第 20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의 閉幕에 즈음하여 한마디 人事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李奎浩 駐日韓國大使님 그리고 中西 石川縣 知事님, 朴泰俊 團長, 顧問님들을 비롯해서 兩國代表團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參席하셔서 이틀간에 걸쳐 眞摯한 討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會議에서는 向後 世界經濟에 있어서 兩國關係의 이상적인 方向에서부터 協力增進을 위한 具體的인 方道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테마에 대하여 솔직하고 建設的인 意見을 交換할 수가 있어서 記念해야 할 第 20 回 合同會議에 맞는 참으로 意義있는 內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協力的 덕분이라 생각되어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共同聲明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世界經濟가 매우 어려운 構造調整의 時代를 맞고 있는 가운데 日韓兩國은 보다 開放된 協力關係를 만들어 兩國의 發展, 나아가서는 世界의 繁榮을 위해 努力하는 것에 合意하여 많은 成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기뻐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번의 成果를 基礎로 兩國 經濟關係의 더욱 큰 發展을 위해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協力を 해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바입니다. 그리고 朴泰俊 團長님을 비롯해서 韓國側의 여러분들
에게는 이 第20回 合同會議를 成功으로 이끌수있게 많은 協力을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거듭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兩國代表團 여러분의 보다 더 큰 發展과 나아가서는 今年가
을에 열리는 서울올림픽의 成功을 祈願하면서 閉會人事에 대신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附 錄

가) 日韓機械翻譯시스템 共同開發 表彰狀

나) 第 20 回合同會鑒別 篇型 日本主要日刊紙報道內容 (寫字)

表 彰 狀

韓國科學技術院SYSTEM工學CENTER

所長 成 琦 秀

貴下는 1982年 第3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의 合意事項에 依한 富+通株式會社와의 共同事業으로서 컴퓨터를 利用한 日韓機械翻譯시스템의 研究開發에 힘쓰신 結果 이번에 훌륭히 基礎技術을 完成함으로써 實用化의 方途를 確立하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關係者 諸位의 恪別하신 努力과 熱意의 德分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제까지의 勞苦와 韓日經濟協力事業에 貢獻하신 多大한 功績을 致賀하면서 紀念品과 表彰狀을 드립니다.

1988年 4月 7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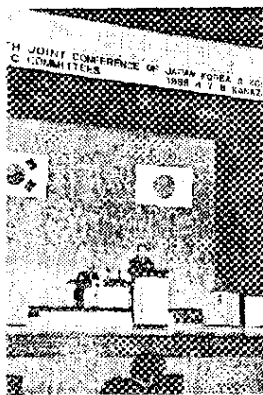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會長 朴 泰 俊

韓国側、建設開放を要請

日韓合同経済委が開幕

日本と韓国の経済交流促進を目的とする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が七日午前、金沢市内で始まった。会議には日本側から斎藤英四郎経済連会長、石原謙三所長、式谷常事、百三十八人、韓国側からは具滋賢全経連会長、鄭在昌大韓商工会議所会長の八十七人が出席した。韓国の盧泰愚大統領が韓日経済協力を促進して初めての日韓民間会議で、韓国側は貿易不均衡是正の二項として韓国にも建設市場を開放するよう日本側に求めた。



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であいさつする杉浦敏介会長

開会式では韓国側副会長の朴泰俊韓国経済協会長が、欧米経済界ブロッカー化に動き出した。これに對抗するには日韓が軸となり、環太平洋経済圏を形成すべきである」と強調した。また日韓貿易不均衡問題では「日本が韓国にも建設市場を開放する」とが早急の要請だ」と述べた。

分業体制確立を要望

韓国、技術開発基金を提案

日韓合同経済委

金沢市内で開催中の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会議は七日午

後、前川善雄前日経連長の基調演説のあと全体会議で日韓経済関係の今後のあり方について議

論した。韓国側は「日本が対韓

るように「韓国技術開発基金」

経済協力を制限してきたため、韓国経済は日本の下請け型生産構造になっている」と主張、相互補完の国際分業体制への移行を求めた。このため日本に積極的な技術供与、市場開放を求め、共同で技術開発を進められ

一方、日本側は杉浦敏介日韓経済協会長が「日韓の貿易不均衡問題も改善に向かい、両国は

平済駐日韓国大使も「建設などサービス分野、農産物を含む日本の一連の市場開放はあらゆる国に公平に実施してほしい」と主張、開放が米韓に偏らないよう求めた。

の創設などを提案した。韓国国防研究院の具滋賢研究委員は、日本の対韓技術協力のやり方については中核技術を花販しないの供与技術に基づいて生産した製品の輸出地域、輸出額を制約する技術導入に押し製造設備、部品を日本から購入するよう義務付ける「一」などと批判、両国の産業協力は決して国際分業体制から大きく隔たっている」と述べた。また宋相東前サイロン会長は会議に寄せた論文の中で「日本は証券投資や国債のための海外投資に走っていると批判した。

日韓合同経済委が開幕

韓国、環太平洋

経済圏形成を提唱

【上田】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が、七日から三日間の日程で川崎県川崎市で始まった。日韓両国の民間レベルでの経済交流拡大をめざすこの合同委には、日本側から杉浦敏夫・日韓経済協会会長をはじめ、斎藤英四郎・経済連会長、石原俊・経済同友会代表幹事ら約百二十人、韓国側には朴俊俊・韓日経済協会会長を訪問団団長とし、具滋暉・全経連会長、鄭周永・現代グループ会長、鄭貞品・大韓商工会議所会長の約百二十人が参加した。今回の合同委のテーマは、主に開かれたイコール・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二面に関連記事）。

「日韓両国は、段々相互理解を深め、ともに安定した成長を遂げる段階をむかえた」と日韓経済新時代の到来を強調、これにたいし朴周長も「両国の貿易不均衡などを早く解決し、韓日両国を軸とする環太平洋経済圏の形成をめざそう」と提唱した。

基調講演は日本側から前川喜雄・日銀副総裁が「韓日経済をめぐる諸問題」、韓国側は宋仁相・財務部元長官が「環太平洋世紀の到来のためのアジアNICSと日本の役割」（韓国は周永順・韓日経済協会副会長が代読）をテーマに行った。前川氏は日韓経済関係のポイントとして①両国産業構造の差②国際分業の協同相乗効果をあげ、これらへの適切な対応と両国間の建設的な競争と役割分担促進の必要を指摘した。一方、韓国側は「いま日本に求められているのは、アジアNICSや中国などとの経済協力の強化である」とし「日本はいま、自己完結的産業構造を持つとする限った考えを増えるべきだ」と、強く訴え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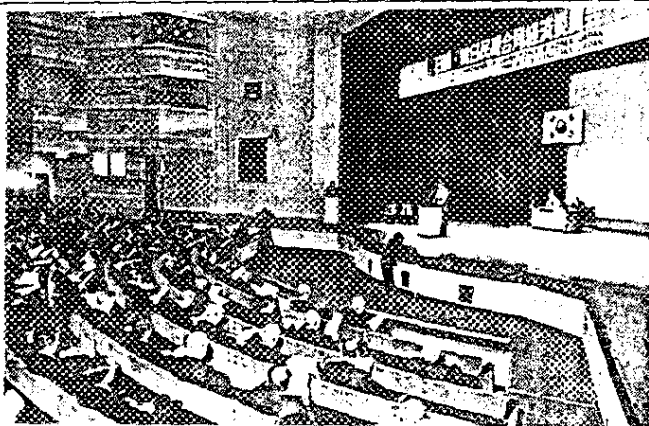
「技術開発基金」など提唱

日韓経済委で両国が研究成果を報告

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は、七日の全体会議で二年から日韓両国で並行して研究していた「西暦二〇〇〇年代における日韓・韓日経済協力」の成果報告を完了した。

機械、素材分野を中心に研究した日本側の研究会報告は、韓国を含めたアジアNICSと日本の貿易収支は一九八五年に百二十六億円の黒字だったが、二〇〇〇年には逆に七十四億円の赤字に転換、海外直接投資も現在より十倍もふえる」とみており、日韓貿易は今後均衡方向に向かうという。また日韓の分業体制も、すでに母機産業に一部みられるように、互いの弱点を補う形の水平分業が確立されるとしている。

一方、韓国側の報告は二〇〇〇年代における両国の繁栄のためには「交易量の拡大と均衡、韓国多国籍企業の育成、技術移転の促進、第三国市場での両国企業の協力を必要」としているが、とくに技術移転では、技術移転は先端かつ高度な技術を対象とする」と、両国企業の技術共同開発のため「韓日技術開発基金」の設置も検討すべきだ、などを提唱した。



↑相互信頼関係の構築を目指して基調講演などが行われた第二十回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
講壇 金沢市文化ホール

積極的な技術移転促進を

日韓民間 韓国側、日本に要望

【二十四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は七日午後、基調講演と全体会議を行い、この中で韓国側は日本に対し「アジアNICS（新興工業国）や発展途上国への積極的な技術移転と国際分業の推進を求めるとともに、技術開発基金の創設、教育交流の促進などを提案した。

【4、5、27面に関連記事】

基調講演の中で宋（ソ）相元財（ソウ・ヘン）は「四十年前世紀到来のためのアジアNICSと日本の役割」と題して、世界経済が直面する通貨不安や保護貿易主義の問題を解決するカギは日本が握っている」と強調。高所得に見合う消費行動と国際リーダーとしてこの責務の認識を日本側へ訴えた。

また韓国と中国の経済関係では「間接貿易から直接貿易の段階に移っており、両国貿易は今後、飛躍的に拡大することの見通しを明らかにした。

日本側の基調講演をした前川（マエグワ）雄雄（マエグワ・ユウユウ）は「日韓貿易は対米貿易と絡んだ韓国ウォンの対

ドル・レートの切り上げ問題について「通貨の過剰水準の実現はその国の経済にとって、利益は大きい」と述べ、ウォン切り上げの有用性を指摘した。

全体会議で韓国側は「日本から導入した技術の三分の二以上が開港後六年以上たっている」と不満を表明し、技術移転を早めるための措置として技術移転あっせんセンターの新設、両国の情報サービス機関の相互開放、合弁企業への金融、税制上の優遇措置、日本企業を牽引した韓国製造品に対する非関税協定の除去などを要求した。

両国が進展すると見通しを表明しながら「開港後の分業は必要だが、開港後の分業は必要だが」との考え方を強調した。

会議は二十日の八日に韓国開港を機して閉幕する。

相互信頼関係の構築を



前川 泰雄
前日本銀行総裁

基調講演

宋 氏 環太平洋時代を強調 水平分業の確立図れ

【ソウル8日電】韓国政府は、今日（8日）午前、ソウルで開かれた「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の基調講演で、宋（ソン）泰（テ）氏は、水平分業の確立を強調し、環太平洋時代を強調した。

宋氏は、韓国政府は、今日（8日）午前、ソウルで開かれた「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の基調講演で、宋（ソン）泰（テ）氏は、水平分業の確立を強調し、環太平洋時代を強調した。

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

調和のとれた発展を願うに
相補した。

全体会議

アジアの経済発展促進

【ソウル8日電】「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の全体会議は、今日（8日）午後、ソウルで開かれた。宋（ソン）泰（テ）氏は、基調講演で、水平分業の確立を強調し、環太平洋時代を強調した。

宋氏は、韓国政府は、今日（8日）午前、ソウルで開かれた「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の基調講演で、宋（ソン）泰（テ）氏は、水平分業の確立を強調し、環太平洋時代を強調した。



竹内 宏
日本経済産業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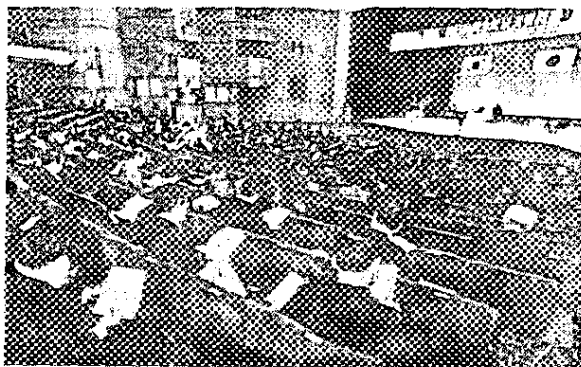


田中 啓
防衛大臣

【ソウル8日電】「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の全体会議は、今日（8日）午後、ソウルで開かれた。宋（ソン）泰（テ）氏は、基調講演で、水平分業の確立を強調し、環太平洋時代を強調した。

宋氏は、韓国政府は、今日（8日）午前、ソウルで開かれた「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の基調講演で、宋（ソン）泰（テ）氏は、水平分業の確立を強調し、環太平洋時代を強調した。

国際会議都市・金沢へ弾み



金沢市文化ホールで開かれた会談

第二、上野江・鶴田方面の同族會合は、亡父金沢重正より「元來を侮に關聯し、兩江の諸君が東京韓國總領事館へフ・ナグの新政府樹立の大義關係云々」について訓諭を重ねた。日韓交戦に關するところ、玄應と日本の間には東京、京都以外の地方都市では並行して起つて、地元の村長等は「金沢が因國交而亂」と、暗喩になつたと天賦迦。國際會議では「ペンシオン」都出づりのヌアツと訓告といふ。六議は、その八月一日共同聲明を採擧して閉會する。

地方で初の開催

県経済界は大歓迎

24
42

上野の野中村の大空をう
なり、伝説文化なるの銀光
面や陽の面　各系総合的
に開明されるの關鍵。

船に乗り出し、馬場へ来た
 といふ。

中西知事も開会式のあいさ
つで、七條は龍登平島を通
じ、大陸と外交の窓口だつ
たこと、右肩と大陸の結び付
きを強調してゐた。

大物

の杉浦敏夫・日本長期信用銀行会長、顧問の藤澤英二郎・祥研理事長、福岡県建設の朴泰成・福岡総合鉄鉄会長、警備の員佐田・全国祥研入連会会長ら、日韓財界の首脳百五十人余りが参加、夫人、顧問

2017

ローレンス、あの会議の

100

経済協定をバックアップした。越島屋理事長は「コンシン・シン都市としての実現を願っている。国際会議に限りず、夫人同伴の会議

助えており、いかに美人に
に都市の魅力を伝えるかわ
山梨なまでントだに、疑い
んでいる。

一方、韓日協會の事務
日は、韓国でも果敢分權が
わたつてゐる。地方での会
は不要である、その分、本
京では味方えない種痘や
問が沸つてゐる云々、評議



成巽閣でお茶を楽しむ。いずれも日本と韓国を代表する経済人の夫人たち

十三人(うち敵国側二十一人)かな光景が現れた。

夫人た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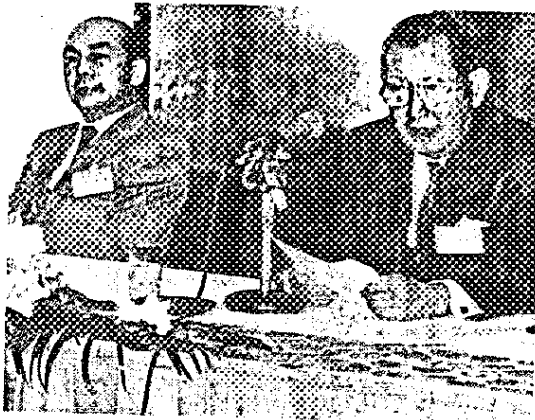
は午後から第六圖、梨立は
統帥兼工芸館などを見学し
た。成蹊園内の茶室「清雪樓
院」でお茶を淹し、なごや
かな光景が眺められた。

相互の理解深まる

日韓民間合同
経済委員会

金沢での開催評価

杉浦、朴両団長が会見



第二十回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会議で議長を務めた杉浦敏介団長（日本長期信用銀行会長）は八日、会議終了後、韓国側の朴泰俊団長と併に金沢東急ホテルで記者会見し、「一環發新政策が掲げる経済の民主化、国際化が進展すれば、日韓両国間の相互協力はいま以上に幅広い分野で促進されると思う。会議のやり取りを通じて

記者会見する杉浦日本側団長（右）と朴韓国側団長

金沢市内のホテル

第二回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会議で議長を務めた杉浦敏介団長（日本長期信用銀行会長）は八日、会議終了後、韓国側の朴泰俊団長と併に金沢東急ホテルで記者会見し、「一環發新政策が掲げる経済の民主化、国際化が進展すれば、日韓両国間の相互協力はいま以上に幅広い分野で促進されると思う。会議のやり取りを通じて

【一面に本記】

朴団長は、「韓日関係は、過去の歴史を通じて一番良好な状態に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うえで、同会議が地方都市・金沢で開催されたことに触れ、「今後、韓日両国間の相互理解を中央から地方に

の相互理解を中央から地方に協賛していく必要があり、その意味では、今回開催地を北陸の金沢に選んだ意義は深い」と評価した。杉浦団長も「ソウル・小松間に直行便が飛んでおり、日韓双方の参加者からコンベンション都市を

志向する金沢での会議開催を喜んでいただけた」と述べた。

共同声明の要旨

一、日韓経済関係は、近年になって順調な発展を遂げているが、いまや両国はより開かれた協力関係を構築し、共通の利益を追求することも、アジア・太平洋地域のみならず、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べき時代を迎えている。

一、保護貿易主義あるいは世界経済のブロック化の動きが高まる中で、健全な世界貿易秩序の維持のためにも、両国は引き続き協力して、拡大均衡に向けた貿易増進のための努力を払っていく必要がある。

一、最近、両国間の投資、技術協力は再び活発化しており、水平的・相互補完的分業関係が進展しつつあるが、これを適切な方向に推進し、両国経済の発展に資するためには、部品産業や中小企業などのすき分野における協力関係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

【合意事項】

一、年五回の訪日輸出促進団の派遣

一、訪韓中小企業協力コミッションの派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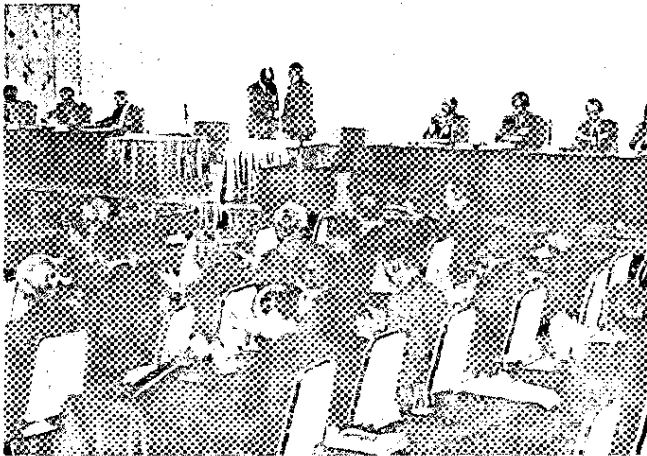
一、訪日韓国商協同会（ミツションの派生）

一、韓国大企業・訪日団の派遣（日本大企業・訪韓団（仮称）の派遣検討）

日韓民間
合同経済委

経済協力のすそ野拡大

共同声明採択し閉幕



金沢市で開かれていた第二十回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議は八日、三つの合同資料へで協議を深めた。と、日韓は貿易・投資・技術協力、経済・文化・教育・スポーツなど分野で相互に協力を一層進め、部品産業や中小企業など経済のすそ野分野の協力関係を強化する③新しい日韓関係構築に向け、交流の網を国民レベルに広げていくことなどを柱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二日間の日程を終え閉幕した。次回会議は来年食料・農産品分野で開かれる。

【2面に共同声明要旨と関連記事】

協定の確立と新政権発足一途の相互協力を確約して閉幕した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金沢市内の本ホテル

で、初めて開かれた今回の会議では、新しい歴史を刻み、日韓関係の発展に寄与するべく、貿易・投資・技術協力、経済・文化・教育・スポーツなど分野で相互に協力を一層進め、部品産業や中小企業など経済のすそ野分野の協力関係を強化する③新しい日韓関係構築に向け、交流の網を国民レベルに広げていくことなどを柱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二日間の日程を終え閉幕した。

要案の貿易・技術・文化・教育・スポーツなど分野で相互に協力を一層進め、部品産業や中小企業など経済のすそ野分野の協力関係を強化する③新しい日韓関係構築に向け、交流の網を国民レベルに広げていくことなどを柱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二日間の日程を終え閉幕した。

が積極的な協力する姿勢を打ち出した。さらに、日韓関係の発展に寄与するべく、貿易・投資・技術協力、経済・文化・教育・スポーツなど分野で相互に協力を一層進め、部品産業や中小企業など経済のすそ野分野の協力関係を強化する③新しい日韓関係構築に向け、交流の網を国民レベルに広げていくことなどを柱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二日間の日程を終え閉幕した。

社説



コンベンション都市を目指す金沢市を舞台に、第二十四回日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が二日間にわたって開かれた。

韓国ではさる二月初の平和的政権交代が実現し、盧泰愚大統領の「普通の人のための偉大な時代」のもと、安定と経済発展のなかの民主化が着実に進められている。日韓経済関係も新しい時代に入ってこのところ安定化の方向に進んでいる。こうした時期に、金沢市に両国経済界の代表ら多数が集まって高レベルの国際会議が開かれ、実りある協議が行われたのは、きわめて意義深いことであつた。

日本の表玄関にきた

韓国から久しぶりに日本の表玄関に入ったと思つている。韓国側副団長（韓日経済協会会長）の朴泰俊氏の言葉が印象深い。日韓国交樹立後、間もなく設置

された日韓・日韓経済協会が開く経済分野での対話の窓口、民間合同経済委員会は二十回の会議を重ねたが、東京・京都以外の地で開かれたのは、今回の金沢が初めてである。

北陸半島は古来、大陸の半島と日本との交渉の窓口であつた。

日韓の調和ある発展を

手ごたえ十分だった金沢会議

た。いすは、小松空港からソウル空港に向けて週二往復四便で一時間二十五分で結ばれている。石川県は全県コンベンション都市化を唱えている。北陸と隣り合わせの韓国との友好親善を一層盛り上げていきたい。日韓経済関係は安定化をたど

ているものの、大きな節目にきていることが、今回の金沢会議で浮き彫りにされた。

日韓経済、新しい展開
高付加価値産業化が日本、低賃金のメキシコの利用が韓国という区分はもうない。日韓双

方とも高技術と高付加価値化に向かっており、そのなかで調和のとれた補完関係をどう構築するかが課題、との認識は日韓経済人に共通している。水平的な分業への一層の進展を図るべき、とは基調講演をした前川春雄前日銀総裁の指摘で

ある。日韓の新しい相互依存関係をつくっていくキーポイントとなるのは、金沢会議で再三言及された二十一世紀は太平洋時代との視点を振り下げていくことだ。アジアNICs（新興工業国・地域）と日本・米国と

いう三角貿易システムの新環をスムーズにする努力を日本に求めていた韓国側の意見にも十分対応すべきである。

各国間経済的不均衡によって、保護貿易の台頭など世界経済に暗雲がたれこめているが、日本と韓国、そして他のアジアNICs諸国、中国が相互依存の実を挙げ、共存共栄し、アジア・太平洋の発展を期すること、世界経済の活性化になる。

日本は円高を通じて黒字体質の是正にあたり、内需主導型の安定経済成長路線を達成した。そして円高以来、アジアNICsとの水半分業が急ピッチで進み始めたことが、金沢会議で具体的に報告された。日韓貿易では昨年、韓国からの輸入が前年より五八%も増えた。

日韓経済関係は急展開をみせているが、今回の金沢会議で韓国側から強い対日期待があらわになったことを銘記しなければならぬ。日本の市場開放はあらゆる国に公平にやれ、との厳しい注文もなされた。建設市場開放も米国向けだけではいけない。財テク投資でなく直接投資を、との強い声もあった。

日韓両国はがっちり手をつないで新時代を画さなくてはならない。今回の金沢会議でつちかわれた、北陸と韓国のより近い関係を大事に育てていくこと。

「逆調是正」が後退

韓日民間
合同経済委
共同声明を採択

【金沢】韓日双方の経済人二百二十九人（韓国側九十六人、日本側百三十三人）が参加し、金沢市文化ホールで開かれていた第二十回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会議は八日、会場を東急ホテルに移し、金融、証券など幅広い分野での相互協力の増進など四項目からなる共同声明を採択して閉幕した。

懸案の両国貿易不均衡問題については、「引き続き協力して拡大均衡に向け貿易増進のための努力を払っていかねければならない」と、従来になくトーンダウンした表現になっている。これは「次第に改善の方向にある」との認識に

よるものだが、対日赤字は今年韓国側の予想でも四十五億に達し、過去三番目の規模になるだけに「改善」との認識が妥協かは問題として残る。

また、両国間の水平的・相互補完的分業へ向け、部品産業や中小企業などのすそ野部門での協力強化で一致をみた。人的交流拡大も積極的に取り組むことになった。

今回の共同声明は特徴として、両国間の多角的な経済協力・交流の拡大、強化が目立っているが、逆調是正策は全く影をひそめるなど、具体的な内容に欠けている。

共同声明の 主要内容

(1) 韓日経済関係は、近年になって順調な発展をみせているが、今や、両国はより開かれた協力関係を構築し、共同の利益を追求するとともに、アジア・太平洋地域のみならず、世界の平和と繁栄とに貢献すべき時代を迎えている。

(2) 水らく、両国間の懸案であった貿易不均衡問題は、双方の努力により、次第に改善の方向にあるが、保護貿易主義あるいは世界経済のブロック化の動きが高まる中で、健全な世界貿易秩序の維持のためにも、両国は、引き続き協力をし、拡大均衡に向けた貿易増進のための努力を払ってゆかねばならない。

(3) 最近、両国間の投資・技術協力は再び活発化しており、水平的・相互補完的分業関係が進展しつつあるが、これを適切な方向に推進し、両国経済の発展に資するためには、部品産業や中小企業等の裾野分野における協力関係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

(4) 今後、韓国において、経済の民主化・自由化・国際化が進展するに伴い、両国経済の健全な発展に資するため、金融、証券、保険、流通、運輸等の幅広い分野で相互の協力が増進することが望ましい。

(5) 新しい時代における韓日関係の構築に向けて、両国経済人のみならず、広く国民レベルで相互の理解と信頼関係を一層深めるため、様々な形の人的交流、あるいは文化交流等の促進が望まれる。

日韓民間
經濟提携
韓國財界人が提唱

日本と韓国の貿易、経済協力の拡大を話し合う第三回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が七日、金沢市文化ホールで開かれた。初日の開会式・全体会議では、八日午後貿易・技術技術交流など三つの分科会で本格的協議に入り共同声明を採択して閉会するが、韓国側は主要貿易入国である日本との経済・社会・文化・教育に仲介役割を行っているように「韓中貿易交流の発展と日本の役割」を主要テーマに掲げており、対中取引拡大に協力を求めるものともみられる。開会式では、まず日本側開会長の杉浦敏介日本民間合同経済委員会

朝鮮は支那財入がなくては日本
の聯合朝鮮社に仲介調停を
行っているように「韓中貿易
交流の媒介と日本の役割」を
主要テーマに掲げており、対
中取引拡大に協力を求めてく
るものとみられる。開成式で
は、まず日本朝鮮間の杉浦敏
介日本銀行副総長が、

泰成社総代理韓魯昌氏が「去
来のきくしくした関係が二
西のイコール・パートナー
としての協力関係を築く、韓日
新時代へへの大道を開く策
としたい」と感じた。

さらに新調講演を行った宋
仁相東洋イロン会長は、中
国と韓国は産業構造の地産商

経済民主化や國花などを應
即にする感熱温(ノ・テウ)
國新政府発足後、初めて開
かれる合同会議の意義を強調
した。

朴正煥の政治的行動

多浪市で開かれている第
十回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
委員会は八日、合同分科会を
本務会議に入り、韓国側は日
韓中が経済的に相互依存を認
める「北東アジア経済圏」構想

は開港・貿易一般協定（ガット）の精神が大切」と経済のグローバル化には難色の姿勢を呈したが、韓国が期待する韓中の広域貿易については民間でできるものについては民間

山田の経営分野の分科会で協力する事を約束した。

から四倍増へと移行しているとして、「中國との經濟交流は日本との食糧的分送による共同進出の形で積極的の要素である」と、日誌中の三期間の新たな經濟枠組み作りを呼びかけた。

日葡研究所事件を境に「總中
貿易交流の風潮と日本の役
割」のテーマで問題を規定し
た。この中で島田洋次郎は、
「日中間隙がさらに成熟し中
国の経済が活発化するれば總中
貿易の割合は漸次、貿易行指

全体会議の後、二年間の共同研究「三年における自給糧食努力のあり方」が発せられたが、協同関係は「兩国企業間の過剰的競争意識を乗り越え、努力に基いた共同繁栄を追求するための協議」として、共同食糧開発を推進する「韓日食糧開発基金」の創設を提案した。

に面かくと、満洲に在る獨
ながら日本のリードに期待を
示した。さらに國際分業や技
術開發等の民間協力を軸に
三国が役割分担した「北亞ア
ジア經濟圈」が形成されるべ
きと語った。

これに対し、日本側の八尋
俊雄、井物英吉が意見を述
べ、朝鮮経済活性化のために



2日間の日程で始まった日韓・韓日民間
合同経済委員会（金沢市文化ホールで）

日韓中「北東アジア経済圏」構想
韓国が初めて提唱

日韓民間
經濟委閉幕

金沢市で開かれていた第一回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第八回年次共同用期を採択し閉会した。次回は来春に韓国で開く。

努力が、引き続いただけに、向けては思案がある。貿易不均衡については、かなりのスピードで解消しており、良い状態になつてきている」と述べた。また朴委員長は「韓国日韓協会会長」の候補者が就選する前日、韓国に進

共同声明の内容は、韓国の新政権が進めている民主化、自由化、国際化に伴い、金融、証券、保険、商運、運輸などさまざまな分野に相互協力していくことが韓国の水平、垂直協定の分野を進めるため、郡屋建築や中小企業分野の協力関係を強化する。日本の思案という観点から、初めに地方の金融で行ったこと、初めて地方の金融で行ったこと、証券や金融などについて、韓国の関係などがあるが、これから専門家が話し合つて相互協力していくことになる。中韓を含めた太平洋圏構想については、韓韓でこれから実現に向けて協力していくと願つてゐた。

建設開放、米国並みに

鄭、現代クルトフ名誉会長に聞く

日韓民協合同議經濟委員會に出
席のため、来日した韓國の現代
グループの鄭周永・名誉会長は
八日、余沢市内のホテルでイン
タビュに応じ、「經濟大國に
なつた日本は米國にだけでなく、
韓國にも公共事業を開放すべき
だと述べるとともに、構想不
了現代自動車が日本に輸出する
況で苦しむ韓国について「日
本の企業と企業提携をしないよ
うに協力したい」と語つた。ま
た現代自動車は日本に輸出する

には、二、四年かかることも、
 らかにした。

——日本が米國に公共事業など建設市場の参入を大膽に認めたとについてどう思ふか。

一米國と同じ程度に強硬に終
めるのは、当然でしょう。日本
政府や建設業者が相互主義で

輸出しているが、決別日本です
か。

一方米国、米国は大型車と発展してきており、小型車は少ない。しかし、日本は小型車から発達してきており、そうした発展のところにいきなり出てきてもなくさん寝れないでしょう。

わが社は三、四年後に日本に輸出

とわすをを負つた。今年は昨年
のようにならぬと云ひがたいし
よう。昨年、この時期後貸金
上げた中小企業が少なかった。今
年も大企業では、八割、中小企
業では、七割は貸し出し。現
在浮城中の会社が多く、五月に
は終わるでしよう」

——日本の造船業は大変です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ith glasses, wearing a suit and tie, holding a cigarette. The image is a halftone print.

選股市场参入問題などについて
話す 藤岡永・現代グループ名義
会長 〓金沢市内のホテルで

國への門戸開放に反対しているのは、おかしな。日本は露國と

出すことを考えてます。七月

なことはないので、日本と協同

向かつて資本市場を開放しろ、
 といっているが、それなら韓国
 は日本の建設市場への参入を認
 めるべきだと主張したい。公共

し、世界に門戸を開き通す。韓
國市場で日本、欧米と競争し
て、力をつけてから、日本市場
への弱り込みを考へます」

かしたいが、各論となると難しい。今のままでは所収のトシネルを抜かれざるもない」

〈現代グループ〉白駒川、追

と何パーセントにもならない
し、米国、韓国の業者もそれほ
ど競争があるわけではない。ま

しかし、韓国では昨年夏から秋にかけて全国的に労働紛争で大変でしたが、今年の韓国の春闘はどのような状況ですか。

て約四十社、十六万人を擁する韓国、有数の財閥グループ。鄭周永氏が創業者で、昨年春に実弟の鄭世永・現代自動車会長にグループの支配権を譲り、会長に退いた。

——力大父、東國に自動車を

ちあつて大體を起こし、又

死した。



毎日経済協会
朴泰俊会長に聞く

毎日新聞社は八日、東京地
方・テウ 新政権移行後の
インタビューに答える朴泰
俊会長

「景気の後退は 五輪後もない」

日韓関係のあり方などにつ
いて、毎日経済協会の朴泰俊
会長（朝日総合製鉄会）に
聞いた。朴会長は八八年の経
済成長について「政府は過

の目標八・五％程度は十分達
成可能」と一層で懸念されて
いるソウル五輪大会後の景気
後退を否定した。
——ソウル・オリンピック
後には景気の後退が一部さ
やかれている。政府の八八年
経済目標としては実質八・五
成長となっているが。

朴 その程度の成長は十分
可能。しかし韓国にとって
は、景気が必要に感じ
ていない。一〇の成長と
はいかないが、大変いい成長
率である。建設市場の開放
の問題もキア・アンド・デー
クという前例の原則を踏まえ
て双方がオープンにすればよ
いのではないか。

——中国から浦項総合製鉄
に対して製鉄所の近代化要請
があればどうか。
朴 経済協力が政府の正常
化よりも先行する可能性はあ
る。我々が中国に協力するも
のを待っていることを双方が
認めれば何も進捗する必要は
ない。

88年も5.5%実質成長可能

日韓貿易の 拡大均衡を

民間合同経済委が閉幕

中小企業育成や 学生交流も推進

共同声明

金沢市で開かれていた第三
十回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
委員会会議は八日夕、両国間
の貿易の拡大均衡、韓国の部
品産業・中小企業育成のため
の協力関係の強化、両国大
生による相互訪問の奨励など
を柱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
し、二日間の会議を終えた。
次回は来年度、韓国で開く。
共同声明では、両国間の感
案であった貿易不均衡問題
（日本側の対韓貿易十八七年
は五十三億）について「次
これらの基本的な認識をう

けての韓国側の訪日輸出促進
（年五回の訪問の訪日輸出
品開発協力ミッションの推進
③日本側の訪韓中小企業協力
ミッションの推進④韓国大学
生訪日団の派遣（募集三回実
施）と日本の大学訪韓団の
派遣の検討など合意した。
会議終了後、記者会見した
朴泰俊会長は「両国間の感
案であった貿易不均衡問題は韓
国側の産業構造の問題もある
ので一挙に解決しないが、む
しろ改善されている。さらに

部品産業や中小企業への協力
が求められるのは政府のビッチは埋ま
るだろう」と述べ、両国経済
関係が一段と良好な方向に向
かうとの認識を示した。

——盛大歓迎は中国との交
渉に必要だが。
朴 中国はソウル五輪大会
に大躍進を遂げている。
こうしたことを契機に例えは
貿易を中心とする経済関係
をたいたものができる可能性
がある。

——中国から浦項総合製鉄
に対して製鉄所の近代化要請
があればどうか。
朴 経済協力が政府の正常
化よりも先行する可能性はあ
る。我々が中国に協力するも
のを待っていることを双方が
認めれば何も進捗する必要は
ない。

不均衡是正に一層の努力を

日韓経済委が閉幕

環太平洋経済圏を提唱

産業ミツ ション 相互派遣なども合意

金沢市で開かれていた「第十四回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主催：日韓経済協会、幹事：日韓経済協会は八月、二日間の会議日程を終え閉幕した。今回の合同委員会は、両国貿易の拡大と不均衡の是正、投資や技術協力のあり方など広い範囲にわたって意見が交換されたが、とくに韓国は日本に対して、建設市場の開放や先端・中核技術の移転を強く求めたほか、日韓両国を中軸とする「環太平洋経済圏」の形式を提唱するなど、その積極的な姿勢が目立った。



朴 養俊団長



杉浦 敏介団長

八日は前日の全体会議に続いて貿易増進、投資・技術・経済・一般協力の三分科会が開かれ、両国間の水平分業の必要性、中小企業分

とそれに果たす日本の役割、文化・交流の促進などが話し合われた。その中で訪韓中小企業協力ミッション、訪日部前開業協力ミッションの派遣、学生ミッションの相互訪問などが合意に達した。閉会式では恒例の共同声明の採択と杉浦敏介・日本代表団団長、朴養俊・韓国代表団団長のあいさつのあと、次の合同案を賛同国で閉会式を決定して散会した。共同声明は、日韓経済協力が共通する利益を追求するだけでなく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べき時代をむかえたこと認識のもと、貿易インバランス解消への努力、投資や技術のベースとする相互補完的分業体制確立と、中小企業分

野での協力促進の金融、証券、保険、流通、運輸なども協力関係の構築の人的および文化交流などの推進などが主な内容となっていた。閉幕後記者会見した杉浦・朴両団長は「互いに質素な討論をつみ

重ね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た。こうした相互理解が両国が世界に果たすべき役割をより高めていくと思う」と今回の合同案の成果を強調した。

重要懸案積み残し 韓日民間合同 経済委の決算

韓日間の提携が大勢加勢して、八の四月金沢で開かれた第十回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合同は、重大懸案の解決を先送りした。合同の参加者は五十他、日本の韓国駐在大使館と、韓国の韓国駐在大使館、日本分館によるイール・パートナーシップ（対等の関係）の確立、対中国輸出と日本の協力、技術的な新技術の対等な関係など幅広く討議した。だが、其の間に経済問題と技術問題などの懸案について具体的な討議は行われていない。

◆「努力払う」と抽象的に

韓日双方の代表者が二百、韓国の経済力増強と貿易される二十九人（韓国側九十六人、日本側百十三人）が参加した。この合同は、一九八四年の初会以来、毎年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この合同は、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この合同は、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

「新技術移転」に日本沈黙

逆調は正も 逆調なし 性急な「東北ア経済圏」台頭

韓日双方の代表者が二百、韓国の経済力増強と貿易される二十九人（韓国側九十六人、日本側百十三人）が参加した。この合同は、一九八四年の初会以来、毎年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この合同は、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

韓日双方の代表者が二百、韓国の経済力増強と貿易される二十九人（韓国側九十六人、日本側百十三人）が参加した。この合同は、一九八四年の初会以来、毎年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この合同は、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

韓日双方の代表者が二百、韓国の経済力増強と貿易される二十九人（韓国側九十六人、日本側百十三人）が参加した。この合同は、一九八四年の初会以来、毎年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この合同は、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



20回目を迎えた韓日民間合同経済委（倉庫文化ホール）

韓日双方の代表者が二百、韓国の経済力増強と貿易される二十九人（韓国側九十六人、日本側百十三人）が参加した。この合同は、一九八四年の初会以来、毎年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この合同は、韓国側の発展を助ける目的として行われてきた。